

한여름의 하모니
울산 남구



All Inclusive 빈틈없이 준비된 휴식의 여정

온전한 휴식으로의 몰입을 위하여 지내시는 동안 별도로 준비하실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이 포함된 휴식의 여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휴식으로의 진입을 알리는 첫 인상



차와 함께 따스한 환영을 경험할 수 있는 체크인 여정



머무는 동안 나만을 위해 마련된 정원과 객실



순수성을 담은 온천수의 심층적인 경험



미각과 시각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저녁 코스



공해적 빛이 차단된 야간 노천 온천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



소음이 차단된 공간에서 나누는 동행인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



자연이 스며드는 아침에 든든함을 더하는 높은 완성도의 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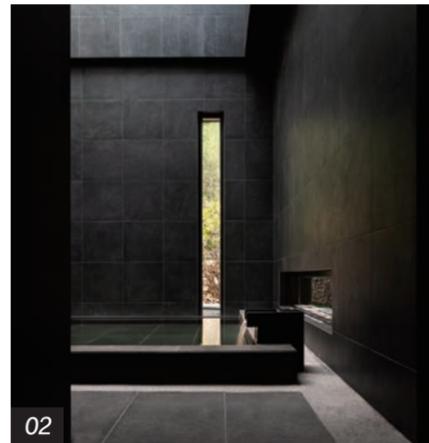
DATA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6
요금	• 정상가 160만 원~(1박 2식, 2명 1실 기준) • 할인가 144만 원~ (석식 : 컨템포러리 파인 다이닝 코스요리)
Check-In	15:00
Check-Out	11:00
객실 수	16실
식사	레스토랑(개별실/단체실)
온천	남/여(실내, 야외 노천), 대여탕(유료)
부대시설	라운지 수, 라운지 온, 카페, 테라피(유료 운영)



온천 문화의 새로운 변화
유원재 호텔&스파에서
53도 자연 용출수를 경험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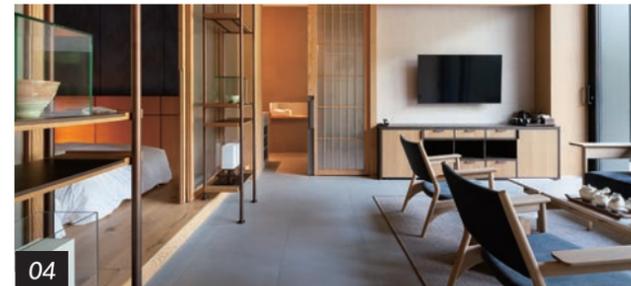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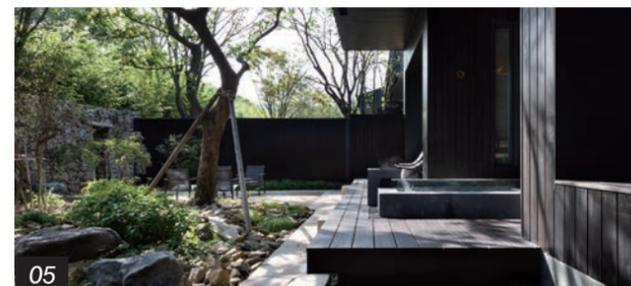
02



03



04



05



06

충주시 / 수안보온천

Tel. 043-820-8100



留園齋

유원재 호텔&스파

<https://www.youonejae.com>

온전한 휴식이 있는 여름 휴가 장소, 유원재

무더위에 지친 심신에 활력을 더하는 유원재의 휴식, 그 삶의 가치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올여름, 겸화 객실에서 추가 비용 없이 1인 추가 숙박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마루에 마련된 포근한 침구 위에 누워, 솔솔 불어오는 여름 바람을 맞으며 몸과 마음에 쾌청한 여유를 불어넣는 유원재의 여름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하십시오.

겸화 객실 1인 무료 추가 투숙 이벤트

- 기간 : 7/1~8/31(입실 일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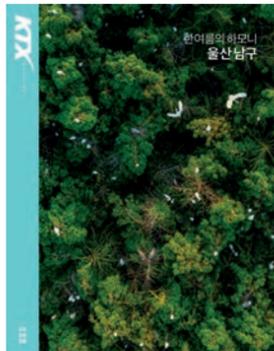
- 내용 : 겸화 객실 기준 인원(최대 2인)에서 추가 1인 투숙 가능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프로모션에서 확인)

01.라운지 수 02.실내탕 03.카페 04.객실 05.객실 정원 06.노천탕



이달의 여행
042 **한여름의 하모니,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부터 삼호동 철새마을까지
자연의 소리를 쫓아 걸음을 옮겼다.
올여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풍경과 선율을 맞닥뜨렸다.



표지 이야기

울산 남구 삼호대숲

해마다 번식지와 월동지를 왕복하는 철새는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려 주는 반갑고 소중한 존재다. 울산 남구 태화강 중류에 위치한 삼호대숲에 가면 여름 철새인 백로류 수백 마리를 관찰할 수 있다. 이들은 10월 무렵 온난한 기후의 동남아시아로 떠났다가 얼음이 녹는 3월에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온다. 태화강 위 수풀에 원을 그리며 착지하는 우아한 날갯짓과 찌렁찌렁한 울음소리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서퍼 겸 모델 최형석



완벽한 방수기능으로
샤워 중에도 깔끔한 밀착 면도



STYLE이 있는 남자

LAMDASH
PALM IN SHAVER

ES-PV6B

020 촬영지 여행

끝나지 않을 사랑 이야기

드라마 <우리영화> 속 제하와 다음이 만나고 헤어지는 순간 등장하는 거대한 나무는 강원도 원주에서 볼 수 있는 반계리 은행나무다.



024

022 여행자의 방

휴양지 호텔의 우아한 환대, 신라모노그램 강릉

올여름 강원도 강릉 송정해변에 신라모노그램 강릉이 문을 열었다.



066

024 여행자의 공간

시대를 초월한 소리의 세계, 오디오움

세계 최초의 오디오 박물관, 오디오움에서 오감을 통해 소리를 감각했다.

026 한국의 맛

더위 물릴 양은 한 상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이종국 작가의 양은 시리즈 한 상을 마주했다.

028 한국의 맛

한술에 수분 충전

갈증 해소에 제일인 수박을 한술 퍼먹으면 온몸이 금방 서늘해진다.

032 시절, 풍경

한 시절이 차오른다

숨막히게 차오르는 한여름의 열기를 카메라에 담았다.

038 전국 행사 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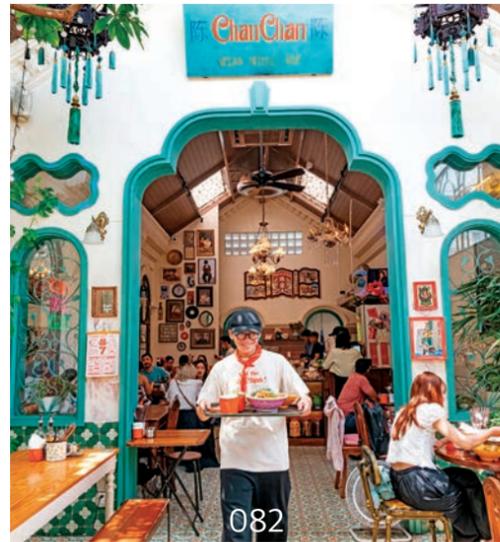
8월의 축제·공연·전시 소식

하루를 알차게 보낼 전국 곳곳의 재미난 행사를 모았다.

066 여행의 발견

물길 따라 흐르는 마음, 안동

더위에 흐느적거리는 마음을 씻으러 유장한 세월이 물길 따라 흐르는 경북 안동을 누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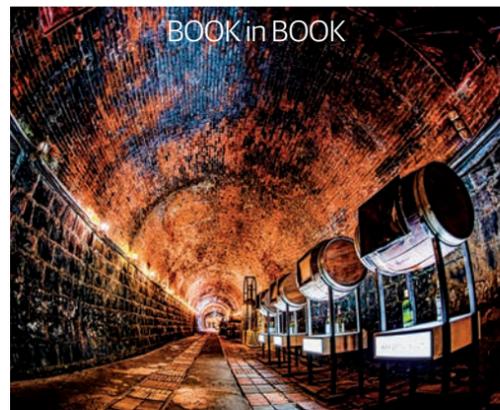


082

082 기차 안 세계 여행

호찌민의 젊은 동네

지금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변화하는 동네, 베트남 호찌민의 1·2·3군을 탐색했다.



BOOK in BOOK



BOOK in BOOK

made in CHEONGDO

청도를 만드는 공간과 사람, 일곱 가지 이야기

경북 청도에서 유쾌하고 건강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을 만났다.

Panasonic

설치미술가 강재준

강력한 5중날로
어디서나 쉽고 빠른 밀착 면도

STYLE이 있는 남자

LAMDASH
PALM IN SHAVER

ES-PV6B

- 090 함께 여행
오롯한 한 끼, 감자의 여정을 좇다
경기도 여주의 감자밭에서 밭밭의 배기현 이사와 함께 감자를 캐고 맛보며 한 끼의 의미를 되새겼다.
- 114 인터뷰
화가 김선우의 도도새와 새鳥상 여행
지구상에서 멸종된 도도새를 그리는 작가 김선우. 도도새는 그를 자유롭게 한다.
- 122 전시 보러 갑니다
논픽션 시네마 극장
아랍 출신 두 작가 와엘 사키와 아크람 자타리의 작품을 위한 특별한 극장이 열린다.
- 130 문화산책
새 나라 새 미술: 조선 전기 미술 대전
15~16세기 조선 시대 미술의 정수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난다.
- 144 지역 생산자들
벌꿀의 달콤한 변주, 워커비
워커비는 벌꿀에 천연 재료를 블렌딩해 달콤한 혁신을 이뤘다.
- 150 테마가 있는 골목 탐험
서울 속 여름 쉼터
폭포 소리, 빗소리 들으며 더위를 피할 서울 도심 속 쉼터를 방문했다.
- 156 KTX타기 1시간 전
강릉에서 감성 충전
강원도 강릉역 부근에서 감도 높은 가게 여섯 곳을 찾았다.
- 162 트렌드 읽기
함께여서 더 빛나는 문화예술계 콤비들
끈끈한 협업으로 대중을 흥린 창작 파트너들을 살펴봤다.
- 164 이달의 소식
에디터가 선별한 8월의 소식
무더위를 날릴, 서늘한 공포와 전율을 선사하는 콘텐츠를 꼽았다.
- 176 플레이리스트
강아솔과 떠나는 음악 여행
섬의 날을 맞아 제주 출신 뮤지션 강아솔이 노래를 추천했다.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선물할 곡으로 고심해서 골랐다.
- 168 코레일 소식
- 17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72 열차 이용 안내
- 174 비상시 행동 매뉴얼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 들려주고, 60여 개 언어로 자동 번역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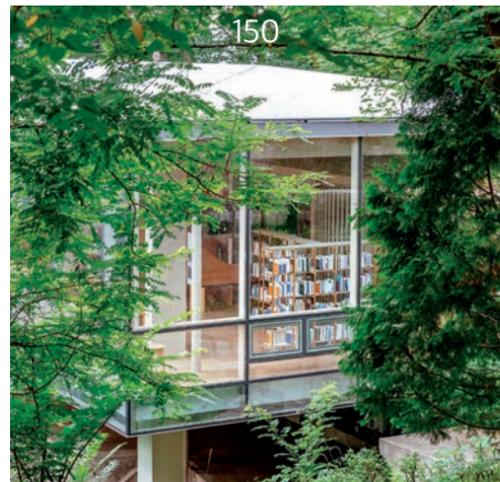
114



122



144



150



USB-C 타입 충전



휴대용 케이스

스타일리시한 남자의 필수품 파나소닉 램대쉬 팜인 웨이버

스타일리시하고 스마트한 남자의 가방엔 늘 파나소닉 램대쉬 팜인 웨이버가 들어 있다.

세련되고 콤팩트한 디자인, 뛰어난 휴대성, 강력한 절삭력에 조약돌 같은 그림감까지. 멋을 아는 남자라면 파나소닉 램대쉬 팜인 웨이버를 잊지 않는다. 에어팟 케이스를 닮은 아담한 생김새부터 매력적. 군더더기 없이 매끈하고 심플한 파나소닉 램대쉬 팜인 웨이버는 작지만 강력하다. 무게는 고작 145그램. 한 손에 쏙 들어올 정도로 작지만, 프리미엄 5중 날과 30도 나노 에지로 빈틈없는 밀착 면도가 가능하다. 분당 회전 수 약 1만 4000회의 초고속 리니어 모터를 탑재해 잔뿌리까지 놓치지 않고 제거한다. 간편한 충전 방식과 탁월한 방수 기능 또한 매력적이다. USB-C 타입 충전 방식으로 전용 충전기 없이 어디서나 간편하게 충전이 가능해 여행이나 출장 시에도 사용하기 편리하다. IPX7 등급 방수로 샤워 중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간편한 세척으로 위생적인 관리까지 가능하다.



2025년 8월호

KTX MAGAZINE

제22권 제8호 통권 제254호
2025년 8월 1일 발행

발행인 한문희(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반디컴
서울시 중구 퇴계로36가길 77

편집인 박정인

편집장 최현주 ktxeditor@bandicom.com
기자 신송희 ssong@bandicom.com
김수아 ksau@bandicom.com

객원 기자 이제희 이미혜

교열 한정아 오미경 김혜란
번역 박경리

아트 디렉터 김경배
디자이너 이원경 조경미

사진 안홍범 전재호 김은주 봉재석 황필주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bandicom.com
부장 심재우 jwshim22@bandicom.com
차장 김성은 bandicom0701@bandicom.com

배포 소장 이재우

매거진 사업부 본부장 여하연 heytravel@bandicom.com
마케팅 사업부 본부장 강태선 kenkkang@naver.com

기획·제작 홍영선 nana12wq@bandicom.com

인쇄 효성인쇄사

<KTX매거진>은 KTX 열차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KTX매거진>을 보신 뒤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내부 방침상 정기 구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문의 | 편집 070-4117-1191 광고 02-2276-1190

ULSAN WHALE FESTIVAL 2025



울산고래축제
홈페이지 QR코드



2025.09.25(목) - 09.28(일)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

주최 울산광역시남구 Namsan Metropolitan City 주관 고래문화재단 Whale Cultural Foundation www.ulsanwhale.com

고래의 선물
Gift From a Whale
2025 제29회
울산고래축제
The 29th Ulsan Whale Festival 2025



들키고 싶은 마음

편집장의 글은 늘 마감 맨 끄트머리에 씁니다. 기자들의 원고를 다듬고, 사진을 고르고, 디자인을 완성한 후 책의 꼴이 90퍼센트 이상은 갖춰진 다음에야 비로소 독자 여러분께 전하는 글을 쓸 기회를 얻습니다. 너무 사적이어도, 너무 공적이어도 안 된다는 매우 모호한 기준을 가진 저는, 늘 첫 문장에 대한 고민에 빠집니다. 이달도 마지막까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홍보문화실에서 전해 준 파일 하나가 제 방향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무려 2000행이 넘는 엑셀 문서. 그안에는 지난달 진행한 '철도의 날 131주년 기념 독자 이벤트'의 결과 데이터가 들어 있었습니다. 2000명 넘는 분이 참여하셨고, 7월호에 대한 의견을 깨알 같이 보내 주셨습니다. 한 글자 한 문장, 행간에 든 의미를 새기며 눈알이 빠근할 정도로 집중하는 사이, 얼마나 많은 독자분이 <KTX매거진>을 꼼꼼히 탐독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각 칼럼에 대한 애정과 공감, 진심 어린 조언에 더해 매거진에 바로 적용해도 좋을 아이디어까지. 저는 그저 몽클한 마음이 되어 열 명 단위로 데이터를 끊어 읽으며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순간, 저에게 직접 말을 걸어오는 듯한 분을 만났습니다. 지난달 편집장의 글을 읽곤, 발등 골절로 힘들어하는 저를 걱정해 준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송구할 만큼 감사하게도 그런 분이 꽤 많았습니다. 답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이달 편집장의 글 첫 문장은 이걸로 하자,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김스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디워가 찾아오기 전 저는 김스를 풀었고, '맨발'로 조심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앉아 두 팔로 정강이를 감싸안는 것. 숨을 쉬고 재채기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 이토록 큰 자유를 안길 줄 몰랐습니다. 들키고 싶은 마음을 알아주셔서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글로 마음을 나누고, 크게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도 깊이 배웠습니다.

<KTX매거진>을 아끼는 독자분들의 진심을 알기에, 8월호도 최선을 다해 전국 곳곳을 뛰어 다녔습니다. 울산 남구에선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부터 삼호동 철새마을까지 고래와 철새의 소리를 쫓아 생태 여행을 했고, 경북 안동에선 조선 선비들의 풍류가 깃든 물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갑자가 마트에서 생산된다'고 착각하는 이들을 감자밭으로 안내하는 벼밭의 배기현 이사를 따라 난생처음 감자도 캐 봤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찾았습니다. 아랍 출신의 두 작가, 와엘 샤키와 아크람 자타리의 전시 <아더랜드 II: 와엘 샤키, 아크람 자타리>는 미술관 속 극장에 온 듯하고, <새 나라 새 미술: 조선 전기 미술 대전>은 15-16세기 조선으로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눈앞에서 거대한 인공 폭포가 쏟아지는 카페, 새 등지처럼 은밀히 감춰진 숲속 책방 등 서울 속 숨터도 여럿 소개했습니다.

덧붙여 '철도의 날 131주년 기념 독자 이벤트'는 8월에도 진행하며 올해 말까지 이어집니다. 이달에도 여러분의 귀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편집장 최현주

우리는 연결되고, 점유한다 We Connect, We Occupy

에코 누그로호

에르칸 오즈겐

권승찬

아이작 총 와이

진양핑

강수지 · 이하영

이세현

오픈 그룹

이산

Eko Nugroho

Erkan Özgen

Gwon Seungchan

Isaac Chong Wai

JinYangping

Kang Sooji · Lee Hayoung

Lee Sehyun

Open Group

Yisan

2025. 06.10. 09.03.

전남도립미술관 Jeonnam Museum of Art

이세현, 에코 누그로호, 다시 찾아온 그날, 2024
장기매출용 일크레 안료프린트, 180x120cm (일부변형) © 이세현
Lee Sehyun, Eko Nugroho, The Day Returned Again, 2024
Archival pigment print, 180x120cm (partially modified) © Lee Sehyun

언제 어디서나 <KTX매거진>

<KTX매거진>을 발견한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마주한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SNS로 만나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으로 연결됩니다.



@ktxmagine 계정을 태그하거나 #KTX매거진 해시태그를 달아 주시면 여러분의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자 선물

'#KTX매거진'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브랜드 아이러의 '데일리 반지갑'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한 손에 잡히는 크기라 휴대하기 편하고 내구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제품문의 02-2256-7901



정고은 부산시 동래구 금정마을로

부부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KTX매거진>에 담긴 한국 곳곳의 예쁜 조각을 만났다. 가장 인상적인 기사는 목호 이야기. 부산에 사는 우리는 바다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바다도 여러 얼굴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름, 연락처, 주소와 함께 <KTX매거진> 8월호를 읽은 소감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매일 주소 KTX@bandicom.com 기간 8월 11일까지**



양길식 인천시 서구 완정로

동춘서커스단 박세환 단장의 서커스 인생을 훑은 뒤 한동안 멀어졌던 서커스를 회상했다. 볼거리가 한정적이던 시절, 화려한 곡에는 무료한 일상에서 한 줄기 빛이었다. 어쩌면 서커스는 모두에게 잊힌 게 아니라 내가 관심 갖지 않았던 게 아닐까.

대명소노그룹 소노호텔앤리조트 2025년 신규회원모집

무기명 5,100만원 회원권 선착순 한정 모집!

I. 한정구좌

소노리움은 한정상품으로 소진시 판매가 종료되는 선착순 공유제상품입니다. 회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실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II. 객실할인 10년

객실 50% 할인을 10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노리움 가입시 사용 가능하며, 소노러스 회원 대우를 5년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노러스 객실 | 가입혜택 미적용]

III. 평생 회원권

골프, 스키, 워터파크, 직영식음업장 등 200여곳 부대업장을 최대 50%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동안 누리는 회원혜택을 경험 하십시오.



SONO

HOTELS & RESORTS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께 뉴멤버십 신규회원모집에 대한 카탈로그를 배송해 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시시오. 010-4140-6540

상담문의 02)2222.5917

비발디파크 | 델피노 | 쓸비치 양양·삼척·진도·남해 | 소노캄 고양·여수·거제·제주(예정) | 소노문 해운대 | 소노벨 양평·천안·단양·청송·번산·제주

HONG KONG WEEK 2025@SEOUL

9.26-10.25

홍콩과의 데이트
Date with Hong Kong

홍콩위크 2025 서울

9.26(금) — 10.25(토)

N

홍콩위크



hongkongweek.gov.hk/kr

네이버 검색창에 홍콩위크를 검색하세요



우관중 예술후원 해외전시 시리즈
Wu Guanzhong Art Sponsorship Overseas Exhibition Series

우관중

Wu Guanzhong:
Between Black & White
吳冠中——黑白灰

흑과 백 사이

2025.07.25 – 10.19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제3전시실
Gallery 3,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Seoul Arts Center
무료 입장 Free admission

홍콩위크 2025 서울

주요 프로그램

서울에서 만나는 홍콩 예술
세계적 수준의 무용,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패션까지
14개 프로그램으로 펼쳐지는 문화예술 교류의 향연



LX Z:IN 벽지

벽지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다 **다이아망 포티스**

| 스모크 그레이 / DF004-05



2025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벽지 부문 21년 연속 1위



2024년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가정용 건축자재 부문 4년 연속 1위



*해당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철도의 날 131주년 기념

<KTX매거진>이 131명에게 쓴다!

8월에도 철도의 날 131주년을 기념하는 <KTX매거진> 독자 이벤트가 계속됩니다.

<KTX매거진> 인스타그램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

KTX 열차 30퍼센트 할인권과 신라모노그램 강릉 숙박권을 드립니다.



참여방법

- ① <KTX매거진> 인스타그램(@ktxmazine) 접속
- ② 프로필 링크 중 이벤트 링크 클릭
- ③ 설문 조사 참여하기

선물

- ① 당첨자 131명에게 **KTX 열차 30퍼센트 할인권** 제공
- ② 당첨자 131명 중 1명에게 **'신라모노그램 강릉' 코너 스위트더블 가든 오션뷰 객실 1박 (2인 조식 포함)** 제공

참여기간

2025년 8월 1일~8월 20일(20일간)

당첨자 발표

2025년 8월 28일 <KTX매거진> 인스타그램



지금 바로,
행운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 신라모노그램 강릉



LX하우시스 프리미엄 인테리어 전시장
지인스퀘어

자재 라이브러리

LX Z:IN 자재를 자유롭게 체험

원스톱 서비스

자재 선택부터 시공, A/S까지

맞춤형 인테리어 솔루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1:1 전문 상담

가까운 지인스퀘어에서 LX Z:IN 벽지 '다이아망 포티스'를 만나 보세요.

강남/고양/동탄/목동/부천/분당/수원/영등포/위례/의정부/청량리/
대전/청주/광주/전주/대구/부산서면/부산해운대/울산/창원/포항/제주

이 계절의 무릉도원

절벽 아래로 거침없이 쏟아지는 물줄기가 더위와 근심을 씻겨 내린다.
울산 태화강 동굴피아의 폭포 소리에 온 마음을 맡겨 본다.



끝나지 않을 사랑 이야기

영화감독과 시한부 배우의 사랑을 품은 1300년 된 은행나무. 앞이 진다고 나무가 죽는 게 아니듯, 영화가 끝나도 사랑은 남는다.



소포모어 징크스를 알고 있는 영화감독과 생의 끝자락에서 인생의 주연으로 살아 보려는 배우의 사랑을 그린 드라마. 배우 남궁민과 전여빈이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절절한 사랑을 연기했다.

삶에서 드라마틱한 순간을 마주할 때 우리는 영화 같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런 순간을 모아 작품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더 영화 같을까. 드라마 <우리영화>는 데뷔 이후 차기작을 찍지 못하고 있는 영화감독 제하와 시한부 인생을 사는 배우 다음이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관계의 끝을 알면서도 만남을 시작한 두 사람이 주인공인 만큼 장면 하나하나, 감정과 대사의 밀도가 높다. 1화 초반, 제하와 다음의 이야기를 함축한 은행나무 신만 봐도 지극히 영화적이다. 캠코더를 든 다음이 푸르른 은행나무를 찍으며 오른쪽에서 걸어오고 제하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다 각자 왔던 길로 사라진다. 이후 황금빛 가을과 황량한 겨울을 거쳐 푸른 잎으로 빼곡한 은행나무가 다시 나타나고, 이번에는 제하가 웃으며 다가오는 다음을 촬영하면서 비로소 서로를 제대로 마주 본다. 장면 전후로 흐르는 내레이션. "영화는 인생처럼 엔딩을 향해 설 새 없이 달려간다. 그리고 또 어떤 인생은 엔딩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시작일 때가 있다." 두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순간에 계속 등장하는 은행나무는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에 있다. 드라마에서 그렇듯, 실제로 봐도 높이 32미터, 둘레 16.27미터의 웅장한 자태가 시선을 압도한다. 최근 밝혀진 나무의 수령은 무려 1317년.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긴 세월을 지나온 나무처럼 제하와 다음이 만든 영화도, 겹겹이 쌓아 올린 사랑도 어떤 이의 마음속에는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Again 온양 head 아산

2025-2026 아산 방문의 해



자연 그대로의 신선함, 아산맑은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아산시농·특산물스마트스토어



휴양지 호텔의 우아한 환대, 신라모노그램 강릉

신라호텔의 라이프스타일 호텔 브랜드,
신라모노그램이 국내 처음으로
강원도 강릉에 들어선다.

완만한 해안선과 싱그러움 숲, 그윽한 커피 향과 연인들의 경쾌한 웃음소리. 힘이 필요한 여행자를 언제라도 환대하는 곳, 강릉 송정해변에 신라모노그램 강릉이 문을 열었다. 신라모노그램 강릉은 신라호텔의 라이프스타일 호텔. 여섯가지 타입의 호텔 객실 315개와 여덟 가지 타입의 레지던스 객실 602개로 이루어졌다.

객실의 90퍼센트가 시원한 송정해변과 싱그러움 숲밭이 모두 바라다보이는 곳에 배치되어 객실에서 강릉의 자연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것이 매력적이다. 호텔의 경우, 5층 전 객실을 어린이 고객을 위한 '키즈 객실'로 꾸민 것도 특별하다.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벙커 룸과 패밀리 베드도 있어 가족 구성원 모두 공간을 즐겁게 이용한다. 반려견과 숙박할 수 있는 반려견 동반 객실, 커플을 위한 로맨틱한 객실도 마련했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자쿠지를 즐길 수 있는 '시그니처 스위트' 객실, 전용 테라스와 수영장이 있는 '테라스 스위트' 객실은 연인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이다.

신라모노그램 강릉에는 레저와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도 다양하다. 어린이 프리미엄 놀이 공간 '리틀 모노그램', 친구들과 또는 가족 모임을 하기 좋은 '프라이빗 파티 룸', 골프 고객을 위한 '스크린 골프 존' 시설도 갖춰 호텔을 벗어나지 않고도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고품격 다이닝 시설, 싱그러움 숲밭과 바다가 보이는 실내의 수영장, 럭셔리 스파 시설 '스파 파빌리온'도 신라모노그램 강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휴양과 레저, 미식을 아우르는 강릉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호텔, 신라모노그램 강릉은 우리가 호텔에서 기대하는 궁극의 휴식과 재충전의 기쁨을 선사한다.

주소 강원도 강릉시 해안로 186(신라모노그램 강릉 호텔), 강원도 강릉시 해안로 210(신라모노그램 강릉 레지던스)



내일을 바꾸는 오늘의 실천 스포츠7330



대한체육회와 함께하는 범국민 캠페인 스포츠7330



왜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운동해야 하는가?

우리 신체는 외부 자극의 영향을 받는 시간이 약 2일로 일주일에 3~4일의 운동이 투자한 시간 대비 최대의 운동효과를 거둘 수 있다.



왜 하루 30분 이상 운동해야 하는가?

30분 이상 지속했을 때 심폐지구력 향상 및 투자 시간 대비 가장 많은 운동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운동 후 30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지방이 분해, 소모 된다.

* 이 제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스포츠7330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남녀노소 전국민 프로젝트 SPORTS 7330 챌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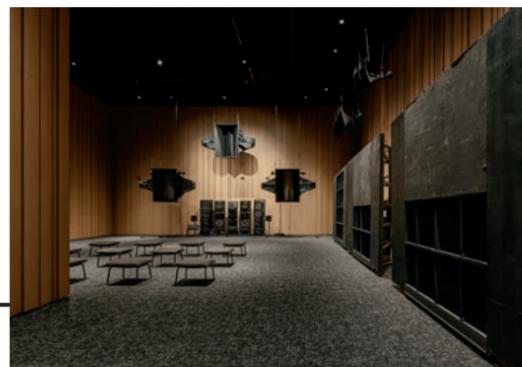
시대를 초월한 소리의 세계, 오디움

서울의 한적한 청계산 부근에 자리한 오디움 박물관에서 온몸으로 소리를 감각한다. 100년에 걸친 역사와 감성을 품은 소리는 경이로움의 연속이다.



매년 전 세계 우수 건축물과 디자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베르사유 건축상이 올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박물관 중 하나로 한국 박물관을 꼽았다. 바로 세계 최초의 오디오 박물관, 오디움이다. 지난해 6월 5일 개관한 오디움은 세계적인 일본 건축가 구마 겐고와 디자이너 하라 겐야의 손길을 거쳐 탄생했다. 각기 다른 굵기와 길이의 알루미늄 파이프 2만 개가 수직으로 건물을 감싼 외관이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다. 계단을 내려가야만 정문에 닿는데, 여기엔 건물 전체를 충분히 관람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내부로 들어가 물입하기를 바라는 구마 겐고의 섬세한 마음이 담겼다.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편백나무 향이 후각을 자극한다. 청음에 최적화된 공간 설계를 위해 전시실 층고를 높게 확보해 음향이 고르게 퍼지도록 했고, 벽은 소리를 흡수하는 나무로 단차를 두어 명료한 음향이 전달되도록 했다. 오디움은 처음 방문하는 사람도 빈티지 오디오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도록 도슨트 투어를 운영한다. 상설전인 <청음(正音): 소리의 여정>은 19세기에 에디슨이 만든 축음기부터 1920~1960년대 빈티지 스피커까지 100년에 걸친 시대별 오디오 기술의 변화를 쫓는다. 전시의 가장 큰 매력은 희귀 컬렉션을 청음할 수 있다는 것이다. 98년 전에 나온 스피커로 감상하는 비틀스의 'Yesterday'는 반주로 깔린 현악기 소리가 현장에서 듣는 것처럼 생생하다. 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오르골로 듣는 '여행을 떠나요'는 현란한 인형들의 지휘에 맞추어 통통 튀는 북과 트럼펫 소리가 이색적이다. 이 외에도 '축음기의 조상'이라 불리는 19세기 뮤직박스, 세계 최초 극장용 사운드 시스템인 1920년대 미국 웨스턴 일렉트릭의 혼 스피커 등 음향계에 한 획을 그은 기기가 내는 소리의 진가를 경험해 볼 기회다.

주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8길 6



© Audeum

대한민국 소상공인 곁에, 언제나 소상공인연합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든든한 지원

우대 혜택	소상공인 주간 활성화	홍보 지원	우리동네 선한가게 지원	무료교육
소상공인연합회 각종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 부여 	소상공인대회·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 개최, 소상공인의날 기념식 (유공자 포상 시상식) 	소상공인연합회 SNS 채널, 뉴스레터(월간),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 정보 제공 및 홍보 지원 	선(善)한가게를 찾아 봉사활동 지원금 등 지원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 무료이용 및 업종 및 지역회원 대상 소상공인 무료교육 제공 (월 15회 이상)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하세요!

1 회원가입신청서 및 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출

※ 정회원(법인·조합 및 단체) 및 지역회원(개인)에 맞는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및 서명 작성 후 아래 방법으로 접수

● 이메일: cms@kfme.or.kr ● 팩스: 050-4926-0027
● 문의사항: (대표번호) 1522-0500 / CMS 담당자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가입 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함께해 주세요



더위 물릴 양은 한 상

보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한상이 눈앞에 차려졌다. 작품명은 '양은 시리즈'. 익숙한 재료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이종국 작가는 1960~1970년대에 일상에 서 유용하게 쓰였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진 양은에 주목한다. 그는 버려진 양은 식기를 자르고 돌이나 나무 같은 재료와 결합해 독창적인 미감과 쓰임을 만들어 낸다. 작품은 오는 9월 16일까지 서울 신세계 본점 더헤리티지 5층 전시장 '하우스오브신세계 헤리티지'에서 만날 수 있다.



朝鮮日報 선정 2025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주최 | 조선일보 후원 | 한국안전처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록적 폭염, 줄기세포로 여름 보양 가능할까

줄기세포는 약해진 세포를 튼튼하게 되돌린다. 무더위도 거뜰히 이겨 내던 젊은 시절 체력이 돌아오는 것이다. 조찬호 청담셀의원 대표원장이 폭염을 이겨 낼 적극적인 건강법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제안한다.

더위도 젊은 사람이 더 잘 이겨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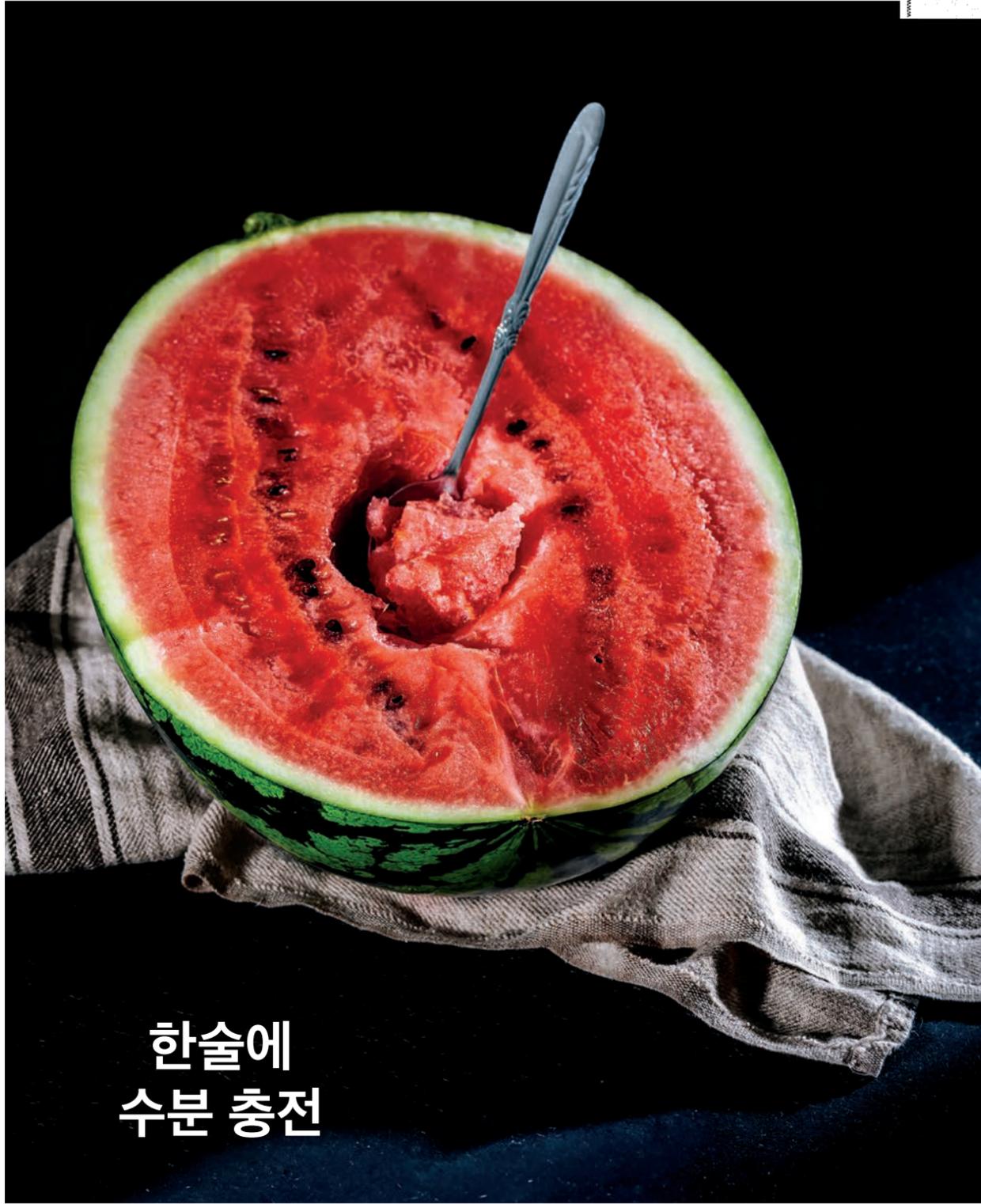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체력 저하를 느끼는 사람이 늘고 있다. 평소엔 건강에 큰 문제를 느끼지 않다가도 여름철이면 나이를 제감한다는 장년층도 많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무더위에 더 취약해진다. 이는 체온 조절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 장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땀샘 기능과 혈관 수축·확장 반응이 느려 심박수와 혈류량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쉽게 노출된다.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신체가 체온 상승에 즉각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여기에 근육량이 많이 줄어든 경우 체력이 더 빠르게 소진된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매년 잘 버텨 온 것 같은데 올해 유독 여름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 볼 만하다. 항노화 및 줄기세포 치료 전문가인 조찬호 청담셀의원 대표원장은 폭염을 이기는 보다 적극적인 건강법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제안한다. 무더위를 이겨 내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초 체력이다. 기초 체력이 저하되면 쉽게 피로해지고, 근육량이 감소하며, 체내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는다.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해 주로 신경 쓰는 부분은 식습관이다. 비타민 등 항산화제와 제철 보양식을 먹는 것이다.

먹는 보충제와 함께 이제는 '직접 주입' 시대

최근에는 '먹는 항노화'에서 '주입하는 항노화'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음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몸에 주입해 젊은 체력을 깨우는 줄기세포에 대한 이야기다. 자신에게서 얻은 줄기세포를 정맥으로 전신에 주입하는 항노화 치

료가 바로 줄기세포 치료다. 줄기세포는 다양한 조직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미(未)분화 세포로, 난치병 개선부터 항노화 치료에 이르기까지 두루 활용된다.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것은 단순한 항노화 보충이 아니라, 손상된 세포 주변에서 재생과 회복을 유도하는 능동적 치료 수단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이 조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새로운 혈관 생성을 유도한다"라며 "이를 통해 신체의 자연 회복력을 높이고 세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내에 주입된 줄기세포는 약해진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고, 생성된 신생 혈관은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라며 "이를 통해 단백질 합성 효과가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기초 체력이 증진한다. 그야말로 무더위를 이겨 내던 젊은 시절의 체력이 돌아오는 셈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때 줄기세포 속 SDF-1α, PDGF, TGF-β, VEGF 등의 성장인자와 항산화 성분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에도 기여한다. 또한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역할도 돕는다. 줄기세포 주사와 함께 평소 챙겨 먹던 항노화제도 의사와 상담해 복용하는 것이 좋다. 줄기세포로 젊게 되돌린 체력을 항노화제 섭취로 오래 이어 가는 식이다. 조 원장은 이와 함께 근력운동을 생활화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근감소증이 빨라지는데, 이는 체력을 더 빠르게 소진시키는 원인"이라며 "평소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조찬호 대표원장은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다. 하버드 대학교 브리검 여성병원에서 항노화 분야를 공부했다. 현재 대한 줄기세포치료학회 부회장으로 활발한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

제작 지원 청담셀의원



한술에 수분 충전

폭폭 찌는 한여름, 갈증 해소는 물론 열을 내리는데 수박만 한 게 없다. '물 많은 박'을 뜻하는 수박은 찬 성질이 있어 먹으면 금방 온몸에 냉기가 돈다. 그중에서도 지난해 지리적 표시제 제116호로 등재된 고창수박은 아삭거리는 식감이 살아 있고 과즙이 풍부하다. 고창수박이 맛 좋은 이유는 이 지역이 서해바다의 청정 해풍과 풍부한 일조량, 비옥한 토양 등 수박 생육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덕분이다. 매년 6월 전북 고창에서는 복분자와 함께 수박 축제가 열린다.

빛으로 완성하는 정밀 백내장 수술 힐링안과, 차세대 인공 수정체 'LAL' 도입

힐링안과는 국내 병원 중 단 네 곳만 갖춘 LDD 장비로 백내장 수술 후 환자의 시력을 정밀 조정한다.



다"라며 "그에 반해 LAL 렌즈는 수술 후에도 잔여 굴절 오차를 0.25 디옵터 단위로 미세 조정할 수 있어 기존 수술의 근본적인 한계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한다.

시력 교정 수술 경험자, 특히 난시 환자에게 효과적

LAL이 더욱 혁신적인 것은 과거에 라식·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을 받았거나 고도 근시·난시 환자 또는 눈 외상이나 구조적 변형이 있는 환자들에게 매우 유용하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기존 인공 수정체는 정확한 도수 조절이 어려운데, LAL은 수술 후 희망하는 시력에 맞춰 정밀 조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알렉스사이트의 자료에 따르면 기존 백내장 수술은 수술 6개월 후 목표 도수 도달률이 약 70~80퍼센트인 반면, LAL은 92~98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난시 교정 시에는 기존 토크 렌즈보다 3배 이상 정확한 결과를 보여 준다. 수술 후 해상도 조절이 가능한 것도 LAL의 장점이다. 기존 다초점 렌즈가 원거리, 중간 거리, 근거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면, LAL은 각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 거리별 선명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힐링안과는 윈스톰 백내장 수술 시스템을 구축해 내원 당일 검사부터 수술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다. 다만 LAL 수술 후에는 2~3주간 자외선 차단 안경 착용이 필수다. 렌즈 내부 물질이 안정화되기 전에 자외선에 노출되면 의도하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힐링안과에서는 이 기간 동안 환자별 맞춤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수술을 성공하기 위해 검사 단계부터 차별화된 시스템을 운영한다. 시력검사 오차 0.25디옵터 차이만으로도 수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검안사가 시력검사를 담당하고, 수술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료로 재수술을 해 주는 평생 A/S 보장 제도도 힐링안과만의 장점이자 자부심이다. 김 원장은 "LAL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수준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전문 의료진 교육과 환자 맞춤 상담 시스템을 강화해 프리미엄 백내장 수술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힐링안과 김선영 대표원장은 18년 경력의 안과 전문의로 가톨릭대학교에서 각막·백내장 분야 임상 교수로 재직한다. 2만 3000건 이상의 백내장 수술과 6000건 이상의 라식·라섹·스마일 수술을 집도한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현재 유튜브 채널 '안과인니'를 통해 5만여 명의 구독자에게는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전하고 있다.

수술 후 시력도 빛으로 조정, LAL 기술의 혁신

눈의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져 마치 안개 낀 유리창 너머로 세상을 보는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백내장은 다행히 수술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질환이다. 하지만 수술 후 시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간혹 렌즈 교체나 레이저 추가 시술까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기도 한다.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

힐링안과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최첨단 노안·백내장 교정 기술 LAL(Light Adjustable Lens™)과 전용 자외선 조사 장비 LDD(Light Delivery Device)를 도입했다. LAL은 미국 의료 기기 기업 알렉스사이트(RxSight)가 개발한 세계 유일의 광 조절 인공 수정체다. 백내장 수술 후 LDD를 활용해 렌즈 내부에 빛을 조사할 경우 렌즈 안의 빛 반응 물질이 광중합 반응을 일으켜 렌즈 굴절력을 조정한다. 수술 2~3주 후 시력이 안정되면 환자가 실제 생활하면서 느끼는 시야 상태를 바탕으로 시력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데 중간 거리가 좀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거나 '운전할 때 야간 시야를 더 개선하고 싶다'는 요구 사항을 수술 후에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LDD 장비는 현재 힐링안과를 포함해 국내 병원 중 단 네 곳만 보유하고 있다. 김선영 대표원장은 "기존 백내장 수술은 아무리 정밀하게 인공 수정체를 선택하더라도 수술 결과에 개인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

제작 지원 힐링안과

강릉 바다위에 완성한 예술, 〈해변의 건축가〉

오는 9월 강원도 강릉에서 공연과 대중을 잇는
2025 강릉국제공연예술페스티벌이 열린다. 축제의 포문을 여는
오페라연극 〈해변의 건축가〉를 강릉아트센터에서 첫 무대로 선보인다.



1 연출진 및 출연진.
2 극본과 연출을 맡은 이주아 예술감독.
3 리허설 중인 배우들.

창작 오페라연극 〈해변의 건축가〉는 강릉 바다 위에서 매일 사라지는 기둥을 세우는 한 남자가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세계로 빨려 들어가며 겪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연극, 오페라, 전통 공연을 넘나들며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여 온 이주아 예술감독이 연출을 맡아 강릉 지역의 역사와 자연, 미래 비전을 예술적으로 펼쳐 낸다. 작품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바다의 모습은 강릉의 과거와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지난해 7개월간 강릉살이를 한 감독은 크고 작은 강릉 축제를 방문하며 경험한 지역의 정체성을 작품에 녹여 냈다.

〈해변의 건축가〉의 매력은 오페라연극이라는 독특한 장르에서 드러난다. 가수 한 명과 배우 한 명이 '하나의 배역'을 함께 표현하는 장르인 오페라연극은 1인극, 2인극 같은 기존 극예술과 차별화된다. 한편의 공연에서 연극과 오페라를 모두 감상하는 셈이다. 웅장한 오페라연극의 형식에 맞춘 화려한 캐스팅도 눈여겨볼 만하다.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소프라노 김신혜, 테너 민현기, 바리톤 이승왕 등의 성악가와 서지유·배우진 등의 배우, 차진엽 안무 및 무용가, 이아람 대금 연주자 등이 참여해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다. 작품의 몰입감을 끌어올리는 강릉시립교향악단의 연주와 강릉시립합창단의 합창도 빼놓을 수 없다. 강릉 지역의 정체성을 깊이 있게 탐구한 결과물이자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어우러지는 독특한 무대 〈해변의 건축가〉가 궁금하다면 오는 9월 강릉아트센터로 향하자.



오페라연극 〈해변의 건축가〉

기간 9월 6~7일
장소 강원도 강릉아트센터
문의 www.festivalgn.com

제작 강원문화재단

오페라연극

해변의 건축가

ARCHITECT OF THE SHORE

2025. 9. 6. SAT ~ 7. SUN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

한 시절이 차오른다

부드럽고 나긋한 건 이 계절의 천성이 아니다.
숨막히게 차오르는 한 시절의 풍경.

여름은 가차 없이 쳐들어와 우듬지에 바늘을 꽂는다
뽕죽하게 깨어나는 한낮의 고요
2024년 7월, 전남 순천 조계산 자락

숲을 걸을 땀 알지 못한다. 골짜기를 질주하는 빛의 활강.
바다의 시간을 기억하는 산들의 중첩.
2022년 7월, 경남 산청 지리산 천왕봉

장맛비가 힘차게 쏟아져 내려야 계곡은 푸르게 피어오른다.
물에 차이고 바람에 깎이며 바위는 파랗게 살이 오른다.

2023년 8월, 강원도 평창 장전계곡

FESTIVAL



제5회 장생포 호러 페스티벌

울산 08.22~24

무더위를 물리칠 공포 체험을 원한다면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로 향하자. 마을 곳곳에 숨은 귀신과 좀비를 피해 짜릿한 술래잡기를 하는 동안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지루할 틈 없이 하루가 저물어 간다. 페이스 페인팅 형태의 호러 분장을 받은 뒤 의상까지 갖춰 입으면 없던 용기도 생긴다. 귀신 역할을 실감나게 연기한 배우들과 나란히 서서 평생 기억에 남을 오싹한 사진도 남겨야겠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호러 마술쇼, EDM 공연, 토요 불꽃쇼 등이 이어져 축제의 흥을 더한다.

장소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
문의 052-226-3403



2025 월영야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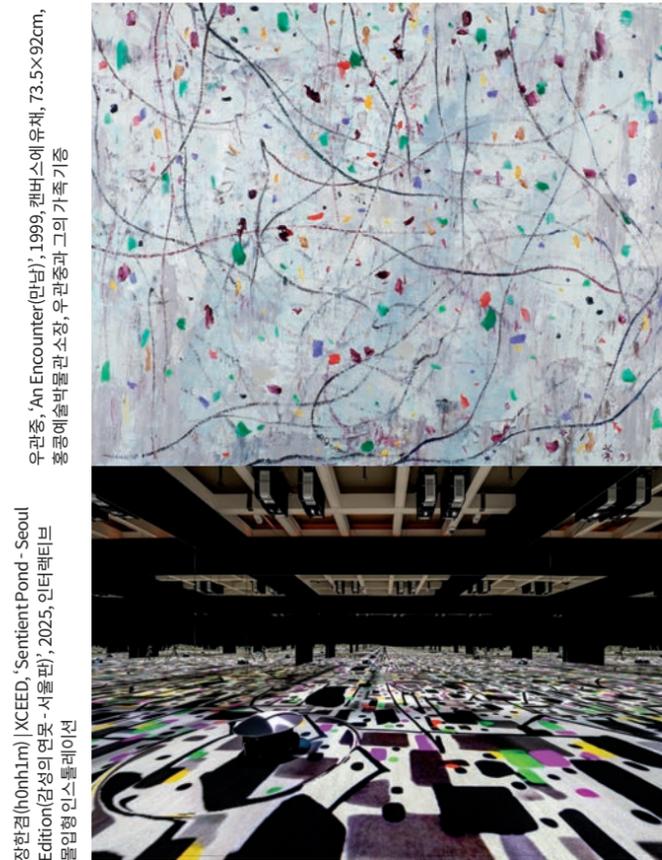
안동 08.01~10

은은한 달빛 아래 야경 명소로 유명한 387미터 길이의 월영교를 걷는 문화 행사다. 다리 곳곳에 놓인 조명이 산책자를 안내하고, 중간에 위치한 월영정은 좋은 쉼터가 되어 준다. 하회별신굿탈놀이, 놋다리밧기 등 안동의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전통 놀이를 구경할 수 있고, 월영주막과 월영장터는 출출한 배를 채우거나 마음에 드는 수공예품을 고르는 사람들로 북적여 활기가 넘친다. 토코쇼와 인형극 등에서 지역에 얽힌 갖가지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유익하다.

장소 경북 안동 월영교 일원
문의 054-840-3441



EXHIBITION



우관중, 'An Encounter(만남)', 1999, 캔버스에 유채, 73.5x92cm, 홍콩예술박물관 소장, 우관중과 그의 가족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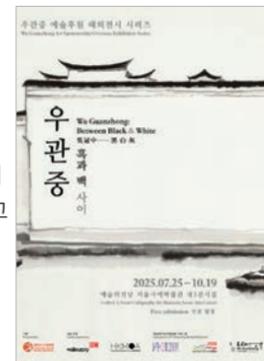
장한겸(h0nh1m) | XCEED, 'SentientPond - Seoul Edition(감성의 연못-서울판)', 2025, 인터랙티브 몰입형 인스톨레이션

〈우관중: 흑과 백 사이〉

서울 07.25~10.19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예술 축제 홍콩위크가 5회를 맞아 서울에서 열린다. 본행사 사진 프로그램으로 중국 화가 우관중의 전시를 한국 최초로 단독 개최한다. '두 마리 제비(Two Swallows)' '강남 회상(Reminiscences of Jiangnan)' '수로(Waterway)' 등 대표작을 포함해 홍콩예술박물관 소장품인 수묵화와 유화 17점을 선보인다. 홍콩 예술가 장한겸이 그의 창작 팀 XCEED와 함께 작가의 작품을 인공지능에 학습시키고 분석해 만들어 낸 인터랙티브 몰입형 설치미술도 공개한다.

장소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문의 1668-1352



SHOW



〈온더비트〉

서울 08.19~10.12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소년 아드리안은 일상 속 리듬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간다. 섬세한 연기와 강렬한 드럼 연주로 초연과 앙코르 공연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 강기동, 윤나무가 다시 무대에 오른다. 영화 <장손>과 연극 <사운드 인사운드> 등에 출연하며 주목받은 배우 강승호도 새롭게 참여해 관객의 기대를 모은다. 프랑스 배우이자 연출가인 세드리크 샤피어가 쓰고 연기한 일인극을 원작으로 한 공연이다.

장소 서울 동국대학교 이혜랑예술극장
문의 070-4190-1289



© 프로젝트그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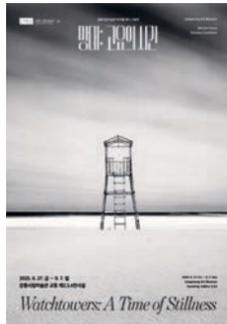
EXHIBITION

〈여름이 깃든 자리〉

서울 07.03~09.16

옛 선조의 지혜가 담긴 한국의 여름 문화를 소개한다. 자연에 둘러싸여 친목을 도모하고 예술에 대한 조예를 키웠던 계획 장면에서 영감을 얻었다. 한창균의 대나무 찻상, 허성자의 완초 함, 이종국의 부채 등 이 계절이 떠오르는 소재로 만든 공예품을 모았다.

장소 서울 신세계 본점 더 헤리티지 문의 02-310-5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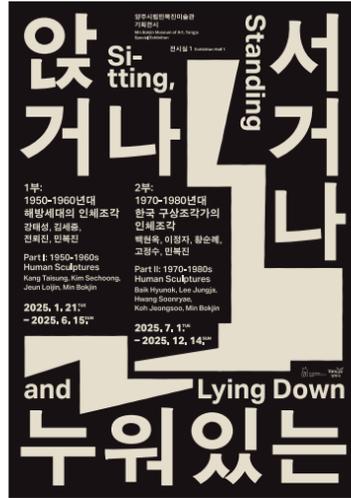
EXHIBITION

〈망대: 고요의 시간〉

강릉 06.27~09.07

마이클 케나는 필름 카메라를 이용해 장시간 노출로 사진을 찍는 등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2005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해안가를 촬영한 '망대' 연작 일부를 공개한다. 강원도 등지의 망대와 바닷가를 흑백으로 담은 작품이 낯설게 다가온다.

장소 강원도 강릉시립미술관 교동 문의 033-640-4271



EXHIBITION

〈앉거나 서거나 누워 있는〉

양주 07.01~12.14

1970~1980년대에 이르러 자신만의 조형 세계를 확립한 구상 조각가 네 명의 인체 조각을 민복진의 작품과 함께 살펴본다. 모자상과 가족상에 천착했던 민복진의 '모자', 추상 조각에 몰두했던 백현옥이 작업 방향을 바꾼 결정적 계기가 된 '신천지', 두 손을 모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는 여인의 고운 선이 돋보이는 이정자의 '순애', 나무 같은 자연 친화적 소재를 주로 사용하는 황순례의 '거대인간', 대부분의 작품과 달리 차분하고 정적인 고정수의 여인상 '좌상' 등을 한자리에서 만난다. 장소 경기도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 문의 031-8082-4255



FESTIVAL

2025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전국 08.08~11.16

한국의 소중한 국가유산이 8개 지역에서 미디어아트로 새롭게 태어난다. 8월에는 구 군산세관 본관을 중심으로 개항부터 산업화까지 군산의 근대 역사를 조명하고, 진주성 외벽을 물들이는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로 진주의 애국 정신을 되짚는다.

장소 전북 구 군산세관 본관, 경남 진주성 등 문의 02-2270-1277



SHOW

〈그린국악〉

무안 07.05~09.27

전남도립국악단이 토요가무악회 <그린국악> 시즌 3로 돌아왔다. '국악의 내일을 그리다'를 주제로 전개되는 공연에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 제작한 칸타타 <백범 김구>를 8월 2일과 16일에 상연한다. 한국 전통 음악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국악단도 프로그램 곳곳에서 모습을 비춘다.

장소 전남 무안 남도소리울림터 문의 061-981-6923



생명의 숨결이 깃든 한라산둘레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한라산둘레길은 머무르기만 해도 신선놀음하는 기분이 든다.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야생화, 오름, 희귀 조류 등 발견의 기쁨을 누릴 때다.



© 국립수목원, 공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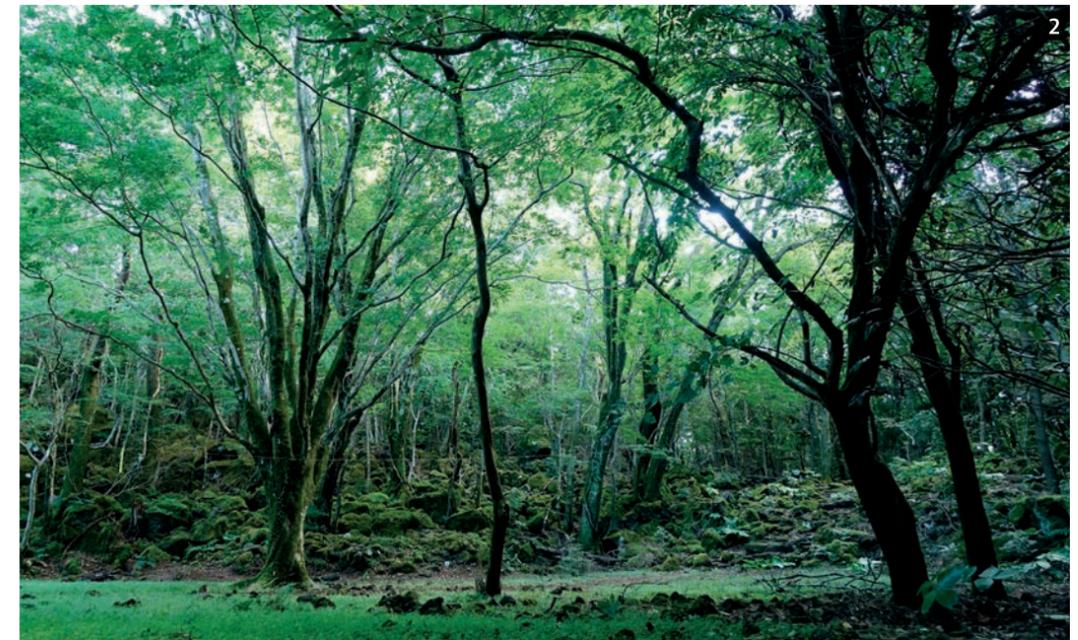
좁비비추(Hostaminor)
한국 중부 이남에 분포하며, 산지의 숲속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뿌리 주변에서 넓은 난형의 잎이 모여나는 것이 특징으로, 7~8월 무렵 연한 자주색 또는 드물게 흰색 꽃이 핀다.



© 국가유산청

숲길 탐방객들의 버킷 리스트 중 하나인 한라산둘레길은 해발 600~800미터의 한라산을 둘러싼 숲길이다. 1구간 천아숲길부터 9구간 솫모르편백숲길까지 총 9개 구간으로 약 80킬로미터에 달한다. 이 중 하이라이트는 가장 긴 코스의 5구간 수악길. 돈내코탐방로에서 이승악 입구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울창한 활엽수림과 시원한 계곡을 품은 고요한 숲길이다.

수악길 초입에 들어서면 푸른 이끼로 뒤덮인 현무암과 나무가 이루는 독특한 절경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물오름, 보리오름, 이승이오름 등 다종다양한 오름과 한라산의 활발했던 화산활동을 엿볼 수 있는 산정화구호는 신비를 더한다. 멸종 위기 야생 조류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팔색조는 매년 6~8월에 번식을 위해 수악계곡 주변으로 날아들어 8월은 희귀 새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수악길은 역사·문화적으로도 의미 있는 장소다. 일제강점기의 잔재인 지하갱도진지와 제주인의 생활 문화상을 보여주는 숲가마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생생한 역사를 대변한다. 길이 끝나는 지점엔 부지런히 걸은 자의 허기를 채울 든든한 밥상이 기다린다. 향긋하고 쌉싸름한 향이 나는 제주산 햇고사리와 이를 활용한 향토 음식인 제주 고사리 육개장은 제주에서 맛볼 수 있는 별미다. 이 외에도 7구간 사려니숲길, 8구간 절물조릿대길 등 8월에 걷는 한라산둘레길은 평상시에 보기 어려운 오름과 생명체를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작 지원 한국농수산·트레킹지원센터

1 화려한 여덟 가지 색의 깃털을 가진 희귀 조류 팔색조
2 한라산둘레길 중 가장 긴 코스의 5구간 수악길.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물론 다양한 생명체를 볼 수 있다.

한여름의 하모니, 울산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부터 삼호동 철새마을까지 고래와 철새의 소리를 쫓아
걸음을 옮긴다. 자연의 아름다운 선율이 온몸을 감싼다.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울산역까지
2시간 20분 정도 걸린다.

제작 지원 울산남구청

신비로운 고래의 세계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현존하는 가장 거대한 생명체에 한 걸음 다가간다.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온 울산 남구와 고래의 관계를 되짚고, 옛 장생포를 재현한 마을을 둘러본다.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가수

“쉽게 볼 수 없어 잘 알지 못하고, 좀처럼 만날 수 없어 신비롭습니다.” 전 세계를 돌며 고래를 촬영하는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고래와 나>는 배우 한지민과 박해수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분수공으로 힘찬 물줄기를 뿜어내고, 가슴지느러미를 내리쳐 수면에 큰 파동을 일으키는 화려한 동작이 이어지자, 영상 속 고래에 대한 호기심이 점차 부풀어 오른다. 화면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고래 박물관이 있는 울산 남구 장생포로 향했다.

‘길고 거대한 크기의 생명체가 사는 포구’라는 뜻의 장생포는 오랜 시간 고래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선사시대부터 고래가 서식하던 해역인 데다 상업 포경이 금지되기 전까지 고래잡이가 지역민의 생계 수단이었다. 1899년 러시아가 울산 장생포에 포경 전진 기지를 세우고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며 고래잡이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등 타국이 장생포를 점령하던 때가 있었지만, 해방 이후 조선포경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한국도 본격적으로 고래를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포획으로 개체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일부 고래는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자 국제포경위원회가 1986년 상업 포경을 전면 금지했다.

울산 남구는 사라져 가는 고래 유물과 관련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2005년 장생포 고래박물관을 건립했다. 3년 뒤 장생포 일대가 전국에서 하나뿐인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되면서 테마파크 같은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박물관 1층에 전시된 포경선 진양5호는 개관 당시 기증받은 것으로, 배 길이가 약 30미터다.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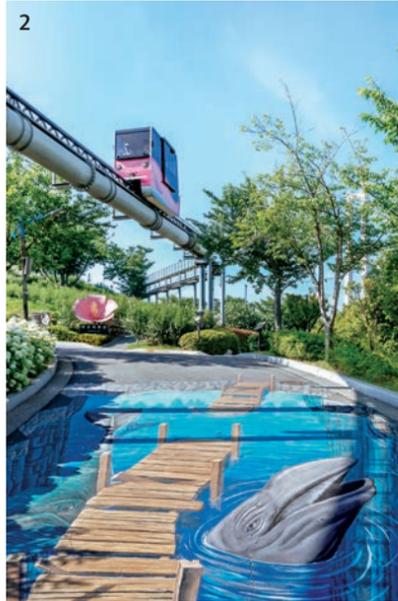


에서 가장 큰 동물인 대왕고래는 최대 33미터에 달한다. 배보다 큰 고래라니, 상상만으로도 장엄함이 느껴진다. 3층에 들어서자 고래 울음소리가 공간을 에워싸면서 <고래와 나>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 불현듯 떠오른다. 혹등고래는 지구에 사는 동물 중 가장 넓은 음역의 소리를 내고, 평균 20분 정도 낮게 흐느끼듯이 또는 높게 울부짖듯이 노래를 부른다. 이에 주목한 미국 생물학자 로저 페인 박사는 1970년 혹등고래의 노래를 녹음해 <Songs of the Humpback Whale>이라는 앨범을 정식 발매했다. 다섯 곡이 수록된 음반은 발매 당시 전 세계적으로 10만 장 이상 판매되었을 뿐 아니라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보이저호에 실려 우주까지 진출했다. "사람들은 고래가 가수이자 시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가수이자 시인의 노래가 우리의 바다를 통해 울려 퍼지고 있어요." 고래 연구가 이언 커 박사는 이 사건이 무자비한 포경 산업을 반대하는 고래 보호 운동의 시작이었다는 점도 강조한다.

박물관을 나서기 전 개관 20주년을 맞아 기획한 <신출귀몰 고래>전에서 이 신비로운 동물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 체감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등 여러 속담에 고래가 언급되고, <피노키오>를 포함한 각종 동화 속 주인공이 고래 뱃속에서 탈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가 많다. 항상 웃고 있는 듯한 표정의 돌고래는 캐릭터나 인형으로 재탄생해 아이들에게 친근하고 귀여운 동물로 각인됐다. 건물 바로 옆에는 탐사를 목적으로 한 고래바다여행선의 선착장이 자리한다. 이야기 속 존재를 현실에서도 만나길 원하는 이들을 위해 매주 장생포항에서 출발하는 배가 고래의 이동 동선을 따라 울산 연안을 운항하고 있다. 매년 고래가 발견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징어가 주식인 참돔고래는 수온이 높아져 먹잇감이 풍부한 여름에 볼 확률이 비교적 높다. 지난해 8월에는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는 2000여 마리의 참돔고래 떼가 포착돼 승선객의 탄성을 자아냈다. 베일에 싸인 생명체를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게 아니라, 고래가 사람을 춤추게 한다는 말이 더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다.

1 장생포의 마지막 포경선 진양6호를 박물관 앞 광장에 전시했다. 2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신출귀몰 고래>는 고래의 생물학적 특징뿐 아니라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함께 조명한다. 3 온몸에 따개비가 붙어 있는 귀신고래 실물 모형.





1,5 장생포 옛마을은 세월이 묻어나는 건물부터 학창 시절의 추억을 소환하는 장소까지 문화적 요소가 다양하다. 2 웨일즈 판타지움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만난 트릭아트. 3, 4 마을 곳곳에 옛 교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보인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열풍으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등 한국의 놀이 문화가 주목받았고, 이를 체험하기 위해 울산 남구를 찾는 방문객이 늘었다.



장생포의 시간을 들여다보다

고래와 한 뼘 친해진 마음이 드니 이젠 본격적으로 고래문화특구를 구경할 차례다. 박물관에서 출발하는 모노레일은 고래문화특구를 한 바퀴 천천히 돌아 1960~1970년대 장생포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 어촌의 모습을 재현한 장생포 옛마을 입구에 도착한다. 장생포국민학교, 동광서림 같은 세월이 묻어나는 건물부터 교복 대여점, 달고나 만들기, 고무줄놀이 등 학창 시절의 추억을 소환하는 문화적 요소가 거리에 즐비하다. 고고장 간판 아래 적힌 '미성년자(1955년 이후 출생자) 출입 금지'라는 안내 문구에는 피식 웃음이 난다. 영화 <써니>를 연상시키는 복고풍 음악이 크게 흘러나오고, 옛 교복을 입고 공중전화 부스를 들락거리는 두 소녀의 활기찬 모습에 멈춰선 장생포의 시간이 다시 흐르는 듯하다.

장생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래가 마을 곳곳에서 쉽게 발견된다. 바다에 대형 고래가 그려진 고래광장을 지나 고래조각정원에 다다르면 여섯 종의 고래조형물이 나타난다. 고래 중에서도 가장 큰 대왕고래, 네모난 머리가 몸길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향고래, 이뿔처럼 등에 혹 같은 돌기가 난 혹등고래, 가슴지느러미 중앙에 흰 띠무늬가 있는 밍크고래, 표면에 따개비가 붙은 귀신고래, 검은색 몸통에 눈가엔 하얀 반점을 지닌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까지. 온종일 고래에만 몰두하다 보니 저마다 다른 생김새가 구별된다.

선사시대고래마당에 설치한 반구대 암각화를 실물 크기로 본뜬 조각도 눈에 띈다. 국보로 지정된 반구대 암각화 속 고래는 선사시대부터 장생포 일대가 포경의 발상지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다. 실제 유적은 가까이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구경하도록 야외 공간에 학습용 모형을 세워 두었다. 언덕을 올라 웨일즈 판타지움으로 가면 바위에 새겨진 고래가 살아 움직이는 몰입형 인터랙티브 미디어 전시를 볼 수 있다. 다섯 개의 전시 중 <염원의 길> 파트에 들어서면 환한

보름달이 뜬 밤에 절벽 아래로 폭포가 떨어지는 영상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디딤돌 위에서 고래, 사슴, 호랑이와 눈을 맞추고 두 팔을 벌린 채 크게 돌려 인사를 건네니 동물들이 각자 방식대로 맞장구를 친다. 기술의 힘을 빌려 짧은 교감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향할 곳은 노을 명소라 불리는 장생포 문화창고다. 과거 냉동 창고였던 이 건물은 2021년 울산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간단히 배를 채울 푸드 코트부터 미디어아트 전시관, 소극장, 북카페 등이 입주해 있다. 별빛마당이라 부르는 옥상에 들어서자 어두운 밤하늘을 수놓은 석유화학단지의 수많은 공장 불빛이 절경을 이룬다. 황홀한 야경을 닮고 바라보는 동안 울산 남구에서의 첫째 날이 저물어간다.



1



+

장생옛길

1940년 초 포장도로가 나기 전에 장생포 주민들이 장생포와 읍내를 왕래하던 길이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듀엣곡 'APT.'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동명의 노래로 함께 주목받은 윤수일의 생가가 이곳에 있다. 집터에 그의 청년 시절 모습을 담은 동상을 세우고, 아파트 외벽을 LP 앨범 표지로 꾸며 장생포에서 나고 자란 가수 윤수일을 기린다. 울산 남구에서 만나는 또 다른 목소리다.



2

1 노을 명소로 유명한 장생포 문화창고 옥상에 올라서면 장생포항이 한눈에 들어온다. 2 모노레일은 장생포 고래박물관에서 출발해 고래문화특구를 한 바퀴 천천히 돈다. 3 선사시대 고래마당에는 반구대 암각화를 형상화한 조각이 있다. 4 웨일즈 판타지움에서는 바위에 그려진 고래가 살아 움직이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를 볼 수 있다.



고래빵 연구소

울산제과협회에서 운영하는 빵집이다. 울산 특산물인 미역을 잘라 넣고 유자청으로 맛을 낸 마들렌은 담백하고 상큼해 자꾸만 손이 간다. 새끼를 낳은 고래가 산후조리를 위해 미역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면 빵에 들어간 재료가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이외에도 고래 모양 치즈케이크빵, 밤양갱, 버터쿠키등을 판매한다.



고래가 일상 속으로 풍덩

장생포 옛 마을을 떠나기 전, 고래와의 추억을 간직할 네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느린 우체통

매표소에서 엽서를 받아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보낸다. 여행에 대한 감상은 시간이 흘러 흐릿해지겠지만,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에서 인상적이었던 순간을 기록해 몇 개월 뒤에 확인하면 색다르게 느껴질 테다. 일반 우체통에 들어간 엽서는 매달 초 발송되고, 올해 하반기에 느린 우체통에 넣은 엽서는 내년 1월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스탬프 투어 & 장생이 인형 키링

오프라인 스탬프 투어에 참여한 사람 중 매달 선착순 100명에게 귀신고래를 형상화한 캐릭터 장생이 인형 키링을 선물한다. 장생포 내 체험장소 여덟 곳을 모두 방문해 스탬프를 찍은 뒤, 장생포 관광 안내소에서 기념품을 수령한다. 세 캐릭터 중 야기 고래 생일은 귀신고래가 울산 장생포 앞바다에서 다시 뛰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고래의 날인 4월 15일로 정했다.



고래고래국수

인공 첨가물 없이 해조류와 채소를 넣어 건강하게 국수를 만든다. 여러 겹으로 압착해 단단한 결이 생기고, 오염된 공기를 피해 암실에서 발효하는 게 특징이다. 부추, 비트, 강황 등 천연 재료를 활용해 영양도 살뜰히 챙긴다. 국수 공장이 고래문화마을에 위치하고, 음식이 맛있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는 의미에서 고래고래국수라고 이름 붙였다.

하늘을 나는 계절의 안내자

삼호동 철새마을에서 날아다니는 생명체를 보고
생생한 소리를 듣는다. 철새홍보관에서
태화강 국가정원의 탄생 배경을 알아본 뒤,
삼호대숲에 모여 있는 백로 떼와 조우했다.

삼호대숲을 찾는 철새

단잠에서 깨어난 후 꺾기를 파고드는 새들의 합창 소리와 함께 아침을 맞는다. 끝내지 못한 업무로 밤을 꼬박 새웠을 때는 그 소리가 반갑지 않은 불청객 같았는데, 오늘은 다르다. 둘째 날의 여행 테마를 철새로 정했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로 계절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봄과 가을은 점차 짧아지다 보니 '제철'이라는 키워드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 언제까지 누릴지 모를 이 계절을 잘 보내기 위해 여름 제철 과일인 수박, 참외 등을 꼭 챙겨 먹거나 활짝 핀 수국과 해바라기를 보러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향한다. 해마다 번식지와 월동지를 왕복하는 철새 또한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려 주는 반갑고 소중한 존재다. 국내 2호 국가 정원인 태화강 국가정원의 삼호지구에 위치한 태화강 철새공원(삼호대숲)에서 수백 마리의 백로류를 관측할 수 있다는 소식은 이번 여름을 특별하게 만들어보자는 다짐을 더욱 굳히게 했다.

삼호대숲 근처에 자리한 철새홍보관은 새가 궁금한 사람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준다. 철새홍보관은 도심 속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생태 교육과 탐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설로,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해인 2019년 문을 열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건축물 기능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한 건물로, 국내 공공 건축물 최초로 제로 에너지 1등급을 받았다. 입구에 들어서면 삼호대숲에 설치한 관찰 카메라

에 담긴 새들의 실시간 모습이 스크린 위에 나타난다. 태화강 중류에 위치한 삼호대숲에는 여름 철새 백로류와 겨울 철새 까마귀류가 번갈아 찾아온다. 삼호대숲 옆을 흐르는 태화강의 하천 폭이 넓고 자갈밭, 갈대밭 등에 다양한 미생물과 각종 어류가 서식해 새들의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온화한 기후 덕에 오래 머무르기도 좋다. 과거 경제 성장과 도시화로 울산의 환경오염이 심각했던 시기, 철새들은 한때 이곳을 떠났다. 그러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태화강 생태 복원 사업을 통해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로 거듭나며 하천의 수질도, 자취를 감췄던 새들도 다시 돌아왔다.



1 철새홍보관 전망대에서 숲을 배경 삼아 날아다니는 백로류를 관찰할 수 있다.
2 2019년에 문을 연 철새홍보관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3 작은 새가 쉬어 가라고 마련한 다채로운 빛깔의 새집.
4 여름 철새가 동지를 틀고 번식하는 삼호대숲 뒤쪽에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폭넓어선 모습이 재미있다.

새들의 위대한 여정

삼호대숲에서 관측되는 여름 철새는 왜가리, 중대백로, 중백로, 쇠백로, 황로, 해오라기, 흰날개해오라기 등 총 7종이다. 매년 3월에 돌아와 대나무 숲에 둥지를 틀고 무리를 지어 번식하는데, 크기에 따라 둥지를 짓는 위치가 다르다. 왜가리처럼 몸집이 큰 새는 높은 곳에, 쇠백로와 황로 같은 비교적 작은 새는 그보다 낮은 곳에 자리를 잡는다. 10월이 되면 백로류가 동남아시아로 떠나고, 추운 나라에서 출발한 떼까마귀와 갈까마귀가 대숲을 차지한다.

5D 영상관에서 상영하는 8분짜리 애니메이션 <위대한 여정>은 시베리아에서 울산으로 날아오는 떼까마귀의 험난한 여정을 그린다. 떼까마귀는 혼자 있으면 표적이 되기 쉬워 떼로 몰려다니고, 함께 소리를 내 적을 위협한다. 겨울에 포착되는 떼까마귀 군무는 사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 전략인 것이다. 5D 안경을 쓰고 새의 시선으로 바람을 가로지르며 비행하다가 맹금류에게 아슬아슬하게 쫓기는 순간, “대형을 만들어!”라는 외침을 들은 눈앞의 떼까마귀 무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삼호대숲에 다다르기까지 새들의 여정은 이처럼 고난스러운 한편 경이롭다.

겨울 철새는 이곳에 없지만 철새홍보관 전망대에 오르면 여름 철새 백로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망원경에 눈을 갖다대고 좌우로 방향을 틀다 보면 숲을 배경 삼아 지나가는 하얀 생명체가 포착된다. 건물 쪽으로 다가오는 새를 따라 부지런히 고개를 움직이는 동안 미소가 절로 지어진다. 아직 만족하긴 이르다며 아침 일





찍 삼호대숲 근처에 가 보라는 해설사의 조언에 다음 날 다시 공원을 찾았다. 오전 5시 반, 해가 뜨기 한참 전인데도 이미 새들은 분주하다. 맞은편의 하얀 점 같은 개체만 세어 봐도 100마리가 훌쩍 넘는다. 날이 밝을 수록 먹이를 구하기 위한 새의 움직임도 활발해진다. 태화강 위 수풀에 원을 그리며 착지하는 우아한 몸짓은 시선을 오래오래 붙들어 놓는다.

거친 울음소리를 자세히 듣기 위해 이동하는 사이, 황토 맨발길을 걸으며 정신을 깨우는 할머니와 꽃이 피지 않은 맥문동을 쭈그려 앉아 관찰하는 아이가 스쳐 지나간다. 흰 대나무가 만든 뻥뻥한 그늘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을 맞으며 줄음을 물리쳐 본다. 태화강 국가정원 삼호지구의 아침 풍경을 관찰하는 동안 새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진다. 이번 여름에 오래 간직하고 싶은 생생한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시간이 흘러 세세한 풍경은 잊히더라도 강렬한 햇볕 아래 더 큰 존재감을 뽐내던 하얀 생명체는 기억에 남을 테다.



탐조가를 위한 팁

지난해 문을 연 삼호철새마을 게스트하우스는 근처에 자리한 철새홍보관과 연계해 숙박형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여름·겨울 방학에 방문하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해 해설사와 동행하는 탐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겨울철에는 게스트하우스·철새홍보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떼까마귀 군무를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연다. 삼호대숲과 가깝고 숙박비가 저렴해 인기가 높다.



울산 남구가 전하는 고래 이야기

거대하고 신비로운 생명체, 고래가 궁금한 사람들이 울산 남구로 모여든다.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이 지역 일대를 알차게 여행할 방법을 제안한다.

울해도 장생포 일대가 울산고래축제의 열기로 뜨거울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지 귀뜸해 주세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고래의 선물'을 주제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제29회 울산고래축제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특히 해양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고래와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 가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고래가 뛰어노는 바다가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인터랙티브 전시와 몰입형 체험 등을 마련해 관람객에게 직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축제 기간 내내 다채로운 공연도 이어집니다. 먼저 트로트 가수 박지현·김다현 등이 개막식 무대에 올라 축제의 포문을 열고, 고래 페어이드, 장생포 열린음악회, 뮤지컬 갈라 콘서트 등이 행사의 열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어린이 놀이터, 버블 체험, 범고래 그래피티 같은 어린이 특화 공간도 운영

합니다. 다가오는 9월, 고래가 전하는 특별한 선물을 장생포에서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1960~1970년대 모습을 재현해 놓은 장생포 옛 마을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롭지만,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는 전시를 관람하거나 체험할 공간도 여럿입니다. 그중에서 꼭 들려야 할 곳이 있을까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는 고래와 바다, 사람의 이야기를 더 깊이 체험할 특별한 공간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웨일즈 판타지움과 장생포 문화창고를 소개하고 싶네요. 먼저 웨일즈 판타지움은 몰입형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는 전시관입니다. '심연의 시선' '염원의 길' '고래의 도시' '바다의 기억' '반려고래 오셔나리움' 총 다섯 가지 테마로 구성된 공간에서 고래의 시선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옛 냉동창고를 리모델링한 6층 규모의 복합 문화 공간 장생포 문화창고도 추천합니다. 4층 갤러리C에서 진행되는 울산 남구 대표 캐릭터를 주제로 한 팝업 전시 <장생이와 함께 떠나요>가 8월 24일까지 이어집니다. 캐리어와 여권을 손에 든 관광객 장생이, 비행기에서 인사를 건네는 승무원 장생이 옆에서 포즈를 취하거나 피서지처럼 꾸민 구간에서 여름 휴가를 추억할 사진 한장 남기셔도 좋겠네요.

울산 남구의 밤을 더욱 화려하게 빛낼 방법을 모색하고 계시다고요. 해가 저문 뒤 남구 전역이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합니다.

낮에는 바다의 생동감이 지역 일대에 가득하니, 밤에는 은은한 빛으로 물들이고자 합니다. 장생포 워터프린트에 세운 킹웰리 분수대를 보셨나요? 귀신고래를 형상화한 이 분수대는 고래가 파도 위로 힘차게 솟구치는 모습으로 제작해 남구의 번영과 희망찬 미래를 상징합니다. 밤이 되면 노을, 은하수, 오로라 등 다섯 가지 테마 아래 형형색색의 조명이 빛나고,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 한여름에 특히 잘 어울리죠. 매주 토요일 밤, 장생포 고래박물관 광장에서는 화려한 불꽃 쇼가 펼쳐지는데, 킹웰리 분수대와 함께 어우러져 이색적인 야경을 만들어 냅니다. 8월 중에는 장생포 문화창고 건너편에 있는 SK이노베이션 저유탱크 외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구축하는 장생포 라이트를 공개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지난 6월에는 흐드러지게 핀 수국으로 장생포 일대가 알록달록하게 물들었죠. 이외에도 계절마다 꽃구경하기 좋은 명소를 소개해주세요.

울산 남구는 사계절 산책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봄에는 궁거랑 벚꽃길에 둘러보세요. 만개한 벚꽃 터널을 거닐면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2.5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지는 산책로에는 400여 그루

의 벚나무가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려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장관을 선사합니다. 여름에는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에 조성된 오색수국정원이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41종 3만 본 이상의 수국을 식재해 100만 송이가까운 수국이 마을 전체를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파랑, 보라, 분홍, 하양 등 다채로운 빛깔의 꽃이 골목과 마을 언덕을 따라 피어 있어 발을 내디딜 때마다 감탄이 절로 나오죠. 선암호수공원은 가을과 겨울에 특히 아름답습니다. 약 49만 포기의 꽃무릇이 붉게 피어나 공원 전체를 따스한 가을 빛으로 물들이죠. 꽃무릇이 선사하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바쁜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여 보세요.

여름에 백로류를 만나기 위해 삼호대숲을 방문할 분도 적지 않을 텐데요. 삼호철새마을 게스트하우스가 철새홍보관과 연계해 숙박형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반갑습니다.

여름이면 태화강 삼호대숲은 하얀 새들의 쉼터가 됩니다. 고요히 흔들리는 대숲 사이로 날아오르는 백로류의 모습은 도심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장면이죠. 근처에 자리한 철새홍보관은 태화강의 생태 문화를 깊이 알고 싶은 이들에게 유용한 공간입니다. 철새 교육장, 5D 영상관, VR 체험관, 카페, 전망대 등이 있어 아이와 함께 하는 체험 학습 장소로도 제격입니다. 특히 전망대에서는 철새들이 머무르는 삼호대숲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여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삼호철새마을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분이라면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철새홍보관의 탐조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 해설사와 함께 삼호대숲을 걸으며 철새를 관찰하고 설명을 듣는 유익한 시간이 될 테니 꼭 신청해 보세요. 도심 속에서 자연의 순환과 생명의 움직임을 느끼고 싶다면, 철새가 머무는 삼호대숲과 그 주변을 둘러보는 생태 체험이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1 노을 명소라 불리는 장생포 문화창고는 울산 남구 9경 중 하나다. 2 장생포는 국내 유일의 고래박물관이 있는 데다 전국 최초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된 곳이다.





A Midsummer Harmony: Ulsan Nam-gu

From the Jangsaengpo Whale Culture Zone to the Samho-dong Migratory Bird Village, I follow the sounds of whales and birds, carried along by the harmony of nature. A gentle symphony wraps around my body and soul.

The World's Largest Singer

Jangsaengpo has long been intertwined with whales. This coastal area has been a natural habitat for whales since prehistoric times, and until commercial whaling was banned, whale hunting was a key livelihood for local residents. In 2005, Ulsan Nam-gu established the Jangsaengpo Whale Museum to preserve the fading legacy of whales and the artifacts tied to them. Inside the museum, the haunting calls that echo through the exhibits belong to the humpback whale—a creature known to produce the widest range of sounds of any animal on Earth. In 1970, American biologist Dr. Roger Payne recorded these haunting vocalizations and released them in the now-famous album *Songs of the Humpback Whale*. Before leaving, a visit to the special exhibition *The Elusive Whale* reveals just how deeply whales are embedded in human life. Korean proverbs such as “Praise makes even a whale dance” and “When whales fight, the shrimp’s back gets broken” reflect their symbolic presence. In stories like *Pinocchio*, the whale is a powerful figure that swallows protagonists whole, forcing them to struggle for escape. Dolphins, with their ever-smiling faces, have been reborn as cuddly characters and toys—endearing themselves to children as friendly, lovable creatures.

Address 244, Jangsaengpogorae-ro, Nam-gu, Ulsan (Jangsaengpo Whale Museum)

Looking into the Time of Jangsaengpo

The Jangsaengpo Whale Culture Village recreates the look and feel of this coastal town during its golden years in the 1960s and 70s. Along its nostalgic streets, visitors will find weathered buildings like Jangsaengpo Elementary School and Donggwang Bookstore, as well as cultural elements that stir up school-day memories—uniform rental shops, dalgona candy-making stands, and classic childhood games like rubber band jumping. Whales, inseparable from the history of Jangsaengpo, are also everywhere. At the Whale Sculpture Garden, six different species are represented in life-like forms. There’s the blue whale, the largest of them all; the sperm whale, with a blocky head that makes up a third of its body length; the humpback whale, known for the bumpy nodules on its back; the minke whale, recognizable by the white bands across its flippers; the gray whale, often covered in barnacles; and the orca, with its black body and signature white patches near the eyes. After a full day immersed in the world of whales, the differences in their appearances begin to stand out. At the Prehistoric Whale Square, visitors can view a life-sized replica of the Bangudae Petroglyphs, while the Whales Fantasiu offers an immersive media exhibition where whales carved into rock seem to come to life through interactive digital displays.

Address 271-1, Jangsaengpogorae-ro, Nam-gu, Ulsan (Jangsaengpo Whale Culture Village)





Migratory Birds Return to Samho Bamboo Grove

Located near Taehwagang Migratory Bird Park (Samho Bamboo Grove), the Migratory Bird Center is a helpful resource for anyone visiting Ulsan Nam-gu out of curiosity about birds. Opened in 2019—the same year Taehwagang was designated a National Garden—the center promotes coexistence between humans and wildlife in the city through ecological education and birdwatching programs. On the first floor, visitors can see a sculpture inspired by the cranes of Bangudae Petroglyphs, as well as a screen showing live footage from cameras installed in the Samho Bamboo Grove, capturing birds in real time. Located in the midstream section of the Taehwagang River, Samho Bamboo Grove attracts egrets and herons in the summer and crow species in the winter. The river's wide flow, along with its sandy flats, gravel beds, and reed fields, support an abundance of microorganisms and fish—an ideal feeding ground for migratory birds. The region's mild climate also makes it a suitable place for them to linger. There was a time when pollution, driven by rapid urbanization and economic growth, drove the birds away from Ulsan. But thanks to the Taehwagang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 the area has been revived as one of Korea's largest stopovers for migratory birds. Water quality has improved, and the birds that once disappeared have now returned.

Address 24, Nuljae-ro, Nam-gu, Ulsan (Migratory Bird Center)

The Great Journey of Birds

In Samho Bamboo Grove, seven species of summer migratory birds can be observed: grey herons, great egrets, intermediate egrets, little egrets, cattle egrets, black-crowned night herons, and Chinese pond herons. These birds return each March to nest in the bamboo forest, forming colonies to breed. By October, they depart for Southeast Asia, and in their place come rook and jackdaw species from colder regions. Rooks are especially vulnerable when alone, so they travel in large flocks, using collective movement and loud calls to ward off predators. The spectacular aerial displays seen in winter are, in fact, a survival strategy—a defense mechanism disguised as a beautiful dance. The 5D Theater at the Migratory Bird Center screens an animated film titled *The Great Journey*, which reveals just how grueling and awe-inspiring the birds' migration to Samho Bamboo Grove truly is. While winter birds are absent in warmer seasons, the observation deck at the Migratory Bird Center offers an excellent vantage point to spot summer egrets. Peering through the telescope, you slowly scan left and right, and then—against the backdrop of the forest—you catch sight of a white bird gliding past. As you instinctively follow it with your eyes, you will find yourself turning your head in rhythm and smiling. It's a scene you'll remember all summer.

Address 171, Namsan-ro, Nam-gu, Ulsan (Taehwagang National Garden Samho District)



경북 안동 땅을 타고 흐르는 기나긴 물길, 그 유장한 세월을 따라 걷는다.
더위에 흐느적거리는 몸과 마음을 씻어 내리는 정결한 여정이었다.

물길 따라 흐르는 마음, 안동

제작 지원 안동시청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안동역까지 2시간 20분 정도 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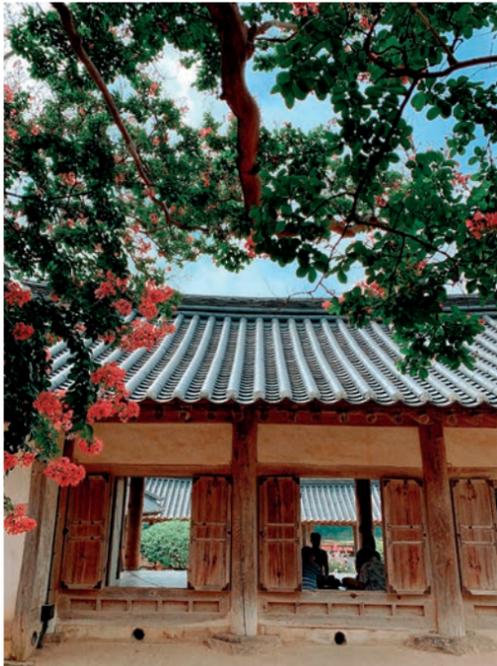
2

1 굽이쳐 흐르는 낙동강, 꽃 같은 하회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2 하회마을 만송정 숲방향에서 마주한 부용대. 양반들은 이곳 강변에서 선유줄불놀이를 즐기곤 했다. 이는 오늘날 상설 공연 형태로 정착했다.

1 물에 뜬 연꽃같이
부용대와 하회마을

붓으로 그린들 이보다 아름다울까. 물에 뜬 연꽃, '연화부수'는 강물이 에워싼 하회마을의 지세를 가리키는 풍수지리적 표현이다. 이 눈부신 풍광이 한눈에 펼쳐지는 전망대가 바로 부용대다. 연꽃 부(芙), 연꽃 용(蓉) 자를 써서 거듭 연꽃의 심상을 불러일으키는 이름이다. 절경은 쉽사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법. 화천서원 뒤편의 숲길을 오르는 동안 한여름의 목직한 열기가 발목을 붙든다. 10분 남짓 등산을 마치고 나면 물기 어린 강바람이 땀을 식히고, 이내 거칠 것 없이 탁 트인 하늘과 물길에 휩싸인 한 떨기 꽃이 두 눈 가득 밀려든다. 하회마을의 주산을 '화산', 이 일대를 굽이쳐 흐르는 낙동강 지류를 '화천'이라 일컫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꽃술에 해당하는 명당엔 양진당, 충효당, 화경당 등 무수한 인재를 배출한 고택이 자리 잡고 있다. 점처럼 작아진 기와지붕과 초가지붕을 마주하는 순간, 모든 사사로운 근심으로부터 멀리 떠나온 듯한 기분이 든다. 옛사람들도 그러했을 터. 서애 류성룡은 부용대 동쪽 끄트머리에 옥연정사를 짓고 은거하며 임진왜란을 회고하는 <징비록>을 집필했고, 그의 형인 검암 류운룡 또한 절벽 서편에 검암정사를 세워 학문을 닦았다. 삶이 고단할 때마다 되새길 만한 연꽃 같은 장면과 이야기다.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산23-3(부용대), 경북 안동시 풍천면 전서로 186(하회마을) 문의 054-852-3588(하회마을 관광 안내소)



© 안동시청

+
여기도 가 보세요

병산서원 서애 류성룡과 그의 제자이자 셋째 아들인 수암 류진을 배향한 곳으로,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의 대표적 유교 건축물이다. 서원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만큼 칭송해 마땅한 것이 있으니, 이즈음 붉은 망울을 터트려 만개하는 배롱나무 꽃이다. 보호수로 지정된 입교당 뒤편의 여섯 그루 외에도 존덕사, 장판각, 만대루 등의 건물 주변 곳곳에 자리한 나무들이 여름날 병산서원을 구름처럼 휘감는다. 눈부신 화산능선과 강줄기가 자아내는 풍광이 운치를 더한다.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길 386
문의 054-858-5929

마음을 씻는 낙수 봉정사와 명옥대

한낮의 뉘악별을 피해 천등산에 몸을 숨긴다. 울창한 소나무가 드리운 그늘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소박한 일주문 앞에 닿는다. 봉정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산지 승원 일곱 곳 중 하나지만 결코 화려하거나 위압적이지 않은 사찰로, 천등굴에서 수행하던 능인 스님이 접어 날린 종이 봉황에서 이름을 따왔다. 만세루 누하 기둥 사이로 이어진 좁다란 계단에 올라서자 대웅전과 화엄강당이 자아내는 환하고 산뜻한 영역에 다다른다. 사바세계를 벗어나 정토에 당도한 기분이 이리할까. 과연 봉황이 머물렀다는 전설처럼 은은한 기품을 간직한 전각들이 서로 어깨를 맞댄 듯 다정하게 늘어서 있다. 한국에 남은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인 국보 극락전과 조출한 고금당, 고려 시대에 세운 삼층석탑이 자아내는 운치 또한 맑고 그윽하다. 요사채 너머 영산암까지 다 둘러보고 내려가는 길, 물 좋고 바람 좋은 명옥대에서 잠시 숨을 고르기로 한다. 봉정사를 오가며 독서하던 퇴계 이황은 물이 흘러 '낙수대'라 부르던 이곳을 즐겨 찾았다. "비천수명옥(飛泉漱鳴玉, 솟구치는 샘이 옥돌 씻는 소리를 내네)"이라는 옛 중국 시구를 따 새롭게 명명한 것 또한 그다. 들려오는 물소리에 눈을 감고 번뇌를 씻을 시간이다.

주소 경북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봉정사)
문의 054-853-4181(종무소), 054-857-9780(관광 안내소)



1 신비로운 빛이 쏟아지는 돌계단 위에 부속암자 영산암이 자리한다. 2 계단을 올라 만세루를 통과하면 소박한 전각을 마주한다. 알록달록한 연등이 꽃 같다. 3 맑은 물이 흐르는 명옥대에서 몸과 마음을 차분히 한다.



2



+

여기도 가 보세요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풍채만 큼이나 자비로운 부처님 앞에서 머리를 절로 조아린다. 사찰 겸 숙소로 사용해 '연미원'이라고도 부르던 연미사터에 자리한 고려 시대 불상으로, 거대한 암벽 위에 머리 부분인 불두를 따로 얹어 만든 형태가 이채롭다. 도통한 눈매와 입가에 흐르는 토속적 아름다움을 감상하느라 시선을 떼기 어렵다. 불상 주변은 제비원 솔씨공원으로 꾸며졌다. 서사무가 '성주풀이' 중 "안동 땅 제비원에 솔씨 반어"라는 대목에 따르면, 가옥을 수호하는 신인 성주의 본향이 바로 여기다.

주소 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672
문의 054-841-4413(제비원 연미사)



3



+
이렇게 여행하세요

안동시티투어 '한국정신문화의수도'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도시 안동에는 무수한 문화유산과 볼거리가 산재하니 안동시티투어의 다채로운 테마별 코스를 활용해 동선을 설계해도 좋다. 최근에 선보인 '리더의 도시 안동, 100년 리더십 여행' 코스는 옛 안동역사를 개조한 여행자 플랫폼 '중앙선1942안동역'에서 출발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이 탄생한 임청각, 한국 전통 복식을 체험할 수 있는 한국문화테마파크, 제21대 대통령을 배출한 예안면 도촌리 일대를 차례로 둘러본다.

문의 www.gbttour.kr

1, 3 임청각 일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2019년부터 철길을 걷어 내고 건물을 복원하기 시작해 올 10월 역사문화공유관 건립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다. 2 임청각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국보로 지정된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이 자리한다. 한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전탑이다.

3 | 역사를 비추는 우물
임청각

청신한 기운이 흐르는 영남산 동쪽 자락, 낙동강 물줄기를 굽어보는 배산임수 명당에 50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을 버티고 선 임청각이 있다. 조선 중종 때 형조좌랑을 지낸 이명이 세운 이 집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이 태어난 곳으로, 존재가 곧 역사를 증언한다. 석주는 만주로 건너가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몸을 던져 싸우다 “독립이 되기 전에는 나의 시신을 고국에 가져가지 말라”라는 말을 남기고 순국했으며, 그의 아들 준형은 아버지의 문집 <석주유고>를 정리한 뒤 “일제 치하에서 하루를 더 산다는 것은 하루의 치욕을 보낼 뿐이다”라는 유서를 쓰고 자결했다. 통탄할 일은, 3대에 걸쳐 10여 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해 낸 아흔아홉 칸 고성 이씨 종택이 일제가 감행한 중앙선 철도 부설 사업으로 크게 훼손된 사건이다. 남은 건물도 소음과 진동으로 고역을 치렀으나 꽃꽂이 가게만은 오늘날에도 고스란하다. 자랑스레 핀 무궁화가 마중하는 앞마당, 작은 전시관으로 꾸민 행랑과 중정, 무수한 독립 열사와 목객의 자취가 깃든 군자정을 살피는 동안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석주가 탄생한 '우물방' 앞에선 발길이 더더진다. 우물방 앞 맑은 우물이 비추었을 아름다운 얼굴들, 아프고도 위대한 시절을 오래도록 기억해야겠다.

주소 경북 안동시 임청각길 63 문의 054-859-0025





1,4경치 좋은 고산정 일대에는 래프팅, 캥크닉 등 야외 활동을 즐기려는 이들이 모여든다. 2,3안팎으로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고산정. 수백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 온 정자는 물론이고 소나무와 탱자나무, 그림 같은 기암괴석과 물줄기가 그저 눈부시다.

4 | 우정은 강물을 타고 고산정

퇴계가 거닐던 청량산과 낙동강 기슭의 오솔길을 이르는 '퇴계 예던길'은 인간과 우주의 본질을 고찰한 대학자의 사상과 함께하는 여정이다. 연시조 '도산십이곡'에서 퇴계는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고인을 못 뵈도 예던 길 앞에 있네/ 예던 길 앞에 있거니 아니 예고 어이리"라고 썼는데, 여기엔 옛 성현이 앞서 닦은 길을 따라 걷겠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퇴계 예던길의 모든 장면이 찬란하지만, 열두 폭 병풍처럼 유려한 바위 절벽과 물줄기가 굽이치는 가송협은 과연 백미라 할 만하다. 풍광을 완성하는 것은 고산정이다. 퇴계의 애제자이자 정유재란 때 의병장으로 공을 세운 성재 금난수가 지어 올린 정자다. 이곳을 즐겨 찾아 노닐던 퇴계는, 어쩌다 제자를 만나지 못한 날의 감회를 "창망산독좌구(惝望雲山獨坐久, 구름 걸린 산 바라보며 한참을 기다렸네)"라는 시구로 남기기도 했다. 무수한 목객이 몸을 기댄 고산정에는 그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글줄이 차고 넘친다. 봉화 금씨 문중은 원본을 온전히 보존하고자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했고, 이곳 정자엔 탁본을 걸어 정취를 보존했다. 고아하게 낡은 기둥과 서까래, 창 너머 어른거리는 험곡과 바람결에 실려 오는 물 내음, 미려한 자태를 뽐내는 소나무... 선비의 눈을 빌려 풍경을 연모한다.

주소 경북 안동시 도산면 가송길 177-42 문의 054-857-4387



4

5

수면에 어린 안동의 밤
월영교

청량한 풀벌레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여름밤, 초승달 모양의 쪽배가 수면을 가로지른다. 안동호를 둘러싼 능선이 검푸른 어둠에 잠기고, 꽃 같은 조명이 불을 밝히니 비로소 월영교의 시간이다. 달이 비친다는 뜻의 '월영'이란 이름은 안동댐 건설로 수몰된 암벽 월영대와 옛 지명 음달골에서 비롯되었다. 길이 387미터, 너비 3.6미터로 압도적인 자태를 자랑하는 월영교엔 풍광만큼이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조선 중엽에 한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엮은 미투리 한 켤레, 그리고 남편에게 쓴 편지가 1998년 고성 이씨 문중 묘 이장 과정에서 발굴된 것이다. "돌이 머리 세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어찌하여 나를 두고 자네 먼저 가시는가" 일명 '원이 엄마 편지'로 알려진 이 서신은 월영교가 간직한 낭만과 애뜻함을 더한다. 하늘에서 굽어본 월영정과 월영교의 모습이 미투리 형상이라는 사실 또한 절묘하게 느껴진다. 야경을 기다리는 동안 주변 여행지를 둘러보면서 설렘을 다스린다. 근사한 카페가 모여 있는 안동문화관광단지에서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비밀의 숲'이라는 별칭이 붙은 낙강물길공원의 싱그러운 녹음을 누리니, 계절의 축복 안에서 충만해지는 기분이다.

주소 경북 안동시 상아동 569 문의 054-857-9783(월영공원 관광 안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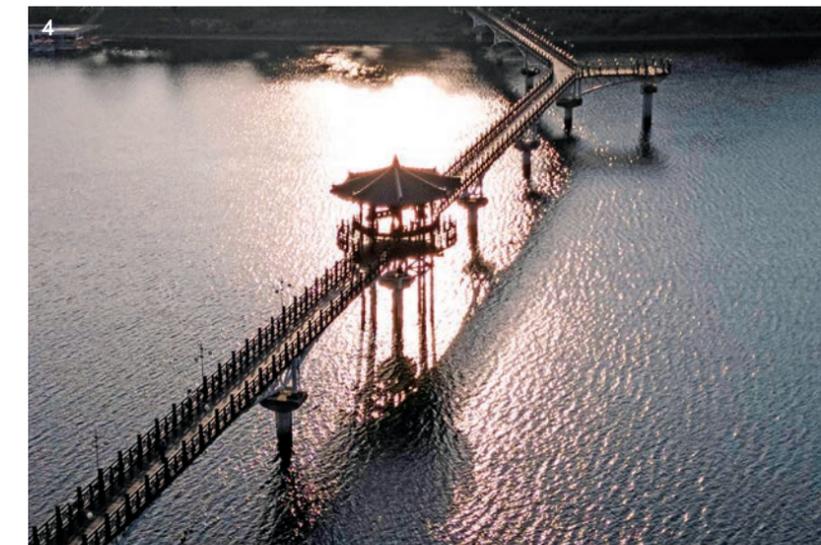
이렇게 여행하세요

2025안동수(水)페스타 낙동강 물줄기가 시원스럽게 흐르는 땅, 안동은 물의 도시다. 뜨거운 햇볕, 훗훗한 열기를 식힐 물놀이 문화 축제 '2025안동수(水)페스타'가 한층 진화한 모습으로 찾아온다. 안동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선보이는 감각적인 공연, 드넓은 물놀이장과 짜릿한 물총 싸움, 허기를 달랠 푸드 트럭과 수제 맥주,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보듬어 줄 캠프닉장, 눈이 즐거운 플리마켓까지, 온몸이 들썩일 만큼 흥미로운 체험 요소가 가득하다.

장소 경북 안동 성회여자고등학교 앞 낙동강변
기간 7월 26일~8월 3일
문의 www.waterfesta.com



1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월영교의 여름밤. 튀어 오르는 물줄기에 가슴이 시원해진다. 2 정월대보름에 즐기는 차전놀이의 본고장이 바로 안동이다. 차전놀이란 동편과 서편, 양쪽의 동체가 맞붙어 승부를 겨루는 민속놀이이다. 3, 4 한낮 햇살이 일렁이는 안동호를 가로지른다.



1

2

3

4

Andong, Flowing with the River

Following the long, winding waterways of Andong in Gyeongsangbuk-do Province, I walked alongside the currents of time. It was a cleansing journey—one that gently washed away the weariness of body and spirit in the summer heat.



1 Buyongdae Cliff and Hahoe Village

Could even a brush-painted landscape be more beautiful than this? “Yeonhwabusu,” which means “a lotus flower floating on water,” is a geomantic term used to describe the shape of Hahoe Village, embraced on all sides by the river like petals on a pond. The best place to take in this breathtaking scene at a glance is Buyongdae Cliff. After a short 10-minute hike, a cool breeze from the river brushes past, drying the sweat on your back. Then, suddenly, a wide-open sky and a flower-like village cradled by water and mountains fill your view. Looking down at the tiny dots of tiled and thatched rooftops, you feel as though you’ve left behind every small worry. No doubt, people of the past felt the same. Seoae Ryu Seong-ryong built Okyeonjeongsa at the eastern edge of Buyongdae, where he lived in seclusion. His elder brother, Gyeomam Ryu Un-ryong, also built Gyeomamjeongsa on the western side of the cliff to pursue his studies. Scenes and stories like these are like lotus blossoms—images to return to whenever life feels heavy.

Address San23-3, Gwangdeok-ri, Pungcheon-myeon, Andong-si, Gyeongbuk(Buyongdae Cliff), 186 Geonseo-ro, Pungcheon-myeon, Andong-si, Gyeongbuk(Hahoe Village) **Contact** 054-852-3588(Hahoe Village Tourist Information Center)

2 Bongjeongsa Temple and Myeongokdae Pavilion

Among Korea’s seven mountain temples inscribe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s, Bongjeongsa Temple stands out not for grandeur or splendor, but for its quiet humility. A monk named Neungin, who practiced asceticism in Cheondeunggul Cave during the reign of King Munmu of Silla, is said to have released a paper phoenix into the air, which landed where the temple now stands. Climbing the narrow staircase between the columns of Manseru Pavilion, you reach a serene courtyard where Daeungjeon Hall and Hwaemgangdang Lecture Hall radiate a gentle, refreshing atmosphere. Just as the phoenix is said to have rested here, the temple’s buildings line up gracefully, exuding quiet elegance and warmth. The temple is home to Geungnakjeon Hall, Korea’s oldest surviving wooden structure and a designated National Treasure. Alongside it stand the simple Gogeumdang Hall and a three-story stone pagoda from the Goryeo era, all adding to the site’s calm and meditative charm. After exploring the monks’ quarters and Yeongsanam, the descent leads you to Myeongokdae Pavilion, a scenic rest stop blessed with clear water and fresh breezes. The scholar Toegye Yi Hwang, who often visited Bongjeongsa, loved to stop here and read. He named the site Naksudae in reference to the flowing stream. Now it’s your turn to close your eyes and let the sound of water wash your worries away.

Address 222, Bongjeongsa-gil, Seohu-myeon, Andong-si, Gyeongbuk **Contact** 054-853-4181(Temple Office), 054-857-9780(Bongjeongsa Tourist Information Center)



3 Imcheonggak House

On the eastern slope of serene Yeongnamsan Mountain, overlooking the winding Nakdong River, stands Imcheonggak House—a site blessed by its ideal location and steeped in over 500 years of history. Built during the reign of King Jungjong of Joseon by Yi Myeong, then a government official, the house later became the birthplace of Seokju Yi Sang-ryong, the first premier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residence is not just a building; it is living history. What is deeply lamentable, however, is the damage it suffered. Home to the Goseong Yi clan, which produced over ten independence fighters across three generations, the house was severely harmed by Japan's forced construction of the Jungang Railway Line. Welcomed by blooming mugunghwa (Korea's national flower) in the front yard, visitors pass through the converted exhibition halls in the servants' quarters and central courtyard. In the Gunjajeong Pavilion, traces of countless independence fighters and visiting scholars linger. Standing before the Well Room where Yi Sang-ryong was born—your steps naturally slow. One can almost see the reflections of those noble faces in the clear water of the well. It is a place that urges us to remember a painful yet profoundly proud era.

Address 63, Imcheonggak-gil, Andong-si, Gyeongbuk
Contact 054-859-0025



5 Woryeonggyo Bridge

The name Woryeong, meaning “moon reflection,” originates from Woryeongdae—a cliff that was submerged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Andong Dam—and the nearby historic village of Eumdalgol. Stretching 387 meters long and 3.6 meters wide, Woryeonggyo Bridge is not only visually striking, but also steeped in a story as enchanting as the scenery itself. In 1998, during the relocation of a family burial site belonging to the Goseong Yi clan, archaeologists discovered a pair of straw shoes woven from human hair and hemp thread, along with a letter written by a woman to her late husband. This heartfelt note—now widely known as “Woni’s Mother’s Letter”—has added a layer of romance and sorrow to the bridge’s mystique. Seen from above, Woryeongjeong Pavilion and Woryeonggyo Bridge together resemble the very shape of the straw shoes found with the letter, an uncanny and touching connection. As you wait for nightfall to see the bridge beautifully illuminated, you can visit charming cafés at the Andong Culture & Tourism Complex, or stroll through the lush greenery of Nakgang Mulgil Park—nicknamed “Secret Forest.” In that moment, embraced by the blessings of summer, you feel full and alive.

Address 569, Sanga-dong, Andong-si, Gyeongbuk **Contact** 054-857-9783

4 Gosanjeong Pavilion

Toegye Yedeon-gil, or Toegye’s Old Path, follows the footpaths along Cheongnyangsan Mountain and the banks of the Nakdong River, once walked by the great Confucian scholar Toegye Yi Hwang himself. Every view along the way is breathtaking, but the most striking is Gasonghyeop Gorge, where sheer rock cliffs and flowing water unfold like a twelve-panel folding screen. Completing the scene is Gosanjeong Pavilion, built by Geum Nan-su, Toegye’s cherished disciple and a righteous militia leader during the Imjin War. Toegye often visited this spot, and on a day when he missed meeting his student, he left behind a line of poetry: “Gazing long at the misty mountains, I sat alone for some time.” Gosanjeong has long offered a resting place for poets and scholars, its walls filled with writings that praise its beauty. The gracefully weathered pillars and beams, the gorge glimpsed through lattice windows, the scent of water carried on the breeze, and the elegant pines swaying nearby—these elements draw you into the scene, as if through the eyes of a scholar in love with the landscape.

Address 177-42, Gasong-gil, Dosan-myeon, Andong-si, Gyeongbuk
Contact 054-857-4387



스물두 개 군으로 나뉘는 베트남 호찌민의 동네들은 도시가 지나온 근현대의 서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다. 그중 가장 빠르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변화하는 젊은 동네 1·2·3군을 탐색했다.



호찌민의 젊은 동네



Quan 1

MZ세대의 아지트, 1군

호찌민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현지인을 만날 때마다 질문을 던졌다. “요즘 이 도시에서 핫한 동네가 어디예요?” “로컬들만 아는 힙한 장소가 모여 있는 곳이 있나요?” 젊고 새로운 장면을 포착해야 하는데, 온라인 어디에도 ‘이제 막 뜨기 시작한 동네’ ‘호찌민의 브루클린’ 같은 검색어에 준하는 답이 없었다. 이곳에 오기 전 갖은 인맥을 동원해 찾아낸 후 잘로(Zalo, 베트남의 메신저 앱)에서 대화를 나눈 젊은 로컬들, 길거리에서 만난 20대들이 내게 준 답은 1군. 호찌민 중앙 우체국, 사이공 노트르담 대성당, 벤타인 시장 같은 명소가 온집한 관광 1번지다. 애초에 취재지 후보에 올릴 생각도 없었던 곳을 자꾸만 들이대는 호찌민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다. ‘내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건 나였다. 호찌민의 명소 중 하나인 벤타인 시장에서 고작 1.8킬로미터가량 떨어진 거리, 틱톡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차림새의 사람들이 허름한 건물을 끊임없이 들락이는 모습을 보며 그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삼합회 아지트 같은 그곳을 찾아가기 위해 손에 쥔 주소는 ‘14 톤땃담(14 Ton That Dam)’. 통역을 도와준 대학생에게 “카페, 바, 숭이 들어서 있는 오래된 아파트예요”라는 설명과 함께 받은 이정표다. 칠혹같이 어두운 입구 앞에서 들어가길 주저하자 배달 오토바이를 세워 놓고 각연을 즐기던 아저씨가 턱을 치켜든다. 그의 눈이 “믿기지 않겠지만 내가 찾는 데가 맞을 거야”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두려움을 뚫고 벽을 더듬으며 계단을 올랐다. 용기를 낸 외국인 앞에 펼쳐진 놀라운 장면. 성수동 뺨치는 세련된 인테리어의 카페와 기발한 스피키지 바, 벽을 가득 채운 그라피티와 각기 다른 상호가 쓰인 십수 개의 간판, 그 안에서 술또는 커피를 마



시거나 노트북 작업을 하는 잘 차려입은 젊은 무리. 호찌민 곳곳에 길게는 100여 년, 짧게는 50~60년 된 오래된 아파트에 젊은 예술가, 바리스타, 셰프, 디자이너들이 등지를 튼 아파트 카페가 있다. 미디어에서 종종 ‘젊고 현대적인 호찌민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묘사하는 이 독특한 복합 문화 공간의 상당수가 1군에 몰려 있다. 그래서 호찌민의 MZ세대가 내게 줄곧 1군을 부르짖은 것이다.

관광객이 사이공 노트르담 대성당만큼이나 유명해진 응우옌후에 거리 42번지(42 Nguyen Hue)의 아파트 카페를 배회할 때 로컬, 정보 검색에 능한 외지인은 좀 더 뒷골목에 자리한 아파트 카페를 찾는다. 로컬 패션 브랜드가 몰려 있는 쇼핑센터 뉴 플레이 그라운드(New Play Ground)와 함께 자리한 26 리투쑹(26 Ly Tu Trong), 호찌민 기차역을 개조한 9월 23일 공원(Cong Vien 23 Thang 9)에서 가까운 35 응우옌반짱(35 Nguyen Van Trang) 등이 대표적이다. 그밖에 더 많은 아파트 카페가 복잡한 미로 같은 1군 골목 곳곳에 숨어 있지만 베트남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엔 그림의 떡이다. 그 까닭을 35 응우옌반짱 2층에 자리한 문방구 점원에게 들었다. “이런 아파트들이 너무 유명해지면 건물이 시끌벅적해지고, 그림 언젠든 찾아와 조용히 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런 아파트엔 상점뿐 아니라 이곳에서 오래 산 주민들의 집도 있거든요. 서로의 사생활과 휴식을 위해 다들 쉬쉬하는 거죠. 나만 알고 싶어서요.”



1 감각적인 바와 카페 등이 층마다 들어선 건축물, 톤땃담. 2 아주 낡은 외관과 완전히 다른, 현대적인 느낌의 아파트 카페. 3 젊은이들이 점령한 도심 한복판의 따오단 공원. 4 1군은 식민지 시대의 근대건축물과 고층 건물의 루프탑 바가 한 프레임에 담기는 동네다. 5 낡은 구두방의 쇼윈도 한쪽을 빌려 문연 카페 액 사이공(Eck Saigon). 호찌민의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곳이다.



Quan 2

쾌락주의자의 주말 놀이터, 2군

사이공강(Saigon River) 건너편에 자리한 2군의 정체성을 만든 건이 지역에 모여사는 2만여 명의 외국인 거주자다. 그들의 취향이 집결된 동네가 바로 2군에 자리한 타오디엔(Tao Dien). 낡은 옛 건물과 매끈한 초고층 빌딩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1군의 다들 어지르지 않은 풍경과 달리 타오디엔 거리에 노랑, 분홍, 연파랑, 연두 같은 고운 색 페인트를 입은 외벽과 온갖 세련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간판으로 행인의 시선을 빼앗는 상점이 즐비하다. 썩한 주황타일로 꾸민 외벽, 노란 의자, 그 옆에 수문장처럼 서 있는 야자수가 어우러진 풍경이 아이돌 가수의 뮤직비디오 세트 같은 찐찐 누들(ChanChan Noodle)은 그중 가장 눈에 띈다. '비건 누들 바를 콘셉트로 한 이 식당은 요즘 호찌민 인플루언서들이 앞다퉈 찾아오는 명소다. 밀려드는 손님을 응대하느라 바쁜 홀 매니저를 붙잡고 그 까닭을 물었더니 돌아온 답. "베트남의 스타 셰프 후이쩐(Huy Tran)과 영화배우 응오타인번(Ngo Thanh Van)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이거든요. 예쁜 인테리어도 인기에 한몫하지만 무엇보다 음식이 맛있기 때문이죠." 해외엔 베로니카 응오(Veronica Ngo)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 배우는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올드가드> 등의 영화로 할리우드까지 진출한 슈퍼스타다. 채식주의자인 그가 셰프인 남편과 함께 레시피를 개발해 선보이는 음식은 달걀, 우유, 꿀까지 제한하는 비건의 규칙을 철저히 따른다. 땅콩버터와 버섯으로 만든 XO소스로 매콤한 맛을 낸 비빔당면, 토마토·시금치·고추 등을 먹음직스럽게 얹어 내는 타이 누들 수프, 고추기름을 끼얹은 만두 등은 모르고 먹으면 채식인지 눈치채지 못할 만큼 감칠맛이 가득하다. 기대 없이 찾아간 곳에서 만족스럽게 배를 채우고 다시 길을 나선다. 영국 매거진 <타임아웃>이 올해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38곳 중 하나로 꼽은 타오디엔에서 가장 변화한 거리 쉼터투이(Xuan

Thuy)에서 쇼핑을 즐길 차례다. 베트남의 수준 높은 도자기를 현대적 디자인으로 해석한 브랜드 매장 아마이 하우스(Amai House)를 비롯해 그 옆, 지난해 10월에 문을 연 라이프스타일 슈다카옥(Dakaok), 남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카카오로 만드는 아티장 초콜릿 메종 마루(Maison Marou) 카페를 차례로 거치다 보면 어느새 양손 가득 쇼핑백이 들려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뭔가를 더 살 여력이 남아 있다면 중정이 아름다운 사이공 콘셉트(Saigon Concept)도 놓치지 말자. 아티장 치즈 전문점 캐슈 치즈(Kashew Cheese),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그레이드 비(Grade B), 근대 베트남의 엔틱도자를 소개하는 송베(Song Be)와 아트 스튜디오, 옷 가게, 향수 전문점 등이 취향 좋은 맥시멀리스트의 신용카드를 유혹한다. 대부분의 가이드북에서는 타오디엔에서의 일정을 랜드마크 81(Landmark 81) 75층에 자리한 루프톱 바 블랭크 라운지(Blank Lounge)에서 마무리하길 추천하지만, 나는 마천루보다 지상에 머물고 싶었다. 강가에서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홍 카페(Hong Cafe)는 상점이 아닌 집이, 가로등이 아닌 나무가 쪽 늘어선 뒷골목 끝에 자리해 고즈넉한 운치가 있다. 먹고 마시는 일과 쇼핑으로 폭주한 하루를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끝내고 싶었지만 카페 바로 옆, 호찌민 MZ세대에게 인기 높은 편집숍 오브조프(Objoff)의 유혹을 끝내 물리치지 못했다. 마지막까지 욕망에 사로잡힌 채 하루를 마치게 되는 곳. 타오디엔은 그런 동네다.



2

1, 2 호찌민의 MZ 인플루언서들이 즐겨 찾는 맛집 찐찐 누들. 베트남의 국민 배우와 스타 셰프 부부가 지난 4월에 문을 연 채식주의자를 위한 누들 바다. 3, 4, 5 세련된 인테리어, 영문 포스터, 거리에 앉아 햇빛 샤워를 즐기는 외국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곳이 타오디엔이다.



3



4



5





1 댐딘 시장으로 가는 길에 만난 세련된 건축물들. 2 '핑크 성당'으로 불리는 댐딘 성당 주변은 MZ세대가 사랑하는 인생 사진 촬영지다. 3 3군의 랜드마크, 댐딘 성당. 4 베트남 스페셜티 커피를 싱글 오리진으로 즐길 수 있는 허밍버드 카페 & 로스터리. 5 고대 후에 시대의 고건축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카페, 다바오 콘셉트.

Quan 3

취향 좋은 애호가들의 동네, 3군

호찌민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도시의 지형도를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5군에서 먹고, 3군에서 자고, 1군에서 파티를 즐긴다." 호찌민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동네'로 꼽는 3군은 모든 게 정신포기 없이 뒤엎힌 1군의 혼란과 달갑지 않은 긴 숫자가 영수증 위에서 춤을 추는 2군의 살벌한 물가에 지친 이들을 포근하게 품어 준다. 낮은 인구밀도(1제곱킬로미터당 4만 명), 도시에서 가장 넓은 녹지대를 보유한 동네, 시내 주요 지구로의 뛰어난 접근성 같은 점도 3군의 가치(집값)를 높이는 요소. 3군을 가르는 뚜쓰엉(Tu Xuong) 거리, 쩐꾸옥타오(Tran Quoc Thao) 거리, 바후엔타인관(Ba Huyen Thanh Quan) 거리 중 어디를 걸어도 이 동네의 정체성이 한눈에 보인다. 고대 전통 건축물,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유럽식 건축물부터 근대건축물까지 도시가 지니고 있는 역사를 품은 '집'들이 연대기처럼 펼쳐진 풍경이 눈과 발을 붙든다.

1790년 응우옌아인(Nguyen Anh) 황제가 지은 궁전으로, 호찌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알려진 탄싸(Tan Xa)를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거리에서 흔히 마주치는, 20세기 초 프랑스 식민지 시절 고무 농장을 운영한 부호들이 소유했던 저택들을 기웃거리기만 해도 시간이 훌쩍 지났다. 안쪽 풍경을 살피고 싶다면 그런 집 한 채를 사서 개조한 카페나 레스토랑을 찾아가 보자. 현지인 사이에서 아름다운 공간미를 추구하는 카페로 통하는 다바오 콘셉트(Dabao Concept)도 그중 한 곳. 고대 후에 시대의 저택을 재현한 코도(Codo) 지점의 고풍스러운 대문을 열고 안뜰로 들어서



면 오래된 나무, 정성스럽게 빗질한 마당, 처마 아래와 문 안쪽 곳곳에 놓인 고가구가 시선을 끈다. 커피 맛도 꽤 준수하지만 고즈넉한 분위기를 완성하는 건 호찌민 사람들의 조용조용한 몸짓과 목소리. 자신의 성향이 무엇이든, 혹은 어디에 있든 그곳의 분위기에 걸맞은 언행을 하는 것이 미덕인 베트남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공간미보다 맛과 질에 더 집중하는 커피 애호가에게도 3군은 행복한 선택지를 내준다. 베트남에 스페셜티 커피 신이 갖 자리 잡기 시작할 때부터 흐름을 만든 개척자들의 공간이 3군에 꽤 몰려 있다. 베트남의 바리스타 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노련한 로스터 쩐호아(Tran Hoa)가 운영하는 허밍버드 카페 & 로스터리(Hummingbird Cafe & Roastery), 다양한 향과 맛을 내는 지역 원두를 소개하며 실험적 레시피의 커피 음료를 선보이는 96B 카페 & 로스터리(96B Cafe & Roastery), 콜드 브루를 전문으로 하는 노매드 콜드 브루 커피(Nomad Cold Brew Coffee), 열대 과일을 커피에 접목한 메뉴를 선보이는 라비엣 커피(Laviet Coffee) 등이 3군의 인구밀도를 높인다.



오롯한 한 끼, 감자의 여정을 좇다



건강한 먹거리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플랫폼 '벗밭'. 도시와 농촌이 가까워지도록 만남의 장을 여는 벗밭의 배기현 이사를 따라 경기도 여주의 감자밭으로 떠났다.



순우리말 '벗'과 '밭'을 합친 벗밭은 건강한 먹거리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플랫폼이자 커뮤니티다.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던 백기영 대표가 대학 재학 시절 친환경 먹거리 모임 벗밭을 운영하다 졸업 후 2022년에 법인으로 전환했다. 현재는 배기현 이사를 포함한 3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도시에서 밭으로

벗밭의 목표는 식문화에 대한 가볍고 즐거운 첫 경험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즉흥 과일·채소 클럽' '퇴근 후 마르쉐' 등 다양한 식경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즉흥 과일·채소 클럽은 매달 스무 명 남짓한 사람이 모여 제철 과일과 채소를 맛보는 모임으로, 다양한 품종의 식재료와 시즈닝을 조합해 가며 새로운 맛을 경험한다. 지난 4월에 흑토마토·완숙토마토·방울토마토 등 여러 품종의 토마토를 빵과 샐러드 채소에 곁들이고, 딜·비건 마요·감귤 식초 등을 활용한 달래장을 취향대로 만들어 토마토비빔밥을 먹었다. 퇴근 후 마르쉐에선 저녁을 챙겨 먹기 힘든 이들이 모여 제철 식재료로 음식을 요리해 먹고 마르쉐 농부와 대화도 나눈다. 벗밭이 마련한 식탁엔 보통 다들지 않은 작물이 올라오는데,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물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도 갖는다.

식재료의 여정을 체험하기 위해 다 같이 교외 농장이나 도시 텃밭을 찾아가기도 한다. 'OO 마트' 프로그램이 그것. 벗밭이 랜선 식물 공동체 '셀러드연맹'과 함께 작년 3월부터 운영하는 OO 마트는 '감자 마트' '냉이 마트' 등 식재료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감자와 냉이 같은 채소가 마트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에게 감자와 냉이가 자라는 밭으로 가자고 제안한다. 지난봄 냉이 마트에 이어 지난 6월 중순엔 감자 마트가 열렸다.

에디터도 하지를 맞아 감자 마트가 열리는 경기도 여주로 향했다. 감자 마트에 참가 신청서를 보낸 사람은 10여 명. 참가 이유는 모두 감자에 집중되어 있었다. "직접 캔 감자로 감자 포카차를 만들고 싶어서" "하지를 성대하게 즐기는 사람으로서 하지 감자를 놓칠 수 없어서" 내 손으로 캔 감자를 먹겠다는 일념으로 주말 아침에 모인 사람들이다.

여름이 제철, 하지 감자를 만나다

감자 마트의 목적지는 광동훈 농부의 감자밭. 그를 따라 도착한 밭엔 정채 모를 검은 비닐이 뒤덮여 있었다. 모두 힘을 합쳐 비닐을 걷어 내니 푸른 감자 잎사귀가 모습을 드러낸다. 나누어 준 목장갑을 끼고 고랑에 앉아 난생처음 호미를 들고 감자밭과 마주한다.



- 1 밭 주변에서 채집한 식물. 개갓냉이, 쇠비름 등 이름도 생소하다.
- 2 삼삼오오 모여 감자를 캐고 있다.
- 3 감자를 캐기 전, 감자의 원산지과 생김새에 대해 탐구한다.
- 4 지난 3월에 싹 틔운 씨감자를 심고 3개월간 길러 하지 무렵에 수확했다. 유기농으로 재배해 시중에 판매하는 감자보다 크기가 작다.





1 껍질이 붉은빛을 띠는 홍감자와 속이 진보랏빛인 자색감자는 감자 특유의 아린 맛이 없어 샐러드용으로 적합하다.
2 다 함께 만든 감자 요리를 맛보는 벚밭의 백가영 대표와 배기현 이사. 3 감자 요리에 곁들일 배추 곁절이를 된장에 무친다.
4 인천 강화도의 협동조합 청풍과 벚밭이 협업해 진행한 '강화, 가을의 맛' 프로젝트. 순무, 속노랑고구마, 섬쌀 같은 강화 고유의 문화와 맛을 담은 레시피 카드와 생산자의 인터뷰 QR코드가 담겨 있다.

“원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듣고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물이 태어난 땅이 궁금해지고 그 땅에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뜨겁고 건조한 흙을 열심히 걷어 내니 시원하고 촉촉한 흙이 손끝에 닿는다. 젖은 나무껍질에서 나는 냄새가 코끝을 스친다. 더 깊이 팔수록 흙 속에 감춰져 있던 이름 모를 곤충과 애벌레가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인다. 화학비료를 쓰지 않은 건강한 토양임이 분명하다. 단단히 뭉친 흙을 감자로 착각해 실망하기를 여러 번. 온 힘을 다해 땅을 파니 흙보다 옅은 색의 무언가가 흠뻑 시야에 잡힌다. 확신에 찬 눈빛으로 주변 흙을 걷어 내니, 큰 잎사귀와 덩이줄기가 하나로 이어진 진짜 감자가 한 손에 잡혀 나온다. 첫 수확의 기쁨을 맛보자 더욱 열성적으로 감자 캐는 일에 집중했다. 10분쯤 지났을까, 주변에서도 감자를 수확한 듯 환희에 찬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파도 파도 계속 나오네.” “내가 켄 감자가 제일 큰 것 같아.” 시선을 옆으로 돌리니 울망줄망한 감자가 어느새 탑을 이루고 있다. 족히 1시간은 지난 것 같은데 감자를 켄 시간은 고작 20분. 갑작스럽게 몸을 일으키자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는 찌릿하게 저러 온다. 접혀 있던 다리 사이에 찬땀이 발등까지 주르륵 흘러내리자 그제야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몸을 자각한다.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내리 감자만 캐요.” 순간 광동훈 농부의 말이 떠올라 아득한 기분이 든다.

무궁한 가능성이 꽃피는 식탁

부지런히 일했으니 이제 굶주린 배를 채울 차례다. 메인 요리는 감자전, 감자수제비, 감자샐러드. 각자 역할을 분담해 분주히 움직인다. 방금 밭에서 켄, 흙 묻은 감자를 물로 씻어 내는 것을 시작으로 흑밀과 덩켈

멜로 만든 수제비 반죽을 얇게 펴고, 강판에 곱게 갈아 낸 감자를 프라이팬에 올린다. 감자 요리에 곁들일 반찬은 배추 곁절이. 봄에 수확한 토종 배추를 한 입 크기로 썰어 한쪽은 된장, 다른 한쪽은 고춧가루로 만든 양념장에 묻힌다.

처음 보는 이들과 함께 요리하며 감자 레시피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그중 하나는 배기현 이사가 제일 간단하다며 선보인 샐러드. 껍질이 붉은빛을 띠는 홍감자와 속이 진보랏빛인 자색감자를 삶은 뒤 양푼에 담아 으깨고 소금과 후추로 가볍게 간을 한다. 여기에 종종 다진 로즈메리까지 더하면 완성. “너도나도 따라 할 수 있으려면 일단 쉽고 재밌어야 해요. 그래서 익숙한 식재료로 새로운 조합의 음식을 만드는 조립식 레시피를 추천해요. 정말 간단하고 맛있어서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걸요.” 10분 만에 똑딱 만든 로즈메리 감자 샐러드를 맛보니 포슬포슬한 감자의 식감과 함께 로즈메리의 향긋함이 진하게 풍긴다. 감자와 로즈메리의 조합이 의외로 잘 어울려 다른 허브와의 조합은 어떻게 상상해 본다.

하나둘 완성한 요리를 접시에 담아 식탁에 올리니 감





자로가득한 한상이 차려졌다. 기다렸다는 듯 분주히 젓가락질을 하며 내 손으로 완성한 감자 요리를 맛본다. 감자는 요리 방법에 따라 담백하거나 고소하거나 달콤한 맛을 내기도 했다. 같은 감자로 만들었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다채로운 맛이 난다. 이렇게나 다종다양한 감자 요리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자리가 또 있을까. 호사를 누리는 기분으로 1년 치 하지 감자를 원없이 즐긴다.

한 끼, 그 너머의 의미

앞으로 마트에서 감자를 마주할 때마다 이날이 떠올라 테다. “심고 거두기까지, 그 사이에는 정말 많은 과정이 있어요. 그 지난한 여정을 상상하면 감자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감자에 깃든 시간도 함께 오는 것 같아요.” 백가영 대표의 말처럼 씨감자가 밭에 던져진 순간부터 식탁 위에 올라오기까지 감자의 기나긴 여정

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하다. 한 끼에 얽힌 수많은 관계와 노력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다.

이는 벃밭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식사, 즉 연결되는 식사와 이어진다. 밥 한 끼를 시작으로 자연과 농부 너머의 관계를 떠올리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한다. 더 나아가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지탱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벃밭이 생산자를 만나 지속 가능한 재배 방식을 함께 고민하고, 건강한 식문화에 관심 있는 이들을 만나 친환경으로 재배한 제철 작물을 다 같이 나누어 먹는 이유다.

“원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듣고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물이 태어난 땅이 궁금해지고 그 땅에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을 발굴해 내는 것이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이들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밭과 식탁을 잇는 벃밭의 재미난 실험은 계속된다.

made in

청도를 만드는 공간과 사람, 일곱 가지 이야기

CHEONGDO

no.08



1



2



4

1 아기자기한 벽화로 가득한 유천문화마을.
2 1989년 문을 닫은 신도정미소는 현재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3 2023년 재개관한 유천극장. 4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내부.
5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된 신거역. 6 전시 공간과 체험 공간이 어우러진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구석구석 돌아보는 데 2시간가량 소요된다.

시간을 깊이 머금은 공간은 언제나 여행자에게 긴 여운을 남긴다. 오래된 거리, 낡은 건물 곳곳에 저마다의 시대가 쌓여 있어 천천히 걷다 보면 그곳을 거쳐 간 삶의 흔적이 함께 밟힌다. 단순히 지역의 옛 모습을 재현한 테마 공원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가 보존된 레트로 여행지의 매력이란 그런 것일 터. '청도의 레트로'를 논할 때 유천문화마을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때 물류와 교통 중심지로 번영을 누리던 이 마을은 과거의 영광을 매끈하게 복원해 관광 상품처럼 전시하지 않는다. 지금도 대부분의 건물에 사람이 거주하고, 수십 년 된 상점이 여전히 손님을 맞는다. 특히 영신정미소나 유천극장처럼 반세기를 이어 온 가게들은 하나하나 멋스러운 빈티지 공간이기도 하지만, 지역민의 삶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문화유산으로도 가치가 크다. 유천문화마을이 청도의 근대와 현대를 오가는 통로라면, 신도마을이 간직한 유산은 이 지역을 가꾸고 키워 낸 공동체 정신이다. 물론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서 자긍심도 높지만, 그 효시가 된 지역 보수 작업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행동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현재 신도마을에는 이를 기념하는 거대한 공원이 조성돼 있다. 작은 전시관으로 꾸민 신거역과 신도정미소를 중심으로 교복사, 이발소, 목욕탕 등 옛 가게가 복고 감성을 짙게 뿜어낸다. 새마을운동 관련 자료를 총망라한 기념관과 각종 체험 학습장, 재현 공간 등이 어우러진 새마을테마파크도 함께 둘러보기 좋다.

📍 유천문화마을 경북 청도군 청도읍 유천길 83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경북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길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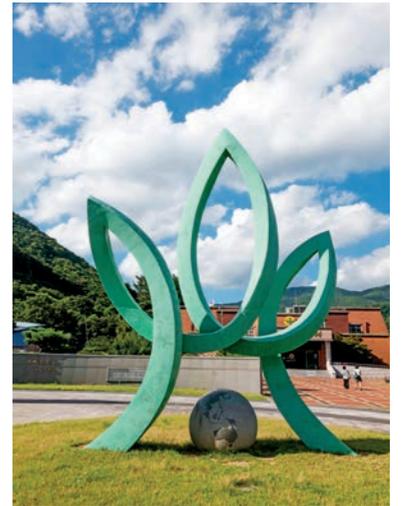
과거와 현재가 만나다
유천문화마을 ·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3



5



6

홍시생활



1



3

1, 4, 5, 6 다양한 제품군이 정갈하게 진열된 가게 내부. 친환경 생활용품 외에도 천연 소재를 활용한 수공예품과 공정 무역 제품, 대표가 직접 만든 소품 등을 선보인다. 2 홍시생활을 운영하는 김은성 대표. 3 빈 용기를 가져오거나 재활용 용기를 대어해 각종 세제류를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다.



4



5



2

모든 친환경 실천의 시작점이 꼭 '건강한 지구'일 필요는 없다. 때론 '건강한 나'를 위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지속 가능한 지구 생활을 만들어 주기도 하니까.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친환경'은 청도 유일의 제로 웨이스트 숍을 운영하는 김은성 대표의 철학이기도 하다. 일찍이 천연 소재와 자연 친화적 제품에 관심이 많던 그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편집숍 형태로 한데 모아 두고 싶다'는 마음으로 2023년 홍시생활을 시작했다. 고객이 빈 용기를 가져오면 각종 세제와 구연산, 베이킹 소다, 과탄산 소다 등을 필요한 용량만큼 소분해 구매할 수 있는 곳이다. 비누와 샴푸 바, 수세미, 치약, 칫솔 같은 생활용품은 물론 라탄 가방, 키링, 접시, 연필 등 문구류와 소품, 액세서리도 취급한다. 제품을 선정하는 기준은 천연 소재와 수공예품 그리고 공정 무역이다. "자개발 국가 여성들이 천연 소재를 가지고 전통 방식으로 만든 수공예품을 공정 무역 형태로 들여오는 거죠. 사람도 살리고 지구에 해도 없고요." 김 대표의 철학은 대한민국의 환경대사 자원순환 부문에서 6년 연속 대상을 받을 정도로 환경에 진심인 청도라는 지역사회와 만나 시너지를 냈다. 다양한 체험 클래스와 더불어 환경 모임 '다시, 초록'을 운영하며 플로깅 행사, 퍼머컬처 교육 등 폭넓은 지역 기반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무엇보다 건강한 삶의 가치를 믿는 그는 8년 전 새로운 터전으로 삼은 청도에서 자연을 소진하지 않고 남겨 두자는 '까치밥 홍시'의 의미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도주관로 152



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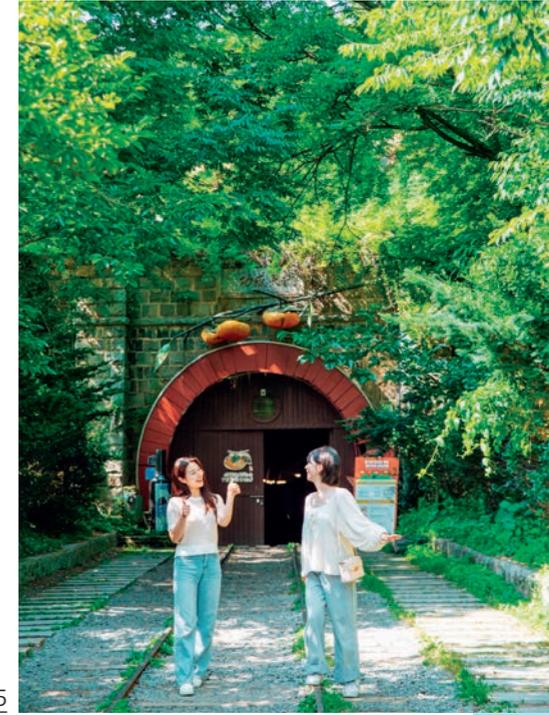


4

1 각종 감와인이 와인터널에서 천천히 숙성되고 있다.
 2 한정판으로 선보인 아트와인과 가장 대중적인 감와인인 '레귤러'.
 3, 4, 5, 6 터널 안이 사계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덕분에 여름엔 피서지로, 겨울엔 피한지로 제격이다.



6



5



2



3

감와인이 익어가는 시간

청도에 만나절만 머물러도 아주 선명하게 각인되는 존재가 있다. 크고 작은 농가는 물론 읍내 도로변이든 주택가 골목길이든 어디서나 고개만 돌리면 눈에 들어오는 감나무다. 실제로 청도의 대표 특산물이자 전국 감 생산량의 약 20퍼센트를 차지하는 청도반시는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만나 볼 수 없는 '씨 없는 감'이다. 씨가 없어 육질이 유연하고 당도가 높으며 과즙이 풍부한 것이 강점인데, 청도반시로 감와인을 빚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옛 경부선 철도 구간에 들어선 와인터널은 감와인을 저장 및 숙성하는 창고이자 직접 시음하고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다. 청도군과 청도감와인 주식회사는 방치된 폐철길 터널을 정비해 2006년에 운영을 시작했는데, 현재는 전체 1킬로미터 중 400미터 구간을 네 가지 테마로 꾸며 방문객을 맞고 있다. 연중 15도 내외의 온도와 60~70퍼센트의 습도를 유지하는 터널 내부가 와인 숙성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한편, 여름에는 더위를, 겨울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어 이색 여행지로도 손꼽힌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감그린은 가장 대중적인 '레귤러'를 비롯해 '스페셜' '아트와인' '아이스와인' 등 네 종류로, 제품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타닌이 풍부하며 단맛과 신맛이 깔끔하게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과일 주스와 에이드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무알코올 음료는 물론 와인에 곁들이기 좋은 간단한 안주 메뉴도 선보인다.

☞ 경북 청도군 화양읍 송금길 100



1



2



4



3

- 1 감잎공방의 대표 메뉴인 베이글은 감잎을 그대로 갈아 통밀 반죽에 넣고 구워 낸다.
- 2 베이식한 감잎통밀스콘 외에 청도반시크림치즈와 채소믹스크림치즈를 넣은 스콘도 맛볼 수 있다.
- 3 코지테임의 강민구 대표.
- 4 감잎공방 내부.
- 5, 6 코지테임은 쿠킹 클래스를 통해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를 선보인다.

자연이 가꾼 건강한 식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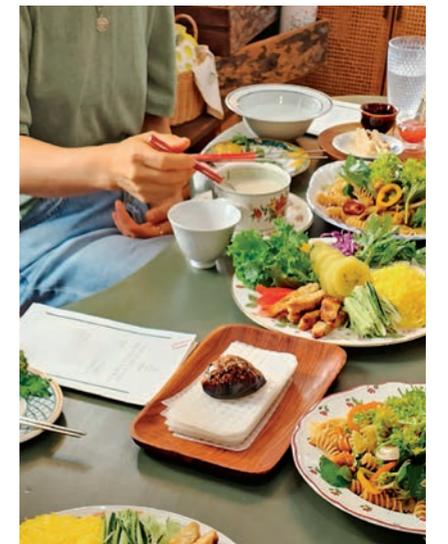
감잎공방 · 코지테임

청도의 대표 특산물인 감은 나무의 특성상 키울 때 비교적 손이 덜 간다. 다만 농약이나 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자연 농법을 고수한다면 열매를 온전히 지켜 내기 어렵다. 퍼머컬처 농장인 '지구 한 모퉁이'가 지난 7월 브런치 카페를 오픈하며 감나무 열매가 아닌 잎에 주목한 이유다. 무농약 재배 감잎을 말리지 않고 갈아서 베이글과 스콘에 활용하는데, 감잎 특유의 은은한 향이 멧돌에 제분한 통밀의 고소한 맛과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무엇보다 '땅과 식탁 사이의 정직한 연결'을 추구하는 감잎공방의 여정에는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연의 순환 방식을 받아들이는 퍼머컬처의 정신이 담겨 있다. 이번에 선보인 메뉴를 시작으로 감잎을 활용한 파스타, 솔밥 등의 요리도 꾸준히 개발할 계획이다. 감잎공방이 감나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제안한다면, 2022년에 창업한 코지테임은 좀 더 다양한 지역 식재료를 발굴해 각종 소스와 쿠킹 클래스로 선보였다. '더 많은 사람이 건강한 맛에 길들여지도록 돕고 싶다'는 것이 강민구 대표의 바람이다. "건강한 음식은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직접 만들고 맛보면 인식이 바뀔 거란 믿음으로 쿠킹 클래스 '길들임 식탁'을 시작했죠. 원칙은 저염, 저당 그리고 지역의 제철 식재료입니다." 현재 코지테임은 10월 재오픈을 목표로 공간을 옮겨 새로운 챕터를 준비 중이다. 썸장, 고추장 등 발효 과정을 통해 감칠맛을 살린 기존의 저염·저당 제품 외에 감과 복숭아 같은 특산물을 활용한 소스를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 감잎공방 경북 청도군 화양읍 북문길 1
코지테임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도주관로 200(10월 오픈 예정)



5



6



1



3

청도 동쪽을 감싸고 있는 운문산은 수려한 경관으로 이름 높지만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려 1500년을 이어 온 불교문화의 보고이자 유서 깊은 화랑정신의 발상지인 것. 신라 진평왕 시절 두 화랑이 원광법사를 찾아가 세속오계의 가르침을 받은 장소가 청도 운문산 인근의 사찰이다. 2018년 운문산 자락에 문을 연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은 세속오계의 화랑정신을 담은 복합 문화 공간이다. 산과 호수가 만나는 드넓은 초지 위로 다양한 레포츠 시설이 자리하는데, 단순한 액티비티를 넘어 화랑도와 풍류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수련 공간이라는 점이 더욱 인상 깊다. 화랑수련장을 찾아가 가볍게 체력을 단련할 수도 있고, 국궁장에서 전통 활쏘기에 도전하거나 VR 체험 존에서 승마, 검술, 궁술을 게임 형식으로 즐길 수도 있다. 액티비티 마니아들이 손꼽는 화랑 체험의 백미는 화랑촌 너머에 자리한 스카이트레일과 짚roller코스터. 각각 2023년과 2024년에 추가한 익스트림 시설인데, 특히 118개 코스로 이뤄진 4층 높이의 스카이트레일은 '보기보다 훨씬' 짜릿하고 스릴 넘친다는 후기가 쏟아진다. 좀 더 여유롭게 풍경을 감상하고 물소리, 바람 소리도 들어 가며 액티비티를 즐기고 싶다면 유희리와 신도리의 옛 철길을 따라 조성한 청도레일바이크를 권한다. 2~4인승 바이크를 타고 산과 들을 가로지르는 왕복 5킬로미터의 라이딩 코스는 혼자보다 여럿일 때 더 잊지 못할 여정을 만들어 준다.

📍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화랑길 1
청도레일바이크 경북 청도군 청도읍 하지길 46-51

4



1 곡선, 오르막, 360도 회전, 수평 구간 등 다양한 코스를 갖춘 짚roller코스터.
2, 5 화랑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청도신화랑풍류마을.
3, 4 청도의 대표적인 테마파크 관광지로 꼽히는 청도레일바이크.
6 국내 최대 규모의 스카이트레일, 미니 집라인과 번지점프 등 스릴 만점 코스로 가득하다.

6



2

스릴과 힐링 사이
청도신화랑풍류마을 · 청도레일바이크



5





1

오늘날 슬한 농촌 지역의 공통적 난제는 소멸 위기일 것이다. 인구 감소와 인프라 부족 현상은 늘 견고하게 맞물려 있고, 어떤 해법이든 지역 안쪽까지 고르게 영향을 미치기란 쉽지 않다. 인구가 적을수록,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촘촘한 마을 커뮤니티가 필요한 이유다. 청도 화양읍에 자리한 다로리 마을과 카페 다로리는 그런 의미에서 유독 눈에 띈다. 11년 전 대학 선후배 가족들과 함께 다로리에 정착한 서삼열 대표는 이곳에서 아이를 키우며 점차 마을 안팎의 여러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비어 있던 옛 보건진료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2022년 카페 다로리를 오픈하고, 이를 거점으로 사회적 기업을 꾸려 마을 공동체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이어 나갔다. 카페 다로리의 비전은 크게 두 가지다. 지속적인 마을 단위의 공동 사업을 통해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 그리고 학령기 인구 유입을 유도해 학교를 지속시키고 마을의 쇠락을 막는 것. 카페 2층 커뮤니티 공간에서 시작해 군 단위 프로젝트로 확장된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이 대표적 결과물이다. 올해부터는 빈집 10채를 모아 '다로리 마을 호텔'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8채는 장·단기 스테이 및 게스트하우스로, 2채는 영화관과 서점으로 구성했는데, '경험의 가치를 누리는 곳'이란 콘셉트에 걸맞게 주민들과 함께하는 마을 경험 클래스도 준비 중이다. "다로리는 모든 세대가 거주하는 마을이거든요. 각 세대별로 필요한 교육과 돌봄이 전부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 경북 청도군 화양읍 다로길 58

변화의 시작은 공동체로부터
카페 다로리

2



3



5

4



6



1, 2 지역민의 삶이 담긴 벽화를 구경하며 타박타박 산책하기 좋은 다로리 마을.
3, 6 다로리 마을 공동체의 거점인 카페 다로리. 1층은 로컬 카페로, 2층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한다.
4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폭넓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서삼열 대표.
5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우리동네홍시라떼'.



1

1 연꽃이 하나둘 피어나는 유등연지의 아침. 사방에 그윽한 향이 감돈다.
2 청도의 과거와 현재를 만날 수 있는 청도읍성. 고즈넉한 정취 덕분에 사진 명소로도 손꼽힌다.
3 자연과 한몸처럼 어우러진 운문사. 특히 입구부터 시작되는 솔바람길은 숲속의 청량함을 만끽할 수 있는 산책 코스다.



2

산책에 부르는 풍경
청도읍성 · 운문사 · 유등연지



3

청도 구석구석을 돌며 활기찬 로컬 문화를 체험했다면, 이제는 자연과 역사가 빚어 낸 풍경을 따라가며 느긋한 산책을 즐길 차례다. 첫 번째 목적지는 시대를 넘나들며 다양한 삶의 자취를 감상할 수 있는 청도읍성. 성곽을 기준으로 안쪽에 주민 생활 공간과 도주관, 동헌 등 행정 시설이 있고, 성 밖에는 향교, 석빙고, 형옥 등이 자리한다. 성곽은 고려 시대부터 축성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물오른 꽃과 수목이 오래된 돌담길과 어우러져 고풍스러운 정취를 자아낸다. 운문사 북쪽 기슭에 터를 잡은 천년 고찰 운문사도 산책 애호가들의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다. 솔바람길의 아름다리 노송 군락과 맞닿아 있는 고즈넉한 사찰 풍경이 사계절 다른 빛깔로 여행자의 오감을 사로잡는다. 신라 시대 화랑정신의 발원지이자 <삼국유사>의 출발지인 만큼 역사적 깊이도 남다른 데다 최근 운문사가 소장한 목판 4건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되었다. 만약 여름철에 청도를 찾았다면 포기하기 힘든 또 하나의 산책 코스는 유등연지다. 연으로 뒤덮인 약 6만 8000제곱미터 규모의 저수지로, 조선 시대에 무오사화를 피해 온거 중이던 모헌 이육이 연을 심고 군자정을 세워 지금의 모습을 이루었다고 한다. 6월 중순부터 연꽃이 피기 시작해 7~8월경 절경을 이루는데, 특히 이른 아침에 가면 가장 싱그러운 연꽃의 향연을 마주할 수 있다. 돌레길을 천천히 거닐다 정자에 누워 만끽하는 선선한 바람과 그윽한 연꽃 향은 여름 산책의 고단함을 씻어 내기에도 충분하다.

❶ 청도읍성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동상리 48-1
운문사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유등연지 경북 청도군 화양읍 연지로 207

no.08

CHEONGDO



유천문화마을 ·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홍시생활

와인터널

감잎공방 · 코지타임

청도신화랑풍류마을 · 청도레일바이크

카페 다로리

청도읍성 · 운문사 · 유등연지

WRITER 류현경(여행 칼럼리스트) · PHOTOGRAPHER 전재호

제작 지원 청도군청

지금 여기

멸종된 도도새를 그리는 김선우 작가 | MMCA의 뉴미디어 소장품전 '아더랜드' 시리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나는 조선 시대 미술의 정수 | 전통 꿀에 천연 재료를 더한 전북 전주의 워커비
무더위 날리는 서울 이색 쉼터 | 감성 가득한 강원도 강릉 여행



화가 김선우의 도도새와 새鳥상 여행

스스로 날기를 포기한 도도새는 포식자가 나타나자 지구에서 자취를 감췄다. 사회가 정한 틀에 갇혀 자유롭지 못했던 김선우 작가는 멸종된 도도새를 찾아 날개를 달아줬다. 이제 작가의 그림 안에서 되살아난 도도새가 김선우 작가를 자유롭게 한다.



먼저 말을 건넌 건 김선우 작가였다. 서점을 서성이다 낮익은 그림이 그려진 책을 한 권 발견했다. '도도새 작가라 불리는 김선우의 에세이 <랑데부>였다. 작가 앞에 그림자처럼 드리운 '무명'이란 수식을 떼어 내고, 도도새를 만나 전업 작가가 되는 과정을 여행에 빗대어 표현한 글로 시작되는 에세이였다. 조심스럽게 그가 건네는 이야기 안으로 들어갔다. 자기소개서 같기도 하고 작품 해설집 같기도 한 에세이에서 작가는 자신이 가진 모서리(에민함)를 모나지 않게 지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또 그가 학창 시절부터 새를 그렸고 여행을 좋아한다는 사실,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새 인간과 도도새의 운명적 만남

김선우 작가는 지금 대한민국 미술 시장에서 가장 '폼'이 좋은 젊은 작가 중 하나다. 젊은 컬렉터들이 줄 서서 구매한다는 도도새 연작은 2019년 경매에서 540만 원에 거래됐지만, 2년 새 20배 가까이 올라 2021년 경매에서 1억 1500만 원에 낙찰된 바 있다. 작가가 도도새를 만난 과정은 성장 소설의 서두 같다. 2014년 겨울, 김선우 작가는 졸업 전시를 마치고 냉기가 감도는 실습실에 앉아 조금한 마음으로 공모전에 낼 지원서를 작성했다. 작가가 계획한 여행을 실현해 준다는 과격적인 부상이 걸려 있었다. 그때까지 작가는 새를 그리고 있었다. 인간의 몸통에 새의 머리를 가진 '새 인간'이다. 자유로운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사회가 정해 놓은 틀에 갇혀 살아야 하는 갑갑한 현실을 자유로운 새가 날개를 잃고 인간의 몸속에 갇힌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첫 개인전 제목 역시 <새鳥상>이었다. 작가는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도도새에 대해 알게 됐다.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에 살던 도도새는 천적이 없는 평화로운 환경에서 날아다닐 필요가 없었고, 그렇게 스스로 날기를 포기했다. 날지 못하는 새로 퇴화한 도도새는 결국 인간의 구분별한 포획으로 17세기 말에 멸종했다. 스스로 날기를 포기한 도도새는 김선우 작

가가 그려 온 새 인간과 닮았다. 도도새의 운명에서 현대인의 모습을 발견한 작가는 도도새가 아직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한 달 동안 도도새의 흔적을 찾아 헤맨다는 여행 계획을 제출했고, 이것이 당선되어 2015년 모리셔스로 떠났다. 이 경험은 작가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김선우 작가는 그림에 도도새와 함께 자유와 가능성, 포기하지 않는 삶에 대한 메시지를 담기 시작했다. 햇불을 들고 어둠을 밝히거나 배를 타고 표류하고, 평화롭게 누워 풍류를 즐기거나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등 작가의 그림 안에서 도도새는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인간의 몸에 갇혀 있던 작가도 도도새를 만나 그림 안에서 자유를 찾아 떠나는 여행자로,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탐험가로 살고 있다.

현대인의 자화상이 된

도도새

현실에 안주하며 꿈과 자유, 개성을 상실해 가는 현대인의 자화상을 도도새에 투영하고, 멸종된 도도새를 작품 속에서 다시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그리며 꿈과 희망을 잃지 말자고 전하는 작가의 메시지는 미술 평론가와 컬렉터 그리고 관람객의 마음을 움직였다. 작가는 2016년 젊은나래청년작가상, 2018년 아트인블록 크리에이티브 콘테스트 장려상, 2019년 삼성 BESPOKE 랑데부 디자인 공모전 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불가리, 스타벅스, 테라맥주, 리카솔리 와이너리, 가나초콜릿 등의 브랜드에서 러브콜을 받았고, 협업 작품은 출시될 때마다 완판을 기록했다. 그렇게 도도새는 멸종한 새가 아닌 작가 자신이자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 됐다.

김선우 작가는 매우 규칙적으로 생활한다. 매일 오전 5시 작업실에 출근해 12시간 이상 작업한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예술 공무원'이라고 부를 정도다. 사람들은 창작자의 감각이나 재능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인간을 다음 단계로 성장시키는 것은 성실함이다. 성실함의 근원은 불안이라고 말하는 김선우 작가를 서울 이화동 작업실에서 만났다.

오는 9월에 도쿄 긴자의 쓰타야 서점에서 열리는 개인전 <Omnibus of Dodos>를 위해 제작한 신작. 일본 관람객이 도도새를 친밀하게 느끼도록 일본의 유명 화가가 쓰시카 호쿠사이의 대표작을 모티브로 삼아 작업했다.



'Epic Voyage to the Island', gouache on canvas, 162x130cm, 2025



1 'Sunday Afternoon on the Island of Mauritius', gouache on canvas, 130X162cm, 2019



4



5

1 2021년 9월 서울옥션 홍콩 경매에서 1억 1500만 원에 낙찰된 '모리셔스 섬의 일요일 오후'. 2 김선우 작가의 대표작 'Daydream' 'The Wishers' 'In Full Bloom' 에서 영감받아 제작한 스타벅스 아트 콜라베이션 굿즈. 3 오전 5시부터 작업실에 나와 매일 12시간 넘게 작업하는 김선우 작가의 별명은 '예술 공무원'이다. 4 구아슈와 드로잉, 조각, 도자, 피겨 등 매체를 넘나드는 작업을 한다. 5 작업실 벽에 붙여둔 드로잉 작업은 구아슈 작업과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6 복층 작업실 2층에 있는 피겨는 가나초콜릿 창립 50주년 특별전에서 선보인 작품으로, 아프리카 정글에서 최상급 카카오를 쫓는 도도새의 여정을 담았다.

인간의 몸에 간혀 있던 작가도도도새를 만나
그림 안에서 자유를 찾아 떠나는 여행자로,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탐험가로 살고 있다.



2



3



6

에세이 <랑데부>를 읽고 내적 친밀감이 최대치에 달한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일기를 썼어요. 요즘은 블로그에 비공개로 저만 볼 수 있게 쓰곤 하죠. 에세이도 거기서 발췌한 글을 모아 편집한 거예요. 책을 쓰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나를 세상에 보여 주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쓰면서 외려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부서지기 쉬운 나약한 존재인데, 강한 체하면서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한 거죠.

약한 면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글쓰기는 작업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작업을 설명하는 설명서이자 변호 장치예요. 작품 해석과 감상은 관람객의 몫이지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변호를 해 주는 수단인 거죠. 작가의 생각을 약속된 언어로 전달하면서 관람객에게 말을 거는 것과 같아요. 동시에 작업 과정이기도 해요. 저에게 글쓰기는 파편처럼 존재하는 생각을 모으고 다듬어 구체화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제 마음을 알아채고 이해하는 거죠. 미술은 형태 없는 생각에 형태를 부여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글쓰기는 저에게 문자로 쓴 드로잉이라 할 수 있어요.

별명이 '예술 공무원'이라면서요.

부모님은 제가 안정된 직업을 갖길 원하셨어요. 작가의 길을 택했을 때 부침이 많았죠. 학교를 휴학하고 학습지 회사에서 삽화 그리는 일을 했었고, 부모님 권유로 교육학 석사 학위도 취득했어요. 그런데 제 길이 아니더라고요. 작가의 길을 확신한 것도 아니었어요. 성실하게 노력한다고 해서 보상이 따르는 직업이 아니니까요. 이름이 제법 알려진 지금도 여전히 불안하고 내일의 나를 알 수 없어요. 규칙적인 생활은 불안을 다스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해요.

새와 자유, 모두 오래된 화두였군요.

작가가 오랫동안 작업을 지속하려면 삶을 관통하는 주제를 찾아야 해요. 종종 사람들이 '언제까지 도도새만 그릴 거냐고 물어요. 여러 의도가 있겠지만, 한 가지 작업만 하는 것이 지루하지 않냐는 이야기일 거예요. 누군가는 도도새만 그리는 제 작업이 진부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오랫동안 고민했던 주제, 제 삶의 화두와 일치하기 때문일 거예요.

11년째 도도새를 그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주제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멸종된 도도새의 운명에서 현대인의 모습을 발견했고, 이 상징적인 존재를 통해 꿈과 자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굳이 변화를 찾자면, 작품 주제와 배경에 따라 도도새가 여행한 영토가 넓어졌다는 정도일 거예요. 물리적 장소뿐 아니라 여러 브랜드와 협업하면서 도도새가 다니는 영토 자체가 엄청 넓어졌죠. 저에게도 변화가 있어요. '사회는 사람들을 똑같이 제조하는 공장이고, 사람들은 부품 같다'는 생각을 전하기 위해 시작한 작업이니 초기에는 매우 전투적이었어요. 하지만 도도새를 그리면서 저의 뾰족하고 날카로운 마음이 뭉툭해졌어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도도새를 찾아 모리셔스를 탐험한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원래 여행을 좋아했나요?

어릴 때 꿈은 여행 칼럼니스트였어요. 초등학교 때는 세계 지도를 보면서 낯선 곳을 상상하곤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방송국에서 '청소년 시베리아 탐험대'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부모님 몰래 지원했는데 뽑혔어요. 초등학교와 중학생 8명으로 구성된 탐험대가 시베리아 오지를 탐험하는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게 된 거죠. 일반 여행자가 접근할 수 없는 보호구역에 들어갔고, 원주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배웠어요. 며칠 지나자 집에 가고 싶다고 우는 아이들이 생겼는데, 저는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어 며칠 더 있고 싶었어요. 대학생 때는 교환학생으로 유럽을 갔고, 틈만 나면 이웃한 나라와 도시를 여행했어요. 졸업 후에도 시간이 생기면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행하는 직업을 갖고 싶었는데, 작가가 되어 여행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여행이 작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요.

레지던시 작가로 선발되면 그림 도구를 들고 다니며 정말 성실하게 예술 공무원처럼 여행하며 그림을 그려요. 목적 없



이 떠난 여행에서는 주로 글을 쓰고요. 가끔은 나에게 왜 여행이 필요한지 생각해 봐요. 저는 예민한 사람이고 작업하면서 굉장히 날카로워지는데, 여행을 하면 너그러워져요. 뾰족하고 날카로웠던 면이 둥글게 다듬어지는 느낌이에요. 내가 겪는 상황이나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 모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관용이 생긴다고 해야 할까요.

작품은 귀엽고 평화로운 분위기인데, 의외네요.

과정까지 평화로울 순 없으니까요. 거대한 빈 캔버스 앞에 서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빈 화면을 채우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그림 그리는 일은 고통인데, 고통의 원인은 제가 완전히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작업 과정은 정신 수양에 가깝고, 하고 싶은 이야기로 조금씩 캔버스를 채우면서 마음을 보듬어요. 전시를 앞두고는 더 예민해져요. 평가받는 자리니까요. 그래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작업실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되도록 느리게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러닝을 하는 이유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숫자로 나오기 때문이고, LP를 듣는 이유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 취향을 훑쳐가나의 취향이라고 알려주는데 대한 반발감 때문이에요.

하반기 전시 스케줄이 뽐뽐하다고 들었습니다.

7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현대미술 기획전 <그리고, 하루(The Days We Draw)>에 참여하고, 8월에는 타이베이의 소카아트(Soka Art) 갤러리에서 첫 해외 개인전 <Beyond the Map>을 열어요. 9월에는 도쿄 긴자의 쓰타야 서점에서 개인전 <Omnibus of Dodos>를, 10월에는 제주도에서 개인전 <수관기피>를 열 거예요. 각기 다른 주제로 작업한 신작을 선보일 예정이에요. 도도새가 한국을 떠나 낯선 세상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지켜봐 주세요.

논픽션 시네마 극장

물놀이 인파로 붐비는 서울랜드 옆 '아더랜드'라는 또 다른 세상. <아더랜드 II: 와엘 샤키, 아크람 자타리> 전시가 열리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은 울여름 한시적 극장이 된다.



오페라극장처럼 푸른 핑크색 공간에서 상영하는 와엘 샤키의 <드라마 1882>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매시 30분에 시작한다. © 국립현대미술관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카운트다운 숫자가 0이 되면 마침내 화면의 커튼이 걷히고 배우들이 등장한다. 마치 웅장한 오페라 공연처럼 말이다. 무대 세트는 종이로 만든 왕국처럼 아름답고 회화적이다. 배우들은 대사를 노래로 대신한다. 19세기 말 이집트에서 일어난 '우라비 혁명' 과정을 총 8장의 오페라 형식으로 구성한 와엘 샤키의 <드라마 1882>는 지난해 베니스에서 공개된 후 모든 에디션이 빠르게 팔렸다. MMCA의 소장품은 그중 다섯 번째 에디션이다. 제국주의 열강에 맞선 우라비 대령의 저항은 실패한 혁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이 촉발한 앵글로-이집트 전쟁 이후 이집트는 무려 70여 년간 영국의 식민 지배에 놓였다. 하지만 어디까지 사실일까? 기록된 역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진실은 무엇인가? 영화는 당시 수에즈운하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이집트의 당나귀꾼과 몰타인 사이의 다툼을 통해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오랜 시

간 서구 중심의 관점에서 기술된 중동의 역사와 신화에 질문을 던진다. 와엘 샤키는 신화적이고 역사적인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업을 지속해 왔다. 그는 고전아랍어로 극본을 쓰고 무대미술과 연출은 물론 작곡까지 직접 해결한다. 이러한 작업은 모두 작가 자신의 뿌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1971년 북부 이집트에서 태어난 그는 이슬람의 성지 메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수수께끼로 가득한 고대 문명사회의 유적과 가장 성스러운 도시를 오가며 살았던 셈이다. 시대적으로는 서구 대중문화가 홍수처럼 쏟아져 사막 전역에 범람하던 1980년대였다. 창밖으로는 신자들의 성지 순례(Hajj)가 이어지고 텔레비전에서는 왓카지결한 미국식 코미디쇼와 프로레슬링 경기가 벌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한 인터뷰에서 그는 "메카에서는 맨발로 캐딜락을 운전하는 베두인 남성과 당나귀를 타고 있는 그의 아들을 볼

4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서 뜨거운 사막을 건너온 사내들이 있다. 아랍 출신의 두 작가 와엘 샤키와 아크람 자타리는 요즘 미술계에서 가장 핫한 이름이다. 지금 국립현대미술관(MMCA) 과천에서는 이들의 국내 미공개 작품이 절찬 상영 중이다. MMCA의 뉴미디어 소장품을 소개하는 <아더랜드 II: 와엘 샤키, 아크람 자타리>다. 2645제곱미터(약 800평) 규모의 과천 1원형전시실 내 상영작은 단 두 점. 미술관은 오직 이 둘을 위한 특별한 극장을 만들었다. 상영관 내부는 화면 속 영상의 일부처럼 재현되었으며, 객석 의자까지 통일된 시각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마치 실험 무대극을 보는 것 같다. 각 작품의 러닝타임은 제법 길다. 지난해 베니스 비엔날레 최고 화제작 중 하나로 이집트 국가관 앞에 긴 줄을 서게 했던 와엘 샤키의 <드라

마 1882>(2024)는 약 48분, 레바논을 대표하는 아크람 자타리의 <거부하는 조종사에게 보내는 편지>(2013)는 약 36분으로, 영화관을 찾은 때처럼 시간 여유를 두고 보는 게 좋다. 두 작품은 꼭 100년의 시간차를 두고 1882년의 이집트와 1982년의 레바논으로 관객들을 데려간다. 그곳에서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흡인력 있는 서사와 감각적 구성으로 흥미롭게 재해석한 이 작품들은 낯선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일제 강점의 역사나 국내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묘한 기시감을 불러온다. 오전 10시 조조 영화부터 객석은 만원이었다. 아쉽지만 콜라와 팝콘은 반입 금지다.

와엘 샤키의 파스텔 톤 오페라

핑크색 카펫과 커튼으로 둘러싸인 비밀스러운 공간.





와엘 사키, <드라마 1882>, 2024,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48분 16초, ed.5/7,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종교 경찰이 있는 보수적 사회에서 다국적 사람들과 다른 문화, 서로의 이해관계가 부딪혔다. 이러한 융합될 수 없는 체제 간 모순은 상당 부분 그의 언어와 예술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는 영상, 회화, 조각, 공연, 음악 등 다양한 매체를 혼합해 알려진 사실에 예술적 허구를 더하고, 이종(異種)의 세계가 뒤섞인 이야기를 만든다. 제목처럼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 <드라마 1882>는 실제 사건을 다루지만 분위기는 초현실적이다. 촬영과 리허설은 모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오래된 극장 '모하메드 압델 와하브'에서 진행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파스텔 톤으로 예쁘게 포장된 무대 위에서 한편의 동화가 되고,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움직이는 배우들의 과장된 몸짓은 우스꽝스럽고 기묘하다. 작가는 진짜 같은 가짜의 구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그는 가짜 같은 가짜 무대를 만드는 데 공을 들이고 전문 배우 대신 아이들을 기용하거나 배우들에게 가면을 씌움으로써 이야기의 객관적 실체를 기계적으로 드러낸다. 여기에서 영화라는 형식은

실제 상황과 재현 무대, 현실 사이에 거리를 형성하고, 스크린은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한다. 그는 묘사로서의 회화를 거부한 독일 화가 게르하르트 리히터가 사진에 기반한 회화 제작을 통해 순수한 실제 세계를 드러냈던 것처럼 영화를 이용한다. <드라마 1882>는 이례적으로 배우들의 얼굴을 보여 주지만 그들은 모두 무표정하다. 변색된 기억, 혹은 꿈과 같이 실제보다 더 환상적으로 묘사된 이 별나고 이상한 이미지들은 역사의 불확실성을 상기시키며, 작가는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 새로운 해석을 창조한다.

아크람 자타리의 홈 비디오

또 다른 상영관에서는 상층이 흘러나온다. 1960~1970년대를 풍미한 패셔니스타 프랑수아즈 아르디가 멜랑콜리한 목소리로 세르주 갱스부르가 써준 가사를 읊조린다. “어떻게 너에게 이별을 말할까?(Comment te dire adieu?)” 한때 드라마와 광고에 단골로 삽입되었던 익숙한 노래는 오래된 필름 같은 흑백 화면과 만나 낭만적인 감성을 더한다. 영상 속 교



1982년 무더운 여름, 전쟁이 한창이던 레바논 남부의 어느 소도시에서는 한 이스라엘 조종사에 관한 동화같은 소문이 떠돌았다.



아크람 자타리, <거부하는 조종사에게 보내는 편지>, 2013, 영상 설치, 단채널 영상(X2), 컬러, 사운드/무음, 빈티지 의자 1개, 스툴 8개, 영상: 35분 58초, 1분 20초, ed.5/7,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복을 입은 소년들은 어느 건물 옥상에서 종이비행기를 접어 날리고, 조용한 바다에서는 폭죽처럼 폭탄이 터진다.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 아크람 자타리의 <거부하는 조종사에게 보내는 편지>다. 전쟁은 자타리가 아홉 살이던 1975년에 시작되어 15년간 이어졌다. 1966년 레바논 사이다에서 태어난 그는 베이루트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뉴욕에서 미디어 연구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에는 19세기 말부터 중동에서 제작된 약 15만 장의 초상사진을 모은 사진 유산 공개 협회 '아랍 이미지 재단(AIF)' 설립에 참여했다. 영화는 당시 그가 살았던 레바논 남부 소도시에서 떠돌던 소문에서 출발한다.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 하나가 사이다 외곽의 건물을 폭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게 학교라는

사실을 알고는 학교 대신 인근 바다에 폭탄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얼마 후 학교는 또 다른 조종사에 의해 폭파되었지만 이 소문은 평화로운 일상의 회복을 바라던 이들에게 희망의 단서가 되었다. 자타리의 아버지는 이 학교 교장이었다. 집에 갇혀 온종일 카메라와 녹음기를 갖고 놀았던 그는 이 이야기에 매료되어 형과 함께 폐허가 된 현장을 찾아 사진을 찍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그는 레바논의 역사와 사회적·정치적 문제를 기록하는 작가가 되어 당시의 내용이 포함된 책을 출간했다. 이를 계기로 자타리는 '명령을 거부한 조종사가 실존 인물이었음을 알게 되고, 그를 직접 만난다. 여러 사람의 운명과 숙명, 우연이 겹치며 완성된 거짓말 같은 실화다. 윤리적 갈등 속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무고한 생명을 구한 작은 영웅들의 서사가 지닌

힘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곳에서도 유효하며, 우리 역시 그러한 이들을 알고 있다. 부당한 명령에 불복한 군인들, 권력에 대항한 사람들... 두려움에 맞서 싸운 평범한 개인의 선택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때로는 역사를 바꾸는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지켜보았다.

작가는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의 가치를 묻는 알베르 카뮈의 작품 <독일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제목을 따오면서 <어린 왕자>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필름과 사진을 한 편의 영화로 묶었다. 상영관에는 '거부하는 조종사에게 보내는 편지' 외에도 폭격 당한 도시 사진으로 전쟁의 흔적을 보여주는 '1982년 6월 6일, 사이타'라는 영상이 객석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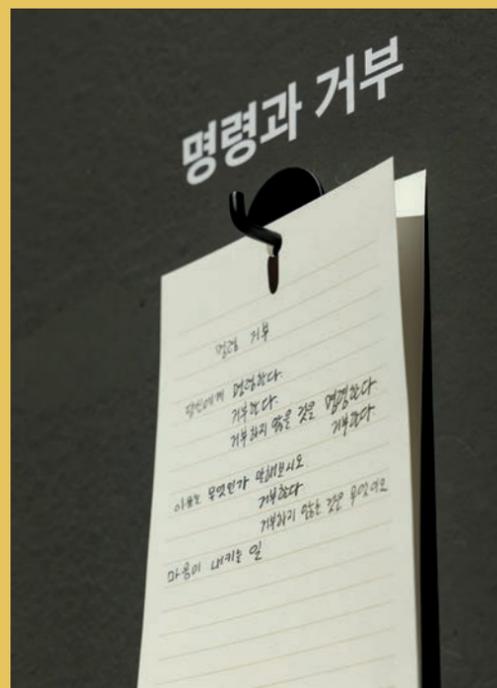
며 배치된다. 옛날 텔레비전 앞에 놓인 붉은색 일인용 소파에는 누구나 앉을 수 있다. 영상의 흐름에 따라 실내 조명도 연동되어 더욱 영화관 같은 분위기다. 작가는 사진 아카이브와 필름 제작을 통해 집단의 기억을 재평가하고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을 돌아보게 한다. 공식화된 역사와 야사, 사담, 공적인 역사와 사적인 이야기 사이의 위계는 허물어지고 현재는 새롭게 쓰여진다. 영화는 미술관이 문을 닫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8월 17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진다. 입장료는 3000원. OTT 서비스 구독료보다 저렴하다. 오랜만에 극장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보자. 물놀이 인파로 붐비는 서울랜드 옆 아더랜드라는 또 다른 세상. 꽤 괜찮은 피서지가 될 것이다.

+
한 걸음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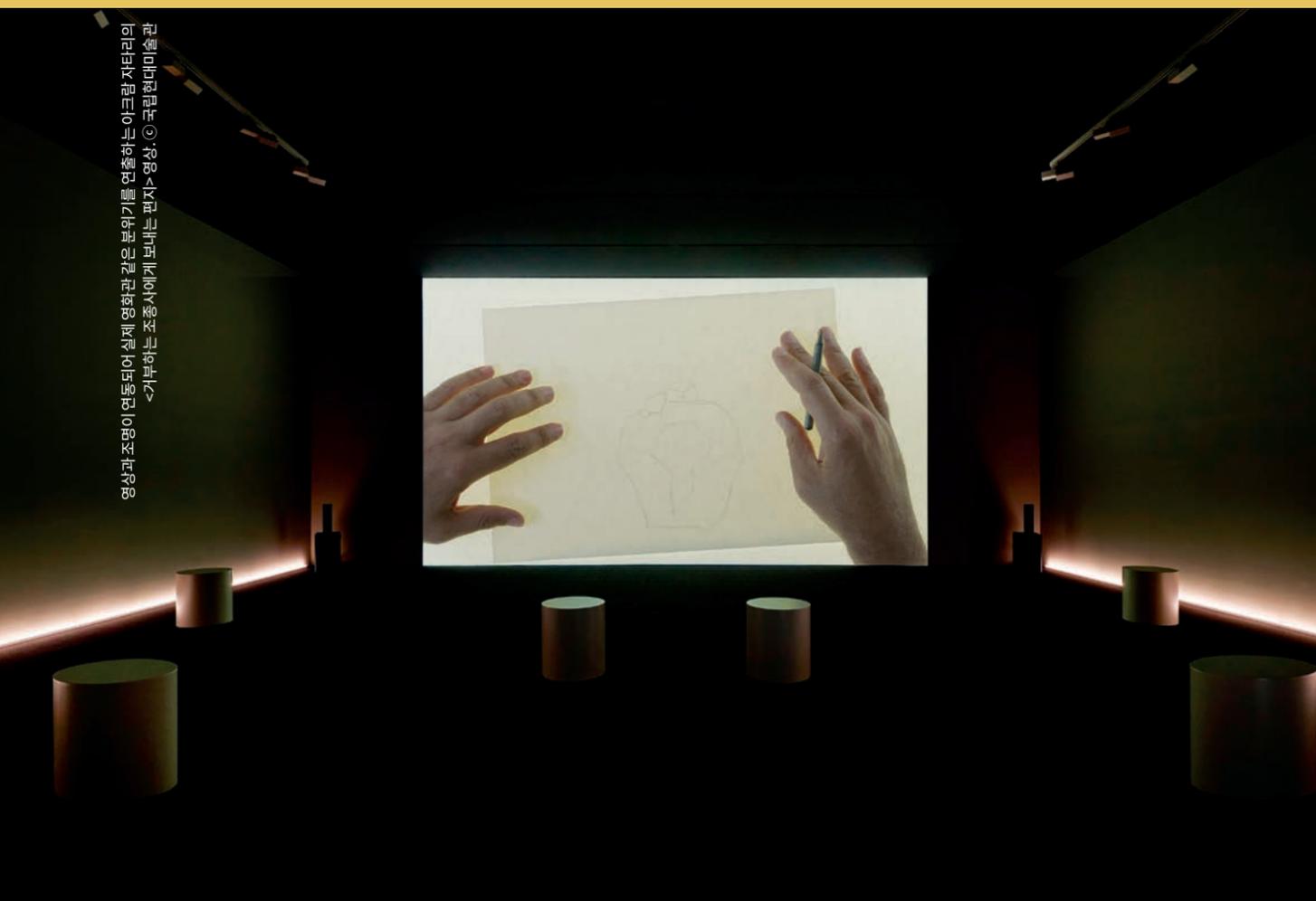
극장의 인포메이션 데스크처럼 꾸민 MMCA 과천 1원형전시실 중앙 로비에는 작가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가 있다. 중세 이슬람 세계와 서구 기독교 국가사이의 갈등을 꼭두각시 인형극으로 만든 <십자군 카바레> 3부작(2010~2015)은 와엘 샤키의 주요 작품 중 하나다. 작가는 최근 한국의 판소리와 전래 동화를 소재로 한 <러브스토리>(2024)를 선보이기도 했다. 2018년 MMCA 서울에서 열린 개인전 <아크람 자타리: 사진에 저항하다> 도록과 <거부하는 조종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처음 공개한 2013년 베니스 비엔날레 레비논관에 비치되었던 팸플릿도 볼 수 있다. 관객들은 조종사에게 편지를 쓰거나 다른 이들의 편지를 읽을 수도 있다. 전시를 기획한 전유신 학예사에 따르면 이 편지의 내용은 작가에게 전달되며, 준비 중인 작가의 책에 실린다고 한다.



공식화된 기록과 야사,
공적인 역사와 사적인 이야기 사이의
위계는 허물어지고
현재는 새롭게 쓰여진다.



관객들은 글이나 그림으로 명령을 거부한 영화 속 조종사에게 편지를 남긴다.



영상과 조명이 연동되어 실제 영화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크림 자타리의 <거부하는 조종사에게 보내는 편지> 영상. © 국립현대미술관





‘홍치’가 쓰여진 백자 청화 소나무·대나무무늬 항아리, 조선 15세기,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국보

새 나라 새 미술: 조선 전기 미술 대전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시작과 함께 꽃핀 15-16세기 미술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기회. 지금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규모 특별 전시 <새 나라 새 미술: 조선 전기 미술 대전>이 열리고 있다.

자료 및 사진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조선 건국 이후 200여 년간을 이르는 조선 전기는 오늘날 우리 문화의 중요한 바탕이 형성된 시기다.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내세우며 보편화된 유교적 가치관과 생활 규범은 오늘날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시기에 만든 훈민정음은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통 체계이자 시각 매체다. 이처럼 한국 문화 형성에서 중요한 시기에 미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국보부터 국외 소장품까지, 최대 규모 특별전 그동안 조선 후기 미술과 비교하면 조선 전기 미술의 면모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조선 후기에 비해 현존 작품 수가 적으며, 주요 작품 중 다수가 국외에 있어 접하기 어려운 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러나 이 시기 미술에는 새 나라 건설이라는 커다란 변화 속에서 주목할 만한 혁신과 변화가 있었고, 이때 형성된 특징과 미감은 한국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전시는 새 나라 조선 이후 전개된 미술의 주요 흐름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우선 규모부터 방대하다. 국내외 72개 기관이 소장한 691건의 전시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조선 전기 미술을 다룬 전시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국외에 상당수 전해지는 조선 전기 미술품을 만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다.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 5개국 24개 기관에서 40건을 출품했으며, 이 중 23건은 최초로 국내에 선보이는 작품이다. ‘백자 청화 산수·인물무늬 전접시’ ‘십장생도’ ‘지장시왕도’ 등 그동안 연구자들에게만 알려졌던 작품을 처음으로 전시한다. 이 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이 2024년에 구입한 ‘산수도’와 2024년에 기증받은 ‘초서’를 최초로 공개한다. 국내 기관 출품작 중에서도 국보, 보물 등 지정문화유산이 80여 건에 달해 반짝이는 보물의 향연이 펼쳐진다.



'지장시왕도', 조선 1586년, 삼베에 색, 일본 스오코쿠분지 소장

© 周防国分寺



3부 '금(金), 변치 않는 기도를 담다' 전시실

한 공간을 조성했다. 길이 14미터, 높이 3미터의 벽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자 300여 건을 색의 변화에 따라 배치했다. 고려 말 상감청자에서 조선의 분청사기와 백자로 이어지는 도자의 변화 양상을 이전에는 없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다.

조선 전기 서화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 주는 작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송하보월도'는 조사 연구 결과 달과 매화를 붉은 안료로 채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일본 모리 박물관 소장 '산수도'는 예전에는 중국 작품으로 여겨졌지만 그간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조선 전기 작품으로 재평가되었다.

백, 목, 금으로 만나는 조선의 예술 세계

전시는 1, 2, 3부에 더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로 구성된다. 먼저 프롤로그 '조선의 새벽, 새로운 나라로'에서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발원해 금강산에 봉한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를 만난다. 새 나라를 세우기 직전 사리장엄에 담은 건국에 대한 열망과 다짐을 살펴본다. 1부 '백(白), 조선의 꿈을 빛다'에서는 국가 체제의 힘으로 견인한 조선 전기 도자 산업의 전모를 알아본다. 조선이 시작되면서 푸른 청자의 시대가 가고 분청사기와 백자의 시대가 펼쳐졌다. 이러한 도자 생산 기술의 발전은 오랜 도자 전통의 기반 위에 나라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실현될 수 있었다. 새하얀 모습을 구현한 도자 제작 기술의 절정과 그 위에 펼쳐진 시대의 미의식을 소개한다.

2부 '묵(墨), 인문(人文)으로 세상을 물들이다'에서는

조선 전기 사대부의 이상을 담은 서화를 선보인다. 조선 건국을 주도한 사대부가 애호한 그림과 글씨는 이 시대의 주된 시각 매체로 부상했다. 글씨와 그림에는 먹의 무궁무진한 표현력을 활용해 그들의 생각과 정서를 은유적으로 드러냈다. 먹색의 깊은 농담처럼 조선에 스며든 사대부의 가치관과 취향을 엿볼 수 있다.

3부 '금(金), 변치 않는 기도를 담다'에서는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 맞닿아 있던 불교미술을 조명한다. 불교미술은 오래전부터 귀한 재료인 금으로 장식했다. 유교 시대가 되었지만 불교는 정치적 명분이나 이념과 관계없이 왕실과 사대부,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까지 모든 조선 사람들의 기원과 바람에 언제나 응답하는 신앙이었다. 긴 시간 동안 잊히거나 사라지지 않고 자신을 장식한 금빛처럼 변하지 않는 기도를 담아온 불교미술을 살펴본다.

에필로그 '조선의 빛, 훈민정음'에서는 훈민정음을 소개하며 전시를 마무리한다. 훈민정음은 조선 전기의 수많은 문화적 창안 중에서도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연결되는 대표적 문화유산이다. 15세기 중반에 탄생한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 문화 발전의 핵심 요소로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나아가 미래로 이어진다.

2부 '묵(墨), 인문(人文)으로 세상을 물들이다' 전시실



'십장생도', 조선 16세기 후반, 비단에 먹과 색, 기메박물관 소장

© Grand Palais(rmn(MNAAAG, Paris)/GNC media, Seoul, 2025

<새 나라 새 미술: 조선 전기 미술대전>

장소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기간 8월 31일까지

창극부터 시 음악까지 뻗어 나가는 2025-2026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예술의 접근성과 다양성 확보에 앞장서는 공공 예술 기관 국립극장에서 '2025-2026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을 맞아 창극을 중심으로 한 세계음악극 축제와 한국 전통춤 축제를 새롭게 선보인다.

국립극장은 2012년부터 1년 단위의 공연 프로그램을 미리 기획해 공개하는 레퍼토리시즌을 운영해 왔다. 오는 8월 20일부터 내년 6월 2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시즌은 신작 25편, 레퍼토리 15편, 상설 공연 14편, 공동 주최 18편 등 총 72편으로 직전 시즌보다 작품이 21편 더 늘었다.

2025-2026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은 '함께, 더 멀리'라는 슬로건으로 국내외를 아우르는 축제를 연다.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와 '2025 대한민국 전통춤 축제'가 그것.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는 한·중·일 3개국의 전통 음악극을 한자리에 모은 무대로, 음악극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 준다. 국립무용단을 중심으로 전국 10개 국공립 및 지역 무용단이 함께 준비한 2025 대한민국 전통춤 축제는 한국 전통춤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춤의 미학을 표현한다.

이번 시즌을 맞아 전속 3개 단체가 준비한 신작도 주목할 만하다. 매 공연 매진 행렬을 이어가는 국립창극단은 세계 우수 오페라 프로덕션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연출가 요나 김과 함께 신작 <심청>을 공개한다. 판소리 '심청가'의 익숙한 서사를 뒤집고 심청을 주체적 인물로 그려 낸 점이 이색적이다. 국악 관현악에 로봇 지휘자, 이머시브 기술 등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도 주목 받은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이번 시즌에 인문학 콘서트 '공존(Survive)'을 준비했다. AI 작곡 기술과 협업한 창작곡을 선보이며, AI와 예술의 미래를 고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통의 근간을 되짚어 보는 공연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국립무용단의 <거장의 숨결>이 있다. 한국 창작 춤의 거장 조흥동, 배정혜, 김현자, 국수호의 대표작을 올린 무대는 한국 무용의 예술성과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INTERVIEW

박인건 국립극장장 인터뷰



이번 시즌 슬로건을 '함께, 더 멀리'로 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국립극장은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3개 전속 단체의 공연과 기획 공연을 직접 제작해 무대 위에 올립니다. 이외에도 다른 국공립 예술 단체나 민간 단체와 공동 주최해 다양한 스펙트럼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함께, 더 멀리'는 이러한 협력과 확장의 정신을 담은 슬로건입니다. 기초 예술에서 시작한 K-컬처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것처럼 국립극장도 함께 성장하며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국립극장은 차세대 예술가 육성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이번 시즌 공연에서 대거 만나볼 수 있다고요.

국립극장은 창작 기반 구축과 예술 생태계 확장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 왔습니다. '가치 만드는 국립극장'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의 '2025 작곡가 프로젝트', 국립창극단의 '창극작가 프로젝트 시연회', 국립무용단의 '2025 안무가 프로젝트'에서 전속 단체별 창작자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한 신진 창작자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립창극단의 창극 콘서트 '토선생, 용궁가다'(9월 25일~26일, 달오름극장)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청년교육단원 결과 발표회 '청풍국악(靑風國樂)'(12월 26일, 해오름극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교육단원 육성 사업을 통해 선발한 청년 예술단원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레퍼토리시즌을 관람할 분들에게 추천의 말을 전해주세요.

저는 극장 운영이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 무대에 서는 아티스트, 그리고 국립극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서비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늘 백화점이나 5성급 호텔의 서비스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객의 시선으로 서비스를 갈고닦은 덕분에 공연 횟수가 늘고 관객 점유율도 높아졌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수준 높은 공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 필드원 에어돔

오늘날 스포츠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다.

(주)필드원은 한국 스포츠 산업의 현재를 상징하는 기업으로, 최첨단 공간 솔루션 '에어돔'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엄기석 필드원 대표와 함께 에어돔이 그리는 앞날을 바라본다.

1,3 경북 경주에 들어선 스마트 에어돔은 스포츠 시설을 넘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다목적 공간이다. 2 엄기석 대표는 설치와 해체가 간편한 에어돔을 널리 보급해 사회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문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스포츠 산업계에서 필드원의 입지, 위상이 궁금합니다.

필드원은 '토탈 스포츠 디벨로퍼(total sports developer)', 즉 스포츠 산업 시설 총괄 사업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설 마감재 제조부터 기획, 설계, 시공,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보기 드뭅니다. 필드원은 2001년 창립 이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스포츠 시설 단일 분야만 연구한 전문 업체로 2000건 이상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해 왔으며, 스포츠 특허 50여 건을 비롯한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돔과 차세대 스포츠 플랫폼 LED 라인 변경 바닥재 등 신기술을 개발해 스포츠 공간의 혁신을 주도하고자 합니다. 체육 시설 시공을 넘어, 한국 스포츠 산업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대단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에어돔 구축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에어돔은 이름처럼 공기의 힘으로 구축한 시설물입니다. 일반 철골 구조물과 달리 기둥이나 보 없이 수천 제곱미터에 이르는 실내 공간을 형성하지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지면에 단단히 고정된 막 구조 내부에 공기를 불어넣은 뒤 공기압만으로 외피를 지지하는 겁니다. 마치 튜브처럼요. 달리 말하면, 공기의 탄성력과 압력 자체로 건축물을 지탱한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내부에 기둥 등 별다른 구조체를 설치하지 않아도 넓고 탁 트인 공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실내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에어돔의 구성 원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에어돔은 자연현상을 이용한 건축 공법을 도입했습니다. 예컨대 남극대륙의 빙하는

밑에서 받쳐 주는 구조물이 없어도 부력으로 수면에 떠오릅니다. 에어돔도 이와 같습니다. 철근이나 콘크리트 골조를 사용하지 않고 공기의 부력과 압력만으로 공간을 떠받치지요. 이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내부 공기압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에어돔은 자동 센서를 장착해 기상 변화나 외부 충격에 따라 공기 주입량을 조절해 항상 일정한 압력을 유지합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안정적 구조, 쾌적한 환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에어돔이 스포츠 시설로서 지닌 장점은 무엇일까요?

효율성과 경제성, 안정성을 꼽고 싶습니다. 기존 대비 30퍼센트에 불과한 저렴한 건축 비용, 사전 제작 구조로 축소된 시공 기간, 기둥이나 구조물이 없는 완전 개방형 구조, 공기압 제어 시스템과 고강도 이중막 구조로 실현한 내구성(내구연한 20년 이상), 높은 에너지 효율과 지속 가능성 등 모든 면에서 새롭고 뛰어난 스포츠 공간 솔루션입니다.

친환경 건축물이라는 호평을 얻기도 했지요.

에어돔은 건축 폐기물이 극히 적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또한 미미해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합니다. 게다가 철거 후에도 외피와 부자재는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자원 순환형 건축물'이라 하는데, 해체와 설치가 간편해 일회용이 아닌 순환형 자산으로 기능하는 구조물이란 의미입니다. 그뿐인가요. 치밀한 구조, 높은 단열성 덕분에 추위와 더위에 강한 것은 물론 조명, 환기, 온도, 압력을 자동으로 제어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합니다. 시공부터 운영, 철거에 이르기까지 환경 부담을 최소화한 미래형 건축물이지요.



2

제작 지원 (주)필드원



3

악천후나 지진 등 자연재해에도 안전한가요?

물론입니다. 에어돔은 충격을 분산, 흡수하는 유연한 반응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붕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최악의 경우에도 공기가 점진적으로 빠지는 누기 현상만 발생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탈출하거나 대응할 수 있지요. 또 풍선처럼 부드러운 탄성체라 지진의 횡방향 진동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속 216킬로미터의 바람(2003년 태풍 '매미'급)과 120센티미터가량의 적설을 견디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러한 기능 덕에 경북 경주와 포항의 에어돔은 국가 재난 대피 시설로 공식 지정되어 공공 안전 인프라로서도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에어돔 활용 분야가 얼마나 더 넓어질지 기대됩니다.

필드원은 한국 에어돔 기술의 선구자로서 지역과 용도에 최적화된 시설을 기획, 설계, 시공해 왔습니다. 2023년에 완공한 경주 스마트 에어돔은 약 1만 제곱미터 규모로, 연중 300일 이상 운영하며 스포츠 산업계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기도 용인과 경남 고성에 시공한 에어돔은 지역 특화 종목인 테니스 전용 시설로, 기후대 응력을 높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충남 보령 축구장 에어돔 또한 신기술을 적용해 성공 사례를 잇고자 합니다. 축구장, 테니스장, 야구장, 파크 골프장 등 다양한 종목에 맞는 에어돔 모델을 선보인 데 이어 공연, 축제 등 행사와 물류 관리를 위한 대안 시설로도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필드원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에어돔은 건축물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인구 소멸과 공동체 해체라는 위기에 봉착한 지역사회에 스포츠 프로그램과 각종 체육대회, 주민 참여형 활동을 독려함으로써 무궁무진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한 에어돔은 미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위한 필드원과 에어돔이 지켜 내겠습니다.



2025 강릉국제공연예술페스티벌
기간 9월 6일~13일
장소 강원도 강릉아트센터 및 잔디광장
티켓예매 강릉아트센터 홈페이지(www.gn.go.kr/artscenter/)
공식 홈페이지 festivalgn.com

문화가 흐르는 도시, 강릉은 극장이다 2025 강릉국제공연예술페스티벌

동해 바다를 품은 문화의 도시, 강원도 강릉이 올가을 다시 한번 극장으로 변모한다.

오는 9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2025 강릉국제공연예술페스티벌(2025 Gangneung International Performance Festival, GIPF)이 강릉아트센터와 그 일대를 공연으로 물들인다. 지역성과 세계성을 아우르는 이번 페스티벌은 2023 강릉 프레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매년 내실을 다져왔으며, 올해로 3회를 맞이한다.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한 축제는 공연 예술을 통해 강릉이 국제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성장하는 데 의미가 크다. 올해는 규모를 대폭 확대해 콘텐츠 역시 다채롭다. 강릉을 대표하는 관광 브랜드 공연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브랜드 공연, 소규모 국내 공연, 해외 우수 극단 초청 공연 등 총 36개 공연과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대 행사까지 풍성한 프로그램을 자랑한다. 연극, 뮤지컬, 난버벌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강릉아트센터와 그 일대 야외 광장을 중심으로 펼쳐져 누구나 부담 없이 공연 예술을 즐길 수 있다. 축제의 첫 포문은 오페라연극 <해변의 건축가>가 장식한다. 강릉 앞바다를 터전 삼아 살아가는 한 남자의 삶을 무대 위로 옮긴 이 작품은 연극적 서사와 음악적 깊이를 동시에 선보이며 관객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지난 2024 강릉페스티벌에서 초연되어 큰 호응을 얻은 미디어 퍼포먼스 <로스팅 드림즈>와 뮤지컬 <리-매치>는 올해 우수 관광 브랜드 공연으로 선정되어 다시 한번 무대에 오른다. 지역의 이야기와 역사를 무대에서 풀어 낸 작품들은 강릉만의 감성과 매력을 담고 있다. 해외 초청작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영국 런던 국제마임 페스티벌, 일본 시즈오카 세계연극제에 공식 초청되어 극찬을 받은 스페인 난버벌 연극 <앙드레와 도린(André and Do rine)>,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호주 퍼스 프린지 월드 등 유수의 공연 예술제에서 대중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호주 작품 <놀라운 과학의 알파벳(The Alphabet of Awesome Science)> 등이 국내 관객을 만난다. 2025 강릉국제공연예술페스티벌은 다양한 언어와 퍼포먼스를 통해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 축제로서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 공연 예술의 파도가 넘실대는 강릉의 가을, 그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자.

강릉국제공연예술 페스티벌

9월 6일

Gangneung International Performance Festival

2025. 09. 06 ~ 09. 13. ✦ 강릉아트센터 및 잔디광장



뚜벅아, 라면 묵호 갈래?

영화 <봄날은 간다>의 명대사, “라면 먹고 갈래요?”가 실제로 울려 퍼진 곳. 지금 강원도 동해 묵호에선 영화속 주인공이 되어 보는 도보 여행 프로그램 ‘뚜벅아, 라면 묵호 갈래?’가 진행 중이다.



1 바다정원길을 오르는 ‘뚜벅아, 라면 묵호 갈래?’ 참가자들. 2, 3 묵호 덕장마을 2층 테라스에서 끓여 먹는 묵호태 라면은 꿀맛이다. 4 여행 상점에서 포토 영수증을 모으는 스탬프 투어. 5 영화 <봄날은 간다>의 주요 포토 존, 삼본 아파트. 6 높이 59미터의 스카이워크가 설치된 도깨비골 스카이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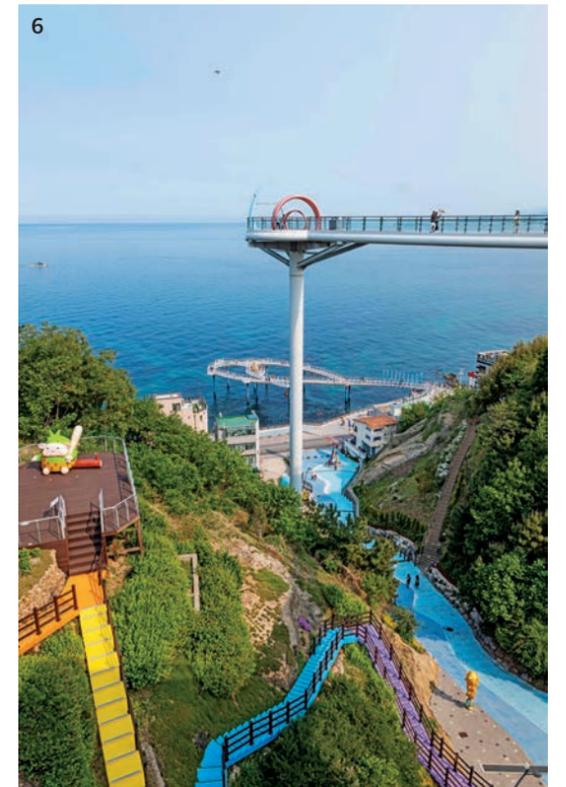
‘뚜벅아, 라면 묵호 갈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지원을 받아 동해문화관광재단이 지역관광추진조직(DMO)사업의 일환으로 기획한 도보 여행 프로그램이다. KTX가 묵호역에 정착하고, 지난 1월 강릉역과 부산 부전역을 잇는 동해선이 개통하면서 부쩍 증가한 도보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개별형과 단체형으로 나뉘며 올해 11월까지 진행된다.

개별형은 스탬프북 수령(바나나스테이션, 잔잔하게 중한곳), 여행상점 포토 스탬프 투어, 영화 <봄날은 간다> 주요 포토 존 방문에 이어 묵호태 라면 체험으로 마무리된다. 이 중 개성 넘치는 여행 상점을 차례로 둘러보는 포토 스탬프 투어는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잔잔하게, 묘한 동해, 고래상점, 바나나스테이션, 111호 프로젝트, 무코야 선물가게, 바다바란, 연필뮤지엄 등 개성 넘치는 공간들이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봄날은 간다>에서 배우 이영애가 유지태에게 “라면 먹고 갈래요?”라고 말한 삼본아파트는 주요 포토 존으로 반드시 기념사진을 남겨야 하는 장소다.

단체형은 묵호에서 여행 책방 ‘잔잔하게’를 운영하는 체지형 작가가 안내하는 가이드 해설 투어로 진행된다. 발한삼거리와 중앙시장을 지나 별빛마을 전망대, 논골담길로 이어지는 언덕능선을 걷는 코스. 묵호등대와 도깨비골 스카이벨리까지 구경하고 나서 삼본아파트와 덕장마을로 넘어와 묵호태 라면을 먹으면 여정이 마무리된다.

‘뚜벅아, 라면 묵호 갈래?’의 하이라이트는 라면 먹기 체험. 묵호 덕장마을 2층 테라스에 설치한 라면 기계를 이용해 셀프로 라면을 끓여 먹는다. 칼칼한 라면에 묵호태 보푸라기를 토피ング으로 올려 먹는 것이 별미. 최근에는 문어 토피ング이 추가됐다. 현장에서 설문 조사에 참여하면 묵호 수제 맥주와 함께 묵호태와 청양마요를 증정한다.

문의 070-8883-4707, www.dhdm.com



제작 지원 동해문화관광재단

‘뚜벅아, 라면 묵호 갈래?’ 프로그램

	개별형	단체형
운영일	11월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11월까지 매달 2·4째 주 토요일
코스	스탬프 북수령 ▶ 여행상점 포토 스탬프 투어 ▶ 영화 <봄날은 간다> 주요 포토 존 방문 ▶ 묵호태 라면 체험(셀프)	가이드 해설 투어(묵호역-발한삼거리-청년물-별빛마을-논골담길-묵호등대) ▶ 영화 <봄날은 간다> 주요 포토 존 방문 ▶ 묵호태 라면 체험(셀프)



자연을 걷다, 맨발로 누비는 문경새재

발끝에서부터 전해지는 땅의 기운을 만끽하는 오감만족 문경새재맨발페스티벌이 20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더욱 푸짐한 경품과 다양한 즐길 거리로 여행객을 맞이한다.

무더운 일상 속 지친 심신을 달래 줄 여름 축제가 돌아온다. 8월 16일, 단 하루만 진행되는 오감만족 문경새재맨발페스티벌. 올해는 2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축제는 푸른 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문경새재 일대에서 펼쳐진다. 총 6.5킬로미터에 달하는 축제 코스는 문경새재 제1관문인 주흘관부터 제2관문인 조곡관을 거쳐 3관문인 조령관까지 이어진다. 가장 먼저 제1관문으로 들어가기 전, 문경새재 오픈 세트장을 배경으로 한 사진 촬영은 필수. 드라마 <킹덤> <해를 품은 달> 등 주요 사극 촬영장으로, 이곳에서 맨발로 걷는 모습을 담은 사진은 오래 추억하게 될 이색적 장면이다. 경쾌하고 청량한 물소리를 내는 계곡을 밟아 천연 황톳길을 걷다 보면 차갑고 부드러운 흙의 감촉이 발가락 사이를 파고들며 한낮의 열기를 식혀 준다. 울창한 숲의 시원한 그늘이 매력적인 제2관문에서는 제기차기, 단체 줄넘기, 고무신 날리기 등 맨발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흥을 돋울 무대도 빠질 수 없다. 트로트계의 슈퍼 루키 형제 황민호·황민우, TBC 프로그램 <싱싱 고향별곡>의 대구·경북 대표 리포터 한기웅 등 K-트로트 인기 스타가 총출동해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 준다. 마지막 제3관문까지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메달과 함께 10만 원 상당의 고급 티셔츠를 증정한다. 울여름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고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다면 오감만족 문경새재맨발페스티벌로 향하자.



2025 오감만족 문경새재맨발페스티벌

날짜 8월 16일
장소 경북 문경새재 야외 공연장 일원
문의 053-755-5881

제작 지원 문경시청



문경새재 맨발페스티벌, 20년의 특별한 여정!

두 발로 자연을 느끼고, 마음을 치유하는 순간이 어느덧 2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끝으로 전해지는 대자연의 에너지를 온전히 느끼며, 삶의 균형을 되찾아보세요. 더 깊어진 역사, 더 진한 감동, 문경새재에서 맨발의 자유를 경험하세요!

20주년 맞이 푸짐한 기념품과 다채로운 빅이벤트로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감만족 **2025 맨발 페스티벌** 문경새재 **8월 16일(토)**
09:30 ~ 18:00 문경새재일원(집결 - 야외공연장)

KWF 공인대회



버버리힐즈 폴로클럽
"반팔 카라 티셔츠 증정"

어디서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일원
참가비 1인 15,000원 (당일 현장접수 2만원)
버스이용 대구, 경산, 구미, 안동, 의성 지역 1만5천원, 그 외 지역 2만원
대상 누구나 (산악회, 동호회, 가족, 기업 등 단체 환영)
참가신청 및 문의 [문경새재맨발페스티벌](#) 검색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공식카페로 연결됩니다.
(053)755-5881 (주)대구한국일보

※3관문 기념메달은 기념티셔츠를 입고 1관문부터 맨발로 종주한 참가자 선착순 300명에게만 증정됩니다.
※반드시 기념 티셔츠를 입고 맨발이어야 게임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주최/주관: 한국일보, 대구한국일보, **인플러스한국**
후원/협찬: 경상북도, MG 문경시, POSCO, 대한민국맨발학교, (재)대한걷기연맹, (사)한국산림보호협회





벌꿀의 달콤한 변주, 워커비

새로움은 익숙함에서 비롯된다.
 예스러운 한옥마을 어귀에 자리한
 워커비 전주와 전통 꿀에 취향을 더한
 워커비 블렌딩 허니가 그렇듯.

전주 한옥마을은 단순히 오래된 골목과 다르다. 수백 년 세월이 켜켜이 쌓인 기와지붕 아래 현대미술을 선보이는 갤러리가 들어서 있고, 해의 움직임에 따라 깊이 달라지는 중정에는 청년 바리스타가 내린 고소한 커피 향이 그윽하다. 여기 전주에서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서도 꿀을 팔고 싶다고 말하는 워커비 정은정 대표를 만났다.

도시를 닮은 공간

전북 전주 완산구의 버스 정류장 '전동성당.한옥마을' 앞에 적벽돌의 이담한 2층 빌라와 네모반듯한 흰색 3층 맨션이 어깨를 맞대고 있다. 벌꿀에 천연 재료를 블렌딩해 달콤한 혁신을 일으킨 워커비의 보급자리, 워커비 전주다. 이곳에는 워커비의 시그너처 제품을 맛볼 수 있는 매장 and 블렌딩 허니로 만든 음료를 내는 카페, 워커비를 이끄는 (주)로컬웍스 직원들의 작업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2018년 브랜드 설립 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성장한 워커비는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론칭 5년 만인 2023년 말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워커비 전주를 오픈했다. "워커비는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제품 생산과 물류를 책임지는 기



워커비는 '선물'이라는 카테고리 밖에 있던 꿀을 인기 선물 리스트에 올리며 굳건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업이예요. 지역에서 성장한 브랜드이기에 전북에 오프라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죠. 그 중에서도 전북 최대 관광도시인 전주는 선물용 소비가 많은 워커비와 잘 맞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워커비 전주가 들어선 두 건물은 오랫동안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비인후과와 병원 원장 사택이었던 곳. 정 대표는 수년간 방치되었던 노후 건축물을 새롭게 단장했다. 덕분에 전주 여행의 시작점인 버스 정류장 앞 풍경이 바뀌었다. “전주에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한 만큼 관광객부터 여행자, 지역 주민 모두가 이 공간을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정 대표의 바람은 공간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좌석마다 콘센트를 설치해 휴대폰을 충전하거나 노트북 작업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테이블 간 공간을 넉넉히 두어 만석이어도 여유롭게 느껴지도록 했다. “관광만 하고 싶은 도시가 있는 반면, 살아 보고 싶은 도시도 있잖아요. 저에게 전주는 살아 보고 싶은 도시예요. 워커비 전주도 여행자들에게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을 갖춘 워커비는 날개를 단 듯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갔다. 로컬 브랜드와 전국의 브랜드가 한데 모이는 시즌성 플라마켓 ‘워커비 하우스 마켓’을 개최해 지역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신제품을 출시할 땐 시식 행사를 열어 고객의 반응을 직접 살피기도 했다. 워커비의 인기 제품 중 하나인 프로폴리스 꿀 캔디는 고객들의 시식과 투표로 탄생했다.

특별한 꿀을 팝니다

양봉 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에 정 대표는 워커비를 ‘그저 꿀을 파는 브랜드’라고 말한

다. 다만 그 꿀이 조금 특별하다는 것. 워커비는 양봉 농가에서 매입한 토종꿀에 천연 재료를 더한 블렌딩 허니를 선보인다. 유자, 얼그레이, 초코, 시나몬, 모히토, 그린티 등 다양한 맛의 꿀을 출시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기존 꿀이 그저 단맛을 내는 부재료였다면 블렌딩 허니는 그 자체로 존재감이 있는 주재료란 점이 다르다. “핫초코 대신 우유에 초코 꿀을 타 먹고, 시럽이 들어간 밀크티 대신 얼그레이 꿀을 넣어 맛을 내요. 탄산수에 모히토 꿀을 타면 논알코올 칵테일이 되죠. 이런 식으로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하면 맛은 물론 효능도 강화됩니다.”

이 외에도 정 대표는 그동안 꿀을 먹으며 느낀 점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제품 전반에 변화를 이끌었다. 꿀이 손이나 병에 묻어 끈적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투박한 유리병 대신 유연한 플라스틱 용기를 도입하고, 찬물에도 꿀이 쉽게 녹도록 용해 속도를 개선했다. 감각적 패키지는 인테리어 소품처럼 사용하거나 선물하기에도 그만이다. 워커비의 블렌딩 허니가 특별하면서도 쓸모 있는 선물을 찾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크고 무거운 유리병 대신 손안에 쏙 들어오는 귀여운 패키지,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맛, 여기에 합리적인 가격대까지. 워커비는 ‘선물’이라는 카테고리 밖에 있던 꿀을 인기 선물 리스트에 올리며 굳건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꿀과의 운명적 만남

정 대표에게 꿀은 어릴 때부터 친숙했다. 지리산 벌꿀로 유명한 경남 산청에서 양봉업을 하던 조부모님 덕분에 방학 때마다 꿀과 벌을 찾으러 놀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할아버지 맥을 찾는 횡수는 줄었지만, 달콤한 꿀 냄새와 다정한 이웃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시골집에 대한 추억은 언제나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다. 정 대표가 다시 벌꿀과 인연을 맺은 건 아버지가 은퇴 후 취향을 하면서다. 아버지를 따라 할아버지 맥을 찾은 그는 수십 년 전과 다르지 않은 양봉 농가의 현실을 마주하고 충격에 빠졌다. 꿀은 값어치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고, 진짜 천연 꿀인지 소비자들의 의심은 여전했다. 게다가 꿀 소비량이 꾸준히 줄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행

1 토종꿀에 천연 재료를 더해 다양한 맛을 낸 블렌딩 허니.
2 개송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워커비의 허니 참깨 카라멜.
3 워커비 기프트세트 미니자는 앙증맞은 디자인과 작은 사이즈 덕에 선물하기 좋다.
4 워커비 전주 카페의 인기 메뉴 ‘허니 푸딩 빙수’와 ‘허니 푸딩 아포가토’는 워커비의 꿀과 전주 쌀로 만들었다.



1

복한 유년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이웃들의 고충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웠다. 오랜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은 '직접 해 보자'였다.

우선 꿀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했다. "11년간 운영하던 사업을 접고 떠난 세계 여행에서 꿀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졌어요. 우리에게 꿀은 보통 찬장 깊숙한 곳에 두었다 필요할 때 조금씩 덜어 쓰는, 커다란 단지 안에 든 저장 식품인데, 외국에서는 작은 패키지에 담겨 쟈이나 소스처럼 식사 때마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양봉가의 손녀인 저보다도 꿀과 가깝게 지내더라고요." 꿀에 라벤더나 로즈메리 등의 허브류를 채워 먹는 모습도 신선했다. 집집마다 꿀에 재우는 허브나 향신료 종류가 다르니 한국의 된장, 고추장 같은 느낌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꿀 소비량이 적은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카페에서 단 음료를 즐기면서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카페 음료 중 설탕이나 시럽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꿀에 천연 재료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맛이 좋다고 한들 소비자 눈에 띄지 않

으면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정 대표는 워커비의 '일벌' 동료들과 함께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워커비의 정체성을 만들어 갔다. 동료들은 각자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활용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싶은 만큼 감쪽한 디자인의 패키지를 완성했다. 대용량 유리병이 아닌 소스통처럼 작고 가벼운 병으로, 정 대표는 꿀과의 만남이 그리하듯 동료들과의 만남도 운명이라 믿는다. "워커비의 성장 동력은 끈기와 능력이 출중한 동료들입니다. 제품 기획부터 디자인, 해외 진출까지 워커비의 성장을 이끄는 주인공들이에요."

워커비 전주는 올해 매장 리뉴얼을 앞두고 있다. 워커비 제품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북 익산의 생산 설비를 전시 형식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브루어리나 와이너리를 구경하고 나면 그곳의 제품이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워커비 꿀도 생산 과정을 보고 상상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워커비 전주, 그리고 정 대표의 목표는 단순하고도 명확하다. 10년, 20년이 지나도 '전주의 꿀과는 집으로 기억되는 것. 그렇게 지속 가능한 공간이 되는 것이다.

1 워커비는 벌꿀을 비롯해 프로폴리스, 화분 등 양봉 산물 전반을 활용한 제품을 선보인다.
2 버려진 건물을 따뜻하고 단정하게 단장한 워커비 전주.
3 따스한 햇볕이 스미는 워커비 전주의 테라스.



2



3



서울 속 여름 쉼터

한여름 더위를 씻어 주는 이색 여름 쉼터를 모았다.
폭포 소리, 빗소리를 들으며 녹음 가득한 곳에서 도심 속 여유를 누리 보자.

1

더위를 날려 주는 폭포 소리 카페 폭포

카페 폭포는 시원한 물줄기를 쏟아내는 거대한 인공 폭포 옆에 자리한 테라스 카페다. 서울 홍제천 옆 낙후된 주차장이던 곳이 2년 전 높이 25미터, 폭 60미터의 인공 폭포 옆자리 카페로 바뀐 후 외국인도 찾아오는 명소가 거듭났다. 테라스에 앉아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더위가 단숨에 씻겨 내려간다. 테라스는 물론 카페 내부 어느 자리에 앉아도 폭포를 감상하기 좋은 구조다. 카페 폭포는 개인 사업자가 아닌 서대문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특징. 카페 수익금은 관내 장학금으로 사용해 커피를 마시며 착한 소비를 한다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다. 카페 폭포 옆에는 '폭포채방 아름다운도서관'도 있다.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62-24 문의 @cafe.pokpo



| 2 |

맑은 날에도 비 내리는 카페
레인리포트

남산 아래 소월로 골목에는 맑은 날에도 '비멍'을 즐기기에 좋은 카페, 레인리포트가 숨어 있다. 비 오는 날 마시는 커피가 더 향기롭다는 데서 착안한 우주 콘셉트 카페다. 대나무 계단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서면 인공 비가 내리는 중정을 품은 카페가 모습을 드러낸다. 홀 중앙에 설치한 모니터에서 원두 산지인 과테말라·에티오피아 등의 날씨와 강수량을 보여 주고, 통창 너머로는 인공 비가 시원하게 쏟아진다. 창가에 앉아도 시원하지만 대형 투명 우산을 쓰고 빗속으로 걸어가면 한여름에도 비 오는 날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흐린 날을 표현한 블랙 레모네이드 '클라우드 데이', 맑은 날을 표현한 오렌지 & 레모네이드 '서니 데이' 등 날씨 테마의 음료도 준비되어 있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소월로40길 85 문의 0507-1360-4302



| 3 |

동굴에서 즐기는 음악과 커피
더 피아노

서울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독보적인 전망을 자랑하는 더 피아노는 자연과 음악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공간이다. 기하학적 조형미가 돋보이는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암석이 모습을 드러낸다. 암석 앞 테이블에 앉아 커피와 디저트를 맛보고 있으면 암석을 타고 흘러내린 물이 발아래 고여 마치 동굴로 순간 이동한 듯한 기분이 든다. 2층 야외 정원에서는 북한산의 울창한 숲과 너럭바위가 파노라마 뷰로 펼쳐진다. 더 피아노에선 평일 2회, 주말 3회 라이브 공연도 열린다.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며 북한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 더위는 물론 목은 걱정마저 날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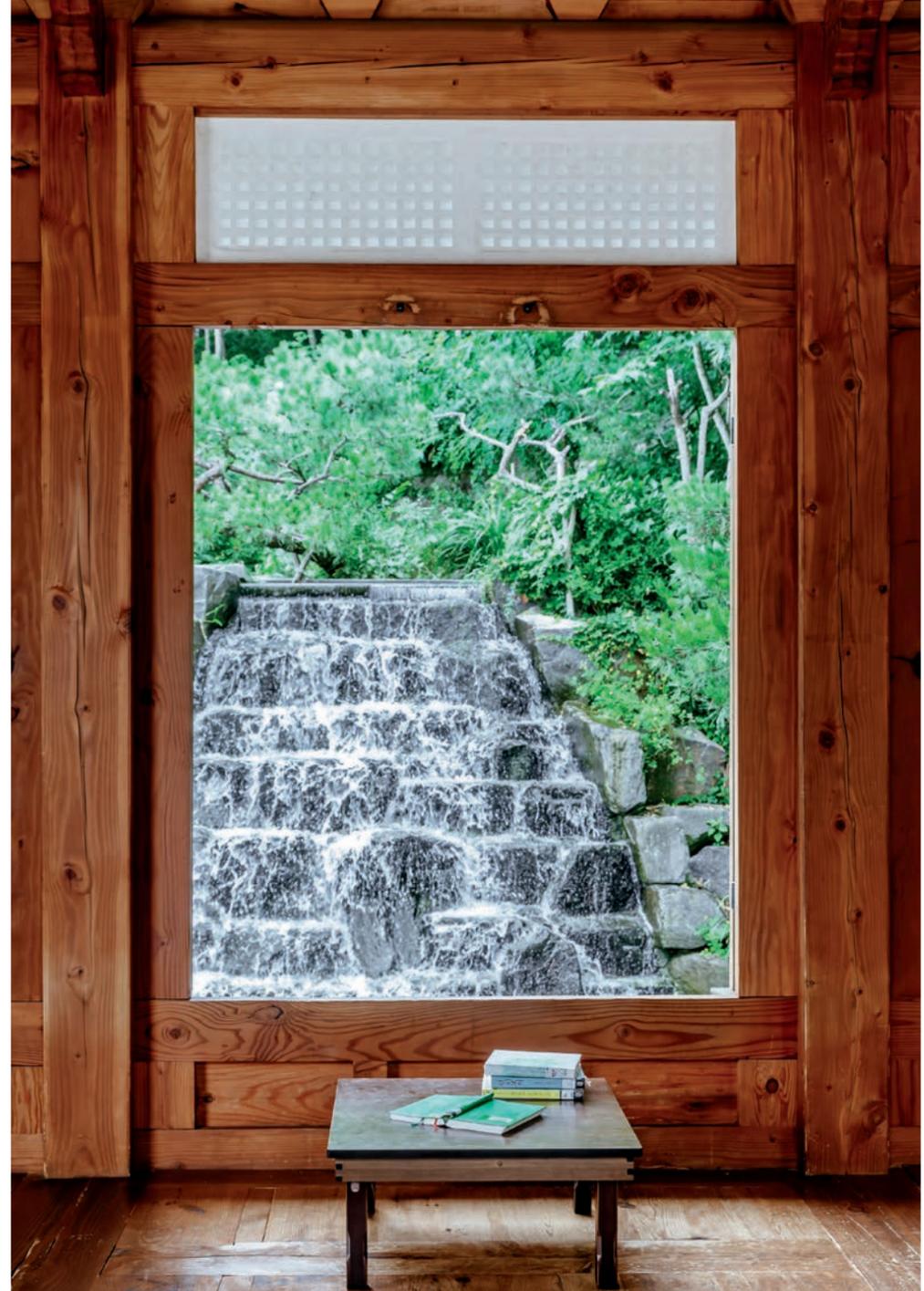
주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6길 71 문의 02-395-2480

| 4 |

숲속의 두 은신처
더숲 초소책방 & 인왕산 숲속 쉼터

더위를 피해 숲속으로 스며들고 싶다면 더숲 초소책방과 인왕산 숲속 쉼터가 제격이다. 인왕산 숲에 둘러싸인 테라스가 아름다운 더숲 초소책방은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청와대 방호를 위해 지은 경찰 초소를 리모델링한 책방 겸 테라스 카페다. 뒤로는 울창한 숲과 오래된 바위가 절경을 이루고, 앞으로는 멀리 남산까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더숲 초소책방에서 인왕산 등산로를 잇는 계단을 오른 뒤 오솔길을 따라 걸으면 인왕산 숲속 쉼터에 다다른다. 과거 병사들이 거주했던 인왕3분초가 쉼터로 바뀌어 조용하게 독서를 즐기기에 그만이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인왕산로 172(더숲 초소책방),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산4-36(인왕산 숲속 쉼터) 문의 02-735-0206(더숲 초소책방)



| 5 |

무릉도원으로 떠나는 북캉스
청운문학도서관

인왕산 청운공원 숲길에 자리한 청운문학도서관은 폭포 찌는 여름에 북캉스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언덕의 가파른 경사를 그대로 살려 건물을 지은 것이 특징으로, 지하에는 현대식 도서관이, 지상에는 기와를 올린 한옥 도서관이 자리한다. 한옥 도서관의 기와지붕은 송례문 복원에 사용한 기와와 같은 방식으로 만든 수제 기와와 돈의문 뉴타운 지역에서 철거된 한옥 기와를 재사용했다. 청운문학도서관의 백미는 창 너머로 작은 폭포가 보이는 누정. 이곳에서 책을 읽으면 도시의 소음은 사라지고 폭포 소리와 새소리만 귀를 가득 채운다. 청운문학도서관은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폭포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다. 책 속 문장들을 음미하며 폭포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시원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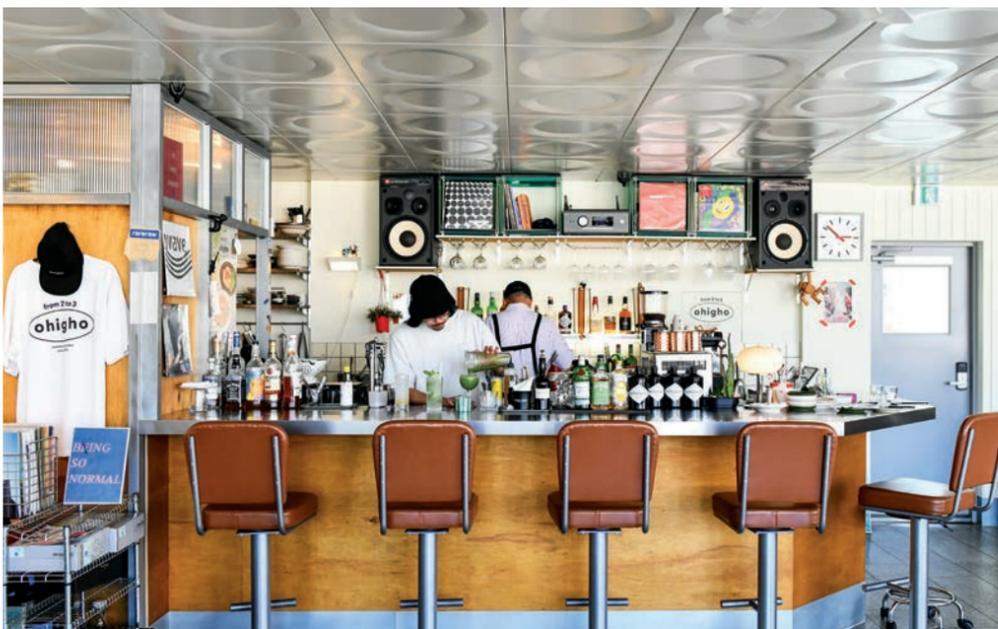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36길 40 문의 070-4680-4032

강릉에서 감성 충전

아날로그 감성이 묻어나는 소품
가게와 서점부터 개성 넘치는
카페, 양조장, 레스토랑까지.
강원도 강릉역 부근에서 감도
높은 가게 여섯 곳을 찾았다.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강릉역까지
2시간 정도 걸린다.



강릉 서부시장 옆 2층 건물에 자리한 오하이오는 감도 높은 공간에서 다이닝을 즐길 수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이다. 명주동에서 산치식당을 운영하던 김용남 대표와 펍과 와인 바로 경력을 쌓은 신민규 대표가 의기투합해 문을 열었다. 과거 새마을금고였던 곳이 바이닐 바를 방불케 하는 감각적인 공간으로 변했다. 이색 식재료로 구성된 메뉴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대표적인 메뉴로 '아귀 간 크림 파스타'가 있다. 볶은 아귀 간에 크림소스를 더해 녹진한 맛이 나고, 열빙어알이 들어간 한치를 올려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끌어올렸다. 진한 비스크 소스로 맛을 내고 고소한 블랙타이거새우와 관자, 향긋한 루콜라와 상큼한 토마토가 한데 어우러지는 '관자 새우 파스타'도 인기다. 여기에 패션프루츠를 베이스로 하여 화려한 색감을 내는 '선데이 캔디'나 생바질과 라임으로 만든 '녹색광선' 같은 논알코올 칵테일을 곁들이면 눈과 입이 즐거운 식탁이 완성된다. 무알코올 칵테일은 취향에 따라 알코올로도 맛볼 수 있다.



오하이오
아귀간 크림 파스타의 매력 속으로

주소 강원도 강릉시 중앙시정4길 11-1 문의 @jurokurok.brewery



강릉중앙시장 뒤편의 점집 거리, 한 수상한 가게가 눈길을 끈다. 대학 시절부터 양조에 대한 꿈을 키워 온 박영건·김향욱·한빛찬 세 대표가 운영하는 주룩주룩 양조장의 소름이다. 주룩주룩 양조장은 점집 거리라는 특성에 어울리게 '구름'을 모시는 양조장이라는 콘셉트로 강릉의 지역색과 재료를 이용한 이색 막걸리를 선보인다.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전통을 이어오는 강릉단오제에서 착안한 '강릉 구름신 막걸리'는 창포물로 만들어 감칠맛이 좋다.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막걸리를 구리하던 중 술을 빚을 때 물을 적게 넣어 진득하게 만드는 전통주, 이화주를 모티브로 한 떠먹는 디저트 막걸리도 고안해 냈다. 종류는 '하평구름' '소돌구름' '순구름' '강문구름' 네 가지. 강릉의 아름다운 해변 이름에서 따와 제품명을 짓고 강릉에서 생산하는 쌀, 딸기, 꽃감, 블루베리를 주재료로 활용해 막걸리에 달콤한 맛을 더했다.

주소 강원도 강릉시 임영로 138 문의 0507-1321-9657



강릉의 대표 명소인 강릉대도호부 맞은편에 매일 낮부터 밤까지 임영로 거리를 환하게 밝히는 윤슬서림이 있다. 책방과 카페, 바를 함께 운영하는 공간이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 서점을 시작했다는 현구 대표는 원래 포남동 주택가에 있던 윤슬서림을 6개월 전 임영로로 이전했다. 통유리창으로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서점 안으로 들어서면 잔잔한 음악과 커피 향, 종이 냄새가 귀와 코를 자극한다. 책방지기가 큐레이션한 책을 읽으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기 좋은 분위기다. 창 너머로 한 눈에 담기는 은행나무와 강릉대도호부 풍경은 독서를 부른다. 서점 한쪽의 눈길을 끄는 공간은 낮엔 카페로, 밤엔 바로 변모한다.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바를 책임지는 사람은 양조 공부를 하는 김한빛찬 대표. 덕분에 이곳에선 밤에도 책을 읽으며 칵테일을 훌쩍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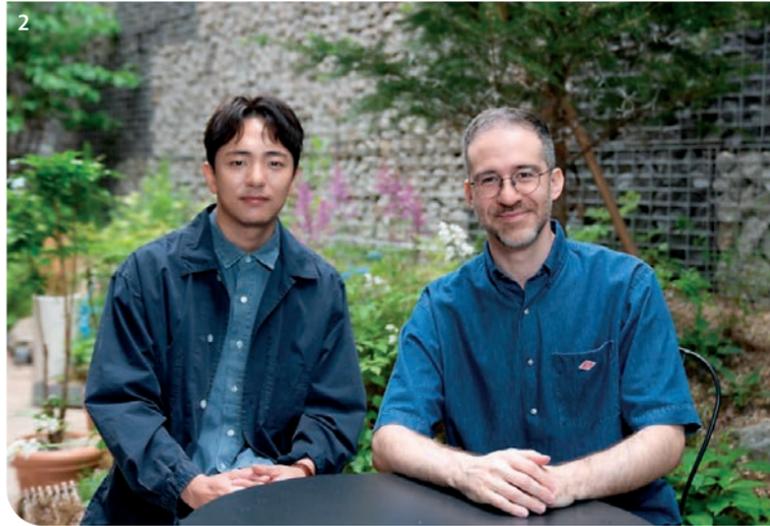
주룩주룩 양조장
가메이리 구름에 떠 떠 떠 떠 떠 떠 떠

윤슬서림
임영로를 밝히는 서점 겸 바

함께여서 더 빛나는 문화예술계 콤비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데, 사람들 마음을 훔치는 작품을 만들려면 오죽 합이 좋아야 할까. 끈끈한 협업으로 대중을 홀린 창작 파트너들을 살펴봤다.

© CJ ENM 2



최근 공연계의 뜨거운 이슈는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었다. 한국에서 시작해 브로드웨이로 진출한 이 작품은 토니상 뮤지컬 부문 작품상, 극본상, 음악상, 연출상, 남우주연상, 무대 디자인상까지 무려 6관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 중심엔 월 애런슨(작곡·극본)과 박천후(작사·극본)가 공동 창작한 대본과 음악이 있다. '뮤덕'들 사이에서 '월후 콤비'라 불리는 이들은 첫 작품 <번지점프를 하다>를 시작으로 <어쩌면 해피엔딩> <일테노레> <고스트 베이커라>까지 네 작품을 함께 했다. 공연계에서 '월후 콤비' 같은 파트너십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뮤지컬, 연극 같은 공연 예술은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창작자들이 모여 작품의 완성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관건인지라 한번 합이 잘 맞으면 다음 작품을 기억하는 게 자연스럽다. 특히 대서만금 음악이 주요한 표현 방식인 뮤지컬에선 연출-극본 외

에 작곡-작사 콤비의 활약이 많다. 해외에선 1940~1950년대 브로드웨이 황금기를 이끌며 <왕과 나> <신데렐라> <사운드 오브 뮤직> 등을 내놓은 리처드 로저스-오스카 해머스타인 2 세부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에비타>의 앤드루 로이드 웨버-팀 라이스, <엘리자벳> <모차르트> <레베카> 등으로 수십 년째 이어 오는 실베스터 르베이-미하엘 쿤체까지 명콤비의 역사가 깊다. 2000년대 이후 뮤지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한국에서도 왕용범-이성준, 장유정-김혜성, 성재준-원미술, 한정석-이선영 등 민고 보는 콤비들이 나왔다. 월후 콤비도 그런 흐름 중 하나다.

전 영역에서 활약하는 콤비들

영상 분야로 눈을 돌려도 빛나는 결과물을 내는 콤비가 비일비재하다. 영화계에선 박찬욱 감독과 정서경 작가가 꼽힌다. 이들은 하나의 컴퓨터에 각자 모니터와 키보드를 연결해 함께 시나리오를 쓰는 독특한 협업 방식으로 <친절한 금자씨> <아가씨> <헤어질 결심> 등 다섯 편의 파격적인 작품을 만들었다. 정서경 작가는 스스로를 '박찬욱 감독 학교의 학생'이라고 겸손하게 말한다. 박찬욱 감독 또한 "내 전체적인 영화 경력의 정서경과의 만남 전후로 나누게 되리라는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할

1 나영석 PD(왼쪽)와 예능을, 신원호 PD와 드라마를 함께 하는 이우정 작가(가운데). 2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한국 뮤지컬 역사를 새롭게 쓴 박천후(왼쪽)-월 애런슨. 3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의 '대니얼스' 콤비. 4 만화가 최규석(왼쪽)과 연상호 감독 콤비.

만큼 서로의 커리어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방송계에선 일찍부터 합이 잘 맞는 작가-PD 콤비가 두드러졌다. 한 시대를 풍미한 김수현-정유영, 송지나-김종학 외에도 <아내의 자격> <밀회> <풍문으로 들었소>의 정성주-안판석,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라이브> <우리들의 블루스>의 노희경-김규태, <파리의 연인> <시크릿 가든> <신사의 품격>의 김은숙-신우철,

<태양의 후예> <도깨비> <미스터 션사인>의 김은숙-이응복 조합이 명콤비 소리를 들었다.

최근엔 예능 출신 작가-PD 조합의 활약이 돋보인다. 대중을 웃겨야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시트콤에서 치열하게 합을 맞춰 본 경험이 드라마에서도 빛을 발하는 경우인데, 대표 사례가 이우정-신원호 콤비다. 예능 <남자의 자격> 등으로 합을 맞췄던 이우정 작가와 신원호 PD는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와 '슬기로운' 시리즈를 함께 하며 그야말로 경이로운 기록을 썼다. 재미난 건 이우정 작가가 나영석 PD와 손발을 맞추며 <꽃보다 할배> <신서유기> <뽕뽕 지구오락실>에 이르기까지 걸출한 예능 프로그램을 내놓은 현역 예능 작가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능 출신인 이남규 작가와 김석윤 PD의 조합도 눈에 띈다. 시트콤 <달려라 울엄마>부터 지난 5월 종영한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까지 대부분의 커리어를 함께한 사이인데, 전반적으로 따스한 휴머니즘 성격이 강하지만 <송곳> 같은 사회 고발물에서도 합이 좋았다.

영역을 완벽히 분리하지 않는 형태의 협업도 있다. 만화가 최규석은 상명대학교 동문인 연상호 감독의 애니메이션 작품 캐릭터 원안을 맡아 왔는데, 이후 드라마 <지옥>과 <계시록>에선 연출은 연상호가 맡되 원작이 되는 웹툰과 극본 작업은 함께 하는 작업 방식을 취했다. 해외에선 아예 연출과 극본을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작업하는 듀오 감독이 많다. '대니얼스'라 묶여 불리는 대니얼 칸-대니얼 사이너트가 대표적이다. 뮤지컬 비디오 감독 시절부터 독특한 아이디어와 연출로 이름을 날린 대니얼스는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로 제95회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을 수상하며 극대화한 시너지 효과를 전 세계에 과시했다. 대니얼스 외에도 <캡틴 마블>의 애

© 넷플릭스 4



나 보든-라이언 플렉, <헤레틱>의 스콧 벡-브라이언 우즈 등이 함께 영화를 만드는 듀오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쉽지 않은 파트너십, 그럼에도

열거해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잘 맞는 파트너를 찾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이는 결혼 상대 찾는 것에 비유되곤 하는데, 만남만큼 끊임없이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결혼과 비슷한 점이다. <여신님이 보고 계셔> <레드북> <쇼맨> <라이카> 등 여러 편 흥행을 치며 확고한 브랜드를 만든 한정석 작가와 이선영 작곡가(여기에 박소영 연출까지 합해 '한이박 트리오'로도 불린다)는 뮤지컬 창작 아카데미 '불과 얼음'에서 만났는데, 협업 초반에는 다투는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가감 없는 피드백이 가능한 사이가 됐다. 연극 <모범생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카포네 트릴로지> 등의 협업으로 '저택 콤비'로 통하는 지이선 작가와 김태형 연출의 애증 관계도 대학로에서 유명하다. 농담처럼 '잘못된 만남'이라 말하지만 '믿고 싸우는 관계'라는 표현처럼 치열한 논쟁 속에서도 서로를 신뢰하며 좋은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물론 결혼이 그렇듯 모든 파트너십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 습니다'로 귀결되진 않는다. 예술관이 부딪히며 헤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만남으로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자 아름다운 이별을 하기도 한다. '마블 코믹스'라는 세계를 창조해낸 스탠 리와 잭 커비 콤비가 그 사례다. 이들은 만화 <판타스틱 4>를 비롯해 헐크, 토르, 엑스맨, 아이언맨 등 마블의 쟁쟁한 캐릭터들을 창조했으나 스토리 작가의 역할을 더 중요시한 스탠 리와 마블에 섭섭함을 느낀 잭 커비가 회사를 떠나는 바람에 팬들에게 씁쓸함을 남겼다. 그럼에도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 함께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무척이나 경이로운 일임이 분명하다.



© 에그리프/크레딧 1



3

TOURISM



캐나다관광청 콘텐츠 원정대 공개 모집

캐나다를 직접 여행하고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소개하는 캐나다 콘텐츠 원정대를 공개 모집한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선발된 크리에이터는 캐나다관광청이 추천한 80개 코스 중 원하는 일정을 선택해 자유여행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한다. 티웨이항공이 후원하는 밴쿠버 왕복 항공편과 캐나다 여행 지원금은 물론, 목표 콘텐츠 조회 수 달성 시 리워드도 지급한다.

홈페이지 cripc.co.kr/canada



청도군, '여행 마켓 청도 in 부산' 관광 팝업 홍보관 운영

씨 없는 감 '반시', 청정 웰빙 채소 '한재미나라' 등으로 유명한 경북 청도군이 부산에서 관광 팝업 홍보관 '여행마켓 청도 in 부산'을 운영한다. 커넥트현대 부산에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열며, 청도의 주요 관광 명소 자료를 제공하고 쿠킹 클래스, 체험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방문객에게는 추천을 통해 청도의 굿즈와 특산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인스타그램 @korea_cheongdo



창립 160주년 파리 프랭탕 백화점, 한국인을 위한 대규모 캠페인

프랑스 파리 최초의 백화점 프랭탕이 창립 160주년을 맞아 대규모 캠페인 '프랭탕 백화점, 파리의 아이콘(Printemps, l'icône de Paris)'을 선보인다. 특히 프랭탕 백화점은 프랑스 내 K-뷰티 열풍에 발맞춰 신세계백화점과 손잡고 13개 주요 한국 뷰티 브랜드의 대표 제품을 소개하는 '신세계 하이퍼 그라운드'를 운영한다. 이번 팝업은 8월 31일까지 지하 1층 오스만 아트리움에서 열린다. 프랭탕의 16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1만 유로 이상 구매 시 최대 16퍼센트 세금 환급 혜택도 제공한다.

홈페이지 france.fr/ko

<대충의 자세>

30만 부 베스트셀러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의 하완 작가가 완벽을 요구하는 세상에 "너무 완벽한 건 멋이 없잖아"라고 외치는 에세이를 펴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건 너무 무리하지도 게으르지도 않은 균형감. '아메 득도 전문가' 하완의 인생 사용법이 흥미롭다. 하완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아무튼, 리코더>

'아무튼' 시리즈 일흔여섯 번째 주인공은 황선우 작가. 40대에 다시 시작한 리코더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작가는 백사리의 어두운 골짜기 앞에서 머뭇거리는 대신, "못하는데 어째서 이리도 즐거울까"라며 리코더에 자신 있게 숨을 불어넣는다. 다시 만난 리코더는 작가를 또 다른 세계로, 영원히 지루하지 않을 세계로 이끈다. 황선우 지음 코난북스 펴냄



VIDEO

<에이리언: 어스>

시리즈 누적 흥행 수익 15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한 SF 호러의 전설적인 작품 '에이리언' 시리즈가 새롭게 돌아온다. 이번 작품은 시리즈 최초로 지구를 배경으로 해 더욱 기대를 모은다. 영화는 정체불명의 포식자들을 마주한 인간의 숨막히는 생존 사투기를 그린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짜릿한 공포를 선사할 예정이다. 8월 13일 공개.

감독 노아 홀리 출연 시드니 찬들러, 알렉스 로더 제공 디즈니플러스

<스탑 메이킹 센스>

1970~1980년대 미국 록음악의 혁신을 이끈 밴드 토키 헤즈의 전설적인 공연을 스크린으로 만난다.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국내 최초 개봉하는 영화는 토키 헤즈가 1983년 12월 미국 할리우드 판타지스 극장에서 벌인 네 차례 공연 실황을 담았다. 인터뷰와 관객 리액션 없이 오직 무대 위 토키 헤즈의 퍼포먼스와 연주에만 집중해 몰입도를 높였다. 8월 13일 개봉.

감독 조나단 드미 출연 데이빗 번, 티나 웨이마우스

<수연의 선물>

할머니의 죽음 이후 홀로 남은 열세 살 수연은 스스로 보호자를 찾아 나선다. 그러다 한 부부의 유튜브에서 선물이라는 일곱 살짜리 아이를 입양해 행복하게 사는 가족을 발견한다. 이들의 추가 입양 소식을 접한 수연은 선물에게 일부러 접근한다. 수연과 선물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의 세계를 마주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본다. 8월 6일 개봉.

감독 최종룡 출연 김보민, 최이랑

<검은 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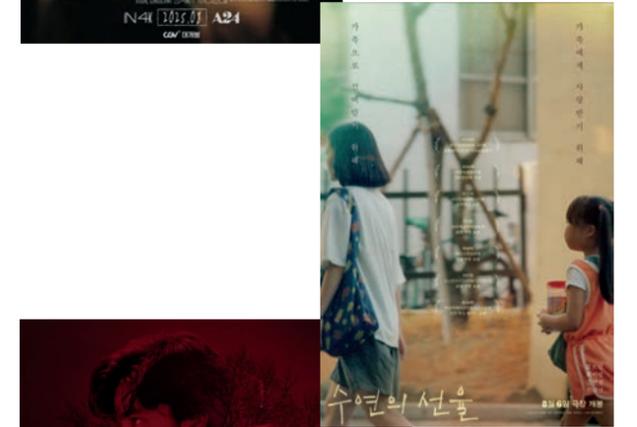
스물다섯에 반드시 죽게 될 운명을 타고난 수아와 비밀이 가득한 의문의 남자 아누앗. 수아의 발자취를 쫓던 아누앗은 예상치 못한 공포스러운 일에 휘말린다. 한국 오컬트 문화를 대표하는 무당과 굿, 서양적 오컬트 요소인 저주, 그리고 인도의 민속적 샤머니즘 문화 등 동서양의 오컬트 호러 요소를 한데 담아낸 점이 독특하다. 8월 21일 개봉.

감독 김현준 출연 임도화, 아누팜 트리파티

<아임 스틸 히어>

갑자기 침입한 무장 요원에게 남편이 강제 연행되며 그의 아내와 가족이 겪는 고난의 삶을 다룬 영화. 브라질 작가 마르셀로 파이바가 쓴 회고록을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1970년대 브라질 군사 독재 정권이 배경이다. 당시 시대를 섬세하게 재현하고, 비극 속에서 가족을 재건해 가는 과정을 심오하게 그려 냈다. 2025년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장편영화 수상작으로 8월 개봉.

감독 윌터 살레스 출연 페르난다 토레스, 셸튼 멜로



Information.

168 코레일 소식 · 17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72 열차 이용 안내 · 174 비상시 행동 매뉴얼

제14회 철도사진공모전 입선 '실과 바들' © 진기섭



KTX

코레일이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



레일 온도 낮추는 자동 살수 장치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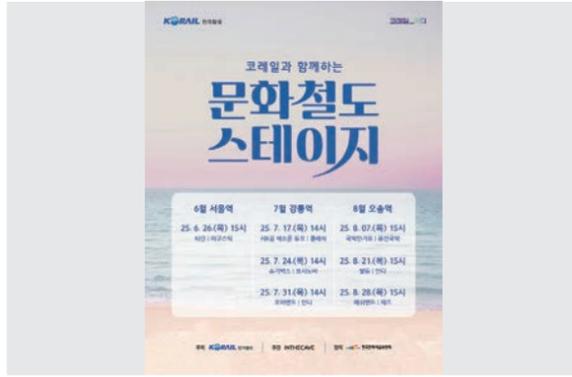
한국철도공사가 폭염 속에서도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 선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지난 7월 3일 충북 옥천 인근 경부고속선과 일반선에서 자동 살수 장치를 점검했다. 자동 살수 장치는 레일 온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물을 뿌려 열기를 식히는 장치로, 현재 고속선과 일반선 457개소에 스프링클러 형태의 장치를 설치했다.

지역사랑 철도여행x농촌투어패스 결합 상품 출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여행 상품이 탄생했다. '지역사랑 철도여행'의 열차 운임 50퍼센트 할인과 1만 7900원에 즐기는 농촌 체험, 음식 제공, 관광지 방문 등이 포함된 '농촌투어패스'의 혜택을 하나로 합친 것. 대상 지역은 전북 김제·익산과 경북 문경·영주·안동 등 다섯 곳으로, 올해 12월까지 운영한다. 강원권과 충청권 상품은 8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 예술가와 함께 철도역 음악회 개최



철도 이용객에게 특별한 문화 예술 경험을 선사하고, 청년 예술인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한 음악회 '문화철도 스테이지'가 8월까지 이어진다. 먼저 6월 26일 철도의 날을 기념해 서울역에서 가수 타린의 무대로 행사의 막을 올렸다. 7월과 8월에는 강릉역과 오송역에서 국악, 인디 밴드, 클래식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외국인 관광객, 한국 철도 서비스 매우 만족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가 외국인 이용 만족도 관련 자체 설문 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5월 301명을 대상으로 철도 전반의 만족도, 역·열차 서비스 평가, 승차권 구매 방법 등 총 37개 항목의 설문을 실시한 결과 종합 만족도는 93점이었다. 특히 열차 운행과 관련한 '정시성'을 가장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KTX 마일리지 최대 15% 적립



KTX 이용시 마일리지 최대 10% + 5% 프로모션적립까지

KTX 혜택 KTX 마일리지 5% + 카드 혜택 KTX 마일리지 포인트 5% + 프로모션 혜택 5% (프로모션: ~'25.12.31, 월 최대 3만 포인트)

국내외 가맹점 최대 1% 적립

국내외 가맹점 0.5% KTX 마일리지 포인트 기본 적립 (전월 실적·적립한도 없음)
커피전문점/편의점/할인점/택시 0.5% KTX 마일리지 포인트 추가 적립



- 혜택은 KTX 삼성카드 신용카드에 한함 (체크/선불/법인카드 제외) - 카드 혜택(KTX 마일리지 포인트 5% 적립)은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시 제공 (발급월+1개월까지는 전월 이용금액 40만원 미만시에도 혜택 제공되며, 이외 혜택을 위한 조건 및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 KTX 마일리지 포인트는 이용월의 다음달 25일에 KTX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 - 연회비: KTX 삼성카드 해외검용(Mastercard) 2만원 | 국내전용 2만원 - 연체이자율: 회원별/이용상품별정상이자율 + 3%p (최고 연 20.0%)
· 연체 발생 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 ①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 기간(2개월) 유지자할부 이자율 ②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 유지자할부 이자율 - 금융상품 이용 전 상품설명서, 홈페이지, 약관을 통해 이용조건 확인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음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정당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음 -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일정 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제 2025 - C1i - 08637호 (2025.06.30 - 2026.06.29)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p>좌석간격 Seat Space</p>  <p>KTX 930mm</p>	<p>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p>  <p>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p>	<p>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p>  <p>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p>	<p>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p>  <p>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p>
---	---	--	---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p>좌석간격 Seat Space</p>  <p>KTX 1120mm</p>	<p>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p>  <p>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p>	<p>식음료 Refreshment</p>  <p>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4호차와 KTX-산천 4·14호차에 있습니다.</p>	<p>신문 Newspaper</p>  <p>특실 이용객을 위한 신문은 KTX 3·4호차와 KTX-산천 3·13호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p>
---	--	--	--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ITX-새마을, ITX-마을,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은 해당 할인 카드로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①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 시설 Amenities

<p>화장실 Restroom</p>  <p>KTX 1·2·4·6·8·13·15·17·18호차와 KTX-산천 3·5·6·8·13·15·16·18호차, KTX-이음 1·6호차, KTX-청룡 1·4·6·8호차, ITX-새마을 1·4·6호차, ITX-마을 3·7호차, ITX-청춘 3·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p>	<p>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p>  <p>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11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을 1·5호차,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p>	<p>수유실 Breast-Feeding Room</p>  <p>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은 KTX 8·16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이음 4호차, KTX-청룡 6호차, ITX-새마을 6호차, ITX-마을 3·7호차,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p>	<p>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p>  <p>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p>
<p>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p>  <p>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10·15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산천(원강) 7·17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을 1·5호차,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p>	<p>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p>  <p>음료 및 스낵 자판기는 KTX 5·9·11·13·16호차와 KTX-산천 6·16호차, KTX-산천(원강) 3·6·13·16호차, KTX-이음 3·4호차, KTX-청룡 2·3·5호차, ITX-새마을 3·4호차, ITX-마을 2·6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p>	<p>의약품 First-Aid Medicine</p>  <p>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p>	<p>금연 No Smoking</p>  <p>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p>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T1, T2)

운행 시간
광명역: 오전 5시 20분~오후 8시 20분(20~30분 간격)
인천국제공항(T2 기준): 오전 6시~오후 10시 5분(20~30분 간격)
소요 시간 T1 ↔ 광명역: 약 50분, T2 ↔ 광명역: 약 70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인천국제공항 → 광명역: 인천국제공항 버스터미널 매표 창구, 티머니GO 모바일 앱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전국기차역 매표 창구, 코레일톡 앱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Rail+

철도 회원이 KTX 승차권을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모바일지 전환 사용 가능

교통카드 구매처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Android)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 도로, 편의점 등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사항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railplus.korail.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차권 구입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네이버' '카카오' 스마트폰 앱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간,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간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구분	1개월~출발 2일 전까지	출발 1일 전까지	출발 당일		출발 후		
			3시간 전까지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간 전까지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까지	60분 경과 후~도착 시간 전까지
월~목요일		무료		5%	15%		
금~일요일 공휴일 명절	400원	5%	10%	20%	30%	40%	70%

Ticket Booking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KORAIL Website(www.korail.com)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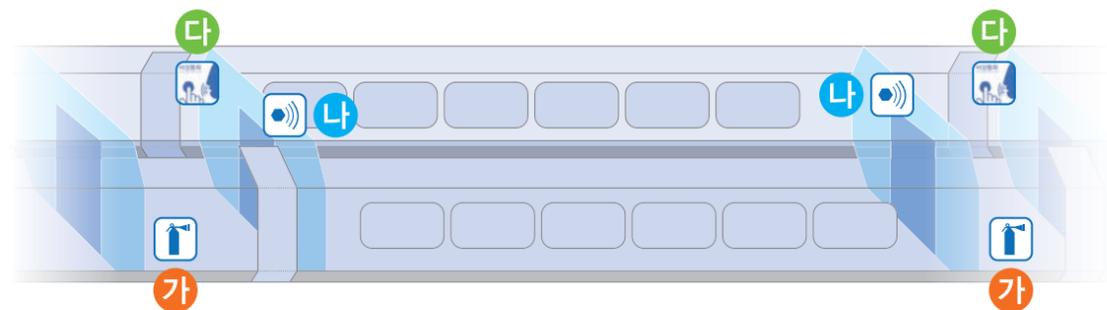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NAVER-KAKAO T Mobile App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Classification	1 month-2 day prior to departure	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		After Departure		
			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Up to 20 minutes	20-60 minutes	60 minutes-arrival time
Mon-Thu		Free		5%	15%		
Fri-Sun, holidays	KRW 400	5%	10%	20%	30%	40%	70%

비상 상황 Emergency Proced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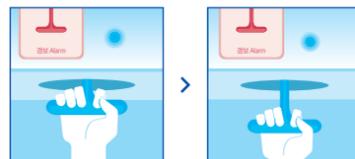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소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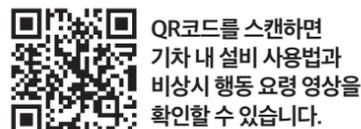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ITX 새마을 | ITX 마음 | ITX 청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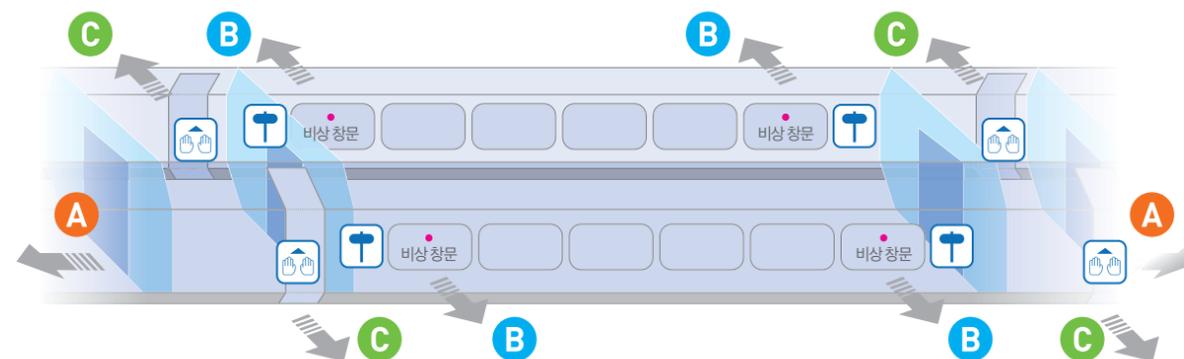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 내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 탈출 Emergency Escape Route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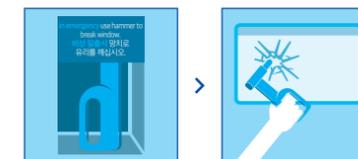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KTX-청룡: 1호차, 8호차 | ITX-새마을: 4호차
ITX-마음: 2호차, 4호차, 6호차, 8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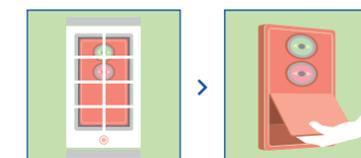
KTX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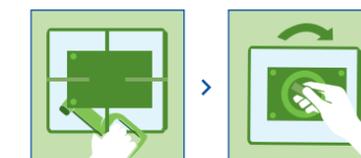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ITX 마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청춘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강아솔과 떠나는 음악 여행

8월 8일 섬의 날을 맞아 제주 출신 뮤지션 강아솔이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외딴곳에 홀로 떨어진 기분이 드는 여행자를 위해 더 많은 목소리를 전한다.



음악 듣기



찰나의 행복을 지키는 플레이리스트



모두가 있는 곳으로 강아솔

함께 있어 더 외로울 때 여행을 가기도 하죠. 이 노래도 그렇게 시작하지만, 결국 모두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며 끝납니다. 사라진 당신을 누군가는 기다릴 거예요.



Brazil 안토니우 카를루스 조빙

대학교 입학 후 첫 여름방학에 혼자 스쿠터 타고 제주도를 일주했어요. 당시 자주 들던 노래입니다. 스무 살에 만난 제주의 녹음과 푸른 바다가 스쳐 지나가요.



Our Night is Here(feat. Sun the Lily, Luca Minor) 와우산스

신나는 리듬과 멜로디, 목소리가 펼쳐질 때의 기쁨이란 한 번으로는 부족해 반복 재생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곡이에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를 부르게 될지도 몰라요.



행복을 주는 노래 김광진

제목만 봐도 행복해지는 노래예요. 듣고 난 후에는 훨씬 더 흥만해지고요. '보장된 행복'이라고 표현할 만큼 즉각적으로 기분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이지요.



San Francisco Street 선 라이

왠지 모르게 분주히 움직여야 할 것 같고, 자꾸만 조금해진다면 들어 보세요. 삶의 템포를 제자리에 돌려놓은 뒤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38,000km 너머의 빅베이비 빅 베이비 드라이버

마음을 사르르 녹이는 음악이랄까요. 그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동안은 몽계구름을 타고 천천히 하늘을 떠다니다 나무에 열린 과자를 마구 따먹는 꿈을 꾸는 듯해요.

©와우산스레코드, 빅스



강아솔

오랫동안 사랑을 마주하는 시간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2012년 첫 정규 앨범 <당신이 놓고 왔던 짧은 기억>을 발매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진솔하고 담백한 가사로 마음을 다독이는 음악을 만들었고, 2023년 에세이와 함께 발표한 정규 앨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모두가 있는 곳으로>가 올해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포크노래 부문을 수상하며 다시 주목받았다. 현재 제주도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며, 멜론 트랙제로 디제이로도 활약하고 있다. 대표곡으로 '그대에게 '섬''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등이 있다.

2025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2025. 9. 26.(금) ~ 10. 5.(일) 중앙선 1942 안동역, 원도심, 탈춤공원 일원

주 관 한국정신문화재단
KOREA FOUNDATION FOR CULTURES AND ETHICS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국가유산청
Korea Heritage Service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안동시

